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026년

제 19차 정기총회

| 일시: 2026년 1월 18일(일) 오전 11시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 (대방동)

글 싣는 순서

03	식순
04	대표 인사말
06	19기 총회준비위원회 경과보고
07	18기 2차년도 활동보고
19	2025년 지부 활동 보고
48	2025년 사업 평가
114	2025년 재정 보고
121	감사 보고
126	19기 사업 계획(안)
143	19기 1차년도 예산 (안)
146	회칙 개정 (안)

제19차

정기총회

식 순

■ 정기 총회

개회사		총회 의장
민중의례		총회 의장
성원보고 및 서기 임명		총회 의장
대표 인사말		대표
참가지부 및 회원소개		대표
19기 총회 준비 경과보고		총준위원장
2025년 지부 활동보고		각 지부장
2025년 사업평가 심의/의결		각 부장
2025년 재정보고		사무국장
2025년 재정/사업 감사 보고		감사
감사패 전달 및 회원표창		대표
임원선출		총회 의장
19기 사업계획 심의/의결		신임 대표
2026년 예산안 심의/의결		신임 대표
회칙 개정의 건		신임 대표
폐회 선언		총회 의장



대표 인사말

대표 전 경 립

먼저, 지난 겨울의 매서운 바람과 눈을 함께 맞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연대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내란 청산의 길은 멀고도 지난하며, 사회대개혁의 과제들 또한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독했던 겨울과 불안했던 봄을 지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기꺼이 걸을 내어주신 회원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원들의 참여와 연대가 없었다면, 애태우며 견뎌야 했던 내란 정국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무사히 얼굴을 마주하고 총회를 열 수 있어 더욱 반갑고 뜻깊게 느껴집니다.

제가 대표직을 맡은 지도 어느덧 2년이 흘렀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회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8기 건약의 기조는 “다양하게 질문하고, 실천”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자 였습니다.

광장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회원들이 함께하게 되었고, 로고 변경과 같은 외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동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분히 질문했는가.

그 질문들이 서로를 자극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나아갔는가. 질문을 통한 실천과 새로움은 과연 충분히 축적되었는가를 자문해봅니다.

새로움은 새로워 져야한다는 의지와 선언으로 다다를수 없기 때문에 호기롭게 출발을 하였지만 성찰과 평가를 해야 하는 시간에 여러 물음들이 따라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책과 영화,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질문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질문들은 정치·사회적 정세가 요동치는 이 전환기에, 우리 운동이 어디에 서 있으며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국제정세의 불안, AI 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의 산업 재편, 돌봄의 위기,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제기되는 기후정의의 과제, 그리고 정치의 언어가 되어버린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더 이상 개별 의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위기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공동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들은 지난 18기를 돌아보고 , 동시에 19기를 열기 위한 출발점일 것입니다.

지난 2년간 대표로서 여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곁에서 말을 건네고 방향을 함께 고민해주시고, 따뜻한 응원과 단단한 격려를 보내 주신 회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19기 총회 준비위원회 경과보고

| 총회 준비위원장 : 전경립

| 총준위 구성 : 중앙 집행위원회 및 건약 활동 회원

| 총준위 1차 회의 : 2025년 12월 4일
부서별 평가 및 사전행사 기획 논의

| 총준위 2차 회의: 2025년 12월 22일
18기 총괄 사업평가와 2026년 정세전망, 19기 사업기조 제안 및 논의

| 총준위 3차 회의 : 2026년 1월 5일
19기 사업기조에 대한 추가 논의와 부서별 사업계획, 회칙 검토

| 2026 1월 18일 제 19차 정기 총회

보고 자료

18기 2차년도(2025년) 활동 보고

| 성명·논평·기자회견

- 01/16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쿠데타범죄자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정책 실행 계획 모두 폐기하라
- 02/06 [공동성명]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시도다.
- 03/06 [사후보도자료] 내란범들은 가고 임신중지권리 보장 오라! 윤석열 퇴진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집회 열려
- 03/10 [무상의료운동본부][논평] 정부의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발표에 부처
- 03/11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재구속하라
- 03/13 [성명] 건보재정과 환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용납할 수 없다
- 03/14 [논평]콜린알페세레이트 급여축소 취소소송의 제약사 최종패소는 당연한 결과다
- 03/19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의 정책을 발표하려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강력 규탄한다
- 03/21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쿠데타 범죄 윤석열 정권의 거짓 의료개혁은 폐기되어야 한다
- 04/02 [보건의료인 1653인 선언] 민주주의와 생명을 짓밟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04/04 [보건연][논평] 윤석열 파면은 몸 던져 민주주의를 지킨 민중의 승리
- 04/04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 윤석열 파면! 우리 운동의 승리다!
- 04/11 [공동][성명] 공공병상 확충 없는 병상수급정책은 지역의료 붕괴를 방치하는 국민 기만이다.
- 04/17 [좋은공공병원운동본부][성명]부천에는 공공병원이 꼭 필요하다! 절박한 부천 시민들의 농성 투쟁을 지지한다.
- 04/23 [논평] 빌베리 급여 삭제, 4년의 법적 공방 끝에 드디어 마침표
- 04/23 [보건연][논평]윤석열 식 가짜 ‘의료개혁’의 완전한 파산
- 04/25 [논평] 바이오기업 관리종목 지정 유예, 환상을 팔아 투자자 피해만 양산한다
- 04/28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기자회견]내란잔당언론 조선일보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거짓보도 중단하라
- 04/28 [공동][성명]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날치기 통과 시도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 05/08 [보건연][성명] 대법원의 정치개입 규탄한다
- 05/08 [공동][보건의료대선헌정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노인 어린이 의료비 국가보장/ 건강보험 보장률 80% 확대/ 지역마다 공공병원 대폭 확충/ 공공의사 국가책임 양성과 배치/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 중단
- 05/13 [의약품 정책제안 첫 번째]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약가인상 넘어선 공공성 강화정책

필요하다

- 05/13 [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논평] 법원에 건강권과 공중보건을 위한 책임있는 판결을 촉구한다
- 05/14 [의약품 정책제안 두 번째] 약값은 내리고 접근성은 높이는 건약의 의약품 정책제안
- 05/15 [의약품 정책제안 세 번째] 뒤쳐진 제약산업 환경정책, 국제 규제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 05/16 [의약품 정책제안 네 번째] 여성의 재생산권 보호를 위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 시급
- 05/21 [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성남시의료원 진실 왜곡, 공공의료 파괴 개혁신당 이준석 규탄
- 05/22 [공동][결의대회]빈곤층 의료비 인상, 의료시장화 시도를 중단하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 강화하라.
- 05/22 [모임넷][기자회견] ‘임신중지 권리보장, 3년전엔 약속이었고 지금은 침묵이다.
- 05/27 [보도자료] 건약, 민주당과 품절약 대응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 05/27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갈라치기·혐오 선동 극우 정치인 이준석의 엉터리 건강보험 공약
- 05/29 [공동][보건의료 공약 논평]
- 06/02 [공동][논평] 이번 WHO팬데믹 협정채택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의 최소한 조치다.
- 06/02 [무상의료운동본부][보도자료]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의료기술의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 06/04 [논평] 새로운 나라에는 새로운 의약품 정책 패러다임이 마련되어야
- 06/05 [성명] 정책 설계자에서 정책 파괴자로... 퇴직 공직자의 책임윤리 바로세워야
- 06/11 [공동][기자회견]내란정권의 대표 복지 후퇴정책,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전면 철회하라!
- 06/11 [이주노동자평등연대][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비인도적 이민정책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 06/19 [보건연][성명] 테러국가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중단하라
- 06/20 [보건의료계 선언]생사를 건 해고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이제 소년공 이재명의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 06/23 [공동][기자회견]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STOP the ATTACKS ON IRAN!
- 06/25 [성명]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
- 06/30 [보건연][논평] 복지부, 식약처 장차관 인선에 대한 논평
- 06/30 [성명] 오유경 식약처장 유임, 국민 건강 외면한 제약산업 지원처 선언이다
- 07/03 [공동][기자회견]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이 추진하던 의료민영화.산업화 정책을 모두 폐기하라!
- 07/04 [논평] 트럼프와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인상 압력,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 07/11 [기자회견] 민주주의 파괴하고 혐오선동 일삼는 극우세력 물러가라
- 07/17 [공동][의견서]빈곤층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 07/23 [논평] 정은경 신임 복지부장관 취임에 부쳐

- 07/25 [모임넷][성명] 권리보장을 위한 진전,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의결을 요구한다.
- 07/29 [보건의료인 선언] “가자지구에 폭탄이 아니라 식량을”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라!”
- 08/21 [무상의료운동본부][논평]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에 대한 입장
- 08/28 [공동][성명] 고물가, 저임금, 생계위기에 서민 건강보험료를 인상 반대한다
- 09/03 [무상의료운동본부][논평] 공공의료 예산은 절감, AI·바이오헬스·제약산업 지원 예산은 평평
- 09/08 [논평] K바이오토론회는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을 외면한, 기업민원 청취회에 불과했다
- 09/09 [아프면월권리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는 유급병가 법제화와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통해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월 권리 보장하라
- 09/11 [무상의료운동본부][기자회견] 민간 영리 플랫폼 금지 없는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한다
- 09/15 [공동][성명] 공공의료와 지역医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09/15 [성명] 이재명 정부는 제약기업 봐주기 행보 즉각 중단하라
- 09/16 [무상의료운동본부][기자회견] 건강보험 국고지원 대폭확대는 건강보험 강화의 출발
- 09/18 [공동][기자간담회]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
- 09/23 [모임넷][기자회견]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산유도제 도입, 하루 빨리 모두에게!
- 09/30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 건보공단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선 안된다
- 10/09 [보건연][성명] 이스라엘은 해초 활동가와, 의료진을 포함한 수무드 선단의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 10/15 [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논평] 지역의료 살리지 못할 ‘필수의료’ 법안 통과 유감이다. 국가책임 ‘공공의료’ 강화 분명히 하라!
- 10/21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 의료대란 종식, 이제 근거 없고 부작용만 양산한 영리 앱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 10/22 [공동][성명] 정률제 개악의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복지부의 의료급여 포럼을 규탄한다!
- 10/23 [모임넷][성명] 6년간의 방관과 태업, 이제는 끝내야 한다
- 10/27 [무상의료운동본부][보도자료] 영리기업 진료 플랫폼 법제화는 의료민영화
- 10/29 [사후보도자료] 폐의약품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 발표
- 11/02 [성명] 혁신의 탈을 쓴 특혜... 리베이트 족쇄를 푸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 11/07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성급한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에 앞서, 정부는 그간의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부터 내놓아야 한다.
- 11/12 [공동성명] 비대면 진료 영리 플랫폼에 대한 규정은 의료법 외 별도 규제법령 필요
- 11/19 [사후보도자료] 건약,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심포지엄 개최
- 11/19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 의료민영화인 원격의료 법제화 의료법 개악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강력히 규탄한다

- 11/23 [성명] ‘약가 뺄튀기’ 정책을 이제라도 돌려놔야 한다
- 11/25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건강보험원칙을 무너뜨리는 약가 비밀주의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 11/27 [무상의료운동본부][기자회견] 원격의료 법제화 본회의 통과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 11/28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 약가제도 개선방안, 국민 건강권과 건보재정은 제약산업 재편의 그림자인가
- 12/02 [공동성명]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법안 반대한다
- 12/03 [성명] 약가제도 개악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늘어놓은 거짓말들
- 12/03 [공동성명] 국회는 ‘플랫폼 도매상 운영금지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 12/03 [계엄 1년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 12/04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 의료민영화법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 12/08 [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상근거 없는 애엽 추출물의 구원투수가 되지 말아야
- 12/10 [공동성명] 의료급여 보장성 후퇴 ‘본인부담 차등제’ 끼워 넣은 복지부를 규탄한다.
- 12/11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을 위한 ‘닥터나우방지법’ 입법훼방을 중단하라
- 12/16 [무상의료운동본부][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닥터나우 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 12/22 [모임넷][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
- 12/23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 건정심은 ‘애엽추출물’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급여유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12/23 [보도자료] 국민 세금 2조원 쏟아부은 ‘혁신형 제약기업’, 혁신도 윤리도 없었다
- 12/29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
- 01/04 [보건연][성명]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규탄한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라!
- 01/05 [성명] 첨단재생의료 규제완화 방안, 한국 국민들이 줄기세포 놀이터의 도구가 아니다
- 01/06 [보도자료] 건약, 약가유연계약제 관련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령안 반대 의견서 제출

| 기고

- [그 약이 알고 싶다_13번째] 역대급 독감, 15만원 주사 한방으로 해결... 의사만 잘 아는 속사정 (02.06)
- [그 약이 알고 싶다_14번째] 피임약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한국사회 (02.28)

- [그 약이 알고 싶다_15번째] 백신 광고에 등장한 아이돌 그룹, 이유 있었다. (03.21)
- [그 약이 알고 싶다_16번째] 제약산업과 대형 로펌의 연결이 위험한 이유 (04.12)
- [그 약이 알고 싶다_17번째] ‘존슨앤드존슨의 어두운 비밀’ ... 제약비리에 더욱 민감한 이유 (05.02)
- [그 약이 알고 싶다_18번째] 트럼프 약가인하 폭탄선언...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다 (05.23)
- [그 약이 알고 싶다_19번째] 메틸페니데이트 품질사태에서 드러난 불편한 진실 (06.13)
- [그 약이 알고 싶다_20번째] ‘화제의 약’이라는 치매치료제, 크게 확산되지 못한 이유 (07.11)
- [그 약이 알고 싶다_21번째] 죽음 부른 ‘기적의 약’ ... 논란 계속되는 이유 (08.02)
- [그 약이 알고 싶다_22번째] 넘쳐나는 ‘위고비’ 게시물, 식욕억제제의 진짜 효과 (08.22)
- [그 약이 알고 싶다_23번째] ‘위고비’ 가격인하의 진실... 견제 받지 않는 약값의 비밀 (09.12)
- [대구광역시 약사회지_칼럼] 약사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2025년 9월호)
- [그 약이 알고 싶다_24번째] 목숨걸고 살빼는 사회...식욕억제제의 불편한 진실 (10.03)
- [공동리포트 국민제안위원회] 의약품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 (10.15)
- [한겨레_왜냐면] 임신중지약 ‘형식적 도입’ 봉인과 다를 바 없다 (10.21)
- [그 약이 알고 싶다_25번째] 우리나라 약값이 투명해서 문제? 제약사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10.24)
- [그 약이 알고 싶다_26번째] ‘국민 구내염 약’의 위험 감수했던 이유는 속도다 (11.21)
- [그 약이 알고 싶다_27번째] 약제비 폭탄 온다... 정부는 왜 스스로 무릎을 꿇었나(12.12)
- [그 약이 알고 싶다_28번째] 약쑥의 전설이 된 ‘국민 위염치료제’? 그 신화의 민낯(12.30)

| 회지·출판 등 미디어 제작 사업

- 온라인 회지 ‘건약 뉴스레터’ 51호 발행 (01/10)
- 온라인 회지 ‘건약 뉴스레터’ 52호 발행 (03/31)
- 온라인 회지 ‘건약 뉴스레터’ 53호 발행 (06/30)
- 온라인 회지 ‘건약 뉴스레터’ 54호 발행 (07/25)
- 온라인 회지 ‘건약 뉴스레터’ 55호 발행 (08/29)
- 온라인 회지 ‘건약 뉴스레터’ 56호 발행 (09/24)
- 온라인 회지 ‘건약 뉴스레터’ 57호 발행 (10/28)
- 온라인 회지 ‘건약 뉴스레터’ 58호 발행 (11/25)
- 온라인 회지 ‘건약 뉴스레터’ 59호 발행 (12/26)

| 주요활동 - 중앙

(1월부터 4월까지 거의 매주 토요일에 탄핵촉구 집회 참여)

<1월>

- 1월 12일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토론회 진행 (주제: 윤석열 퇴진운동의 현황과 과제)
- 1월 16일 영화 토크아보기 모임(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
- 1월 19일 제18차 건약 대의원 총회 개최
- 1월 31일 건약 아카데미 진행 (책 ‘권력과 교회’)

<2월>

- 2월 2일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토론회 진행 (주제: 극우세력의 가시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 2월 2일 ‘배워서남주는책읽기’ 모임 진행 (한강 작가의 ‘흰’ 토의)
- 2월 2일 보건의료청년학생 일일학교 2회차 진행 (주제: 청년여성의 노동권과 성과재생산권)
- 2월 8일~9일 약대생 연합동아리 ‘그린처방전’ 1기 마무리 캠프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2월 10일 제1차 건약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2월 13일 정보공유연대 주최 ‘인권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성’ 토론회 참여
- 2월 13일 보건의료청년학생 모임 진행 (주제: 한국의 재생산권을 둘러싼 정치와 미프진 도입운동)
- 2월 16일 건약 이음 행사 진행 (졸업생 및 신입회원 대상 건약 활동 소개 및 선배들의 이야기)
- 2월 16일 해남농민약국 30주년 행사 연대 참여
- 2월 17일 정책부 회의 (총선공약 리뷰 및 필수약품 리뷰 보고서 논의)
- 2월 20일 영화 토크아보기 모임 (영화 ‘노베어스’)
- 2월 22일 ‘약사다’ 진행 (주제: 고가치료제 개발과 의약품 접근권)
- 2월 25일 제13회 환경보건시민대회 공동주최 참여
- 2월 26일 ‘의약품 접근권 연구팀’ 모집
- 2월 26일 건약 아카데미 진행 (책 ‘정념과 이해관계’)
- 2월 27일 제2차 건약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3월 >

- 3월 2일 의약품 접근권 연구팀 오리엔테이션 진행 (온라인)
- 3월 5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집회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참여
- 3월 8일 의약품 접근권 연구팀 1차 수업 진행 (주제: 의약품 생산의 정치경제학과 제약산업 육성정책)
- 3월 9일 ‘그린처방전’ 1기 종파티
- 3월 9일 보건의료청년학생 일일학교 3회차 진행 (의료계 권위주의 및 디지털헬스 주제)
- 3월 9일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시민대토론회 참여
- 3월 19일 ‘임상시험약의 치료목적사용승인제도’ 주제로 새싹모임 진행
- 3월 20일 영화 토크아보기 모임 (영화 ‘더 웨일’)
- 3월 22일 ‘건약 정치를 사유하다’ 모임 진행 (주제: 마키아벨리와 칼 슈미트 이후의 현대 정치철학)
- 3월 23일 약사 시국선언 조직 및 발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
- 3월 26일 건약 아카데미 진행 (책 ‘흐름을 깨뜨리는 세계사’)
- 3월 27일 제3차 건약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3월 30일 ‘그린처방전’ 2기 오프라인 모임
- 3월 30일 ‘배워서남주는책읽기’ 모임 진행 (책 ‘권력과 교회’)
- 3월 31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후책 공부모임’ 시작 (매주 월요일)

<4월>

- 4월 2일 건약 엘림포럼 진행 (주제: ‘연결된 위기: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4월 3일 보건의료인 시국선언 기자회견 참여 (국회 앞)
- 4월 5일 의약품 접근권 연구팀 2차 오프라인 모임 (주제: 국내 의약품 급여제도의 이해)
- 4월 7일 건약 X(구 twitter) 계정 신설 (SNS 활동 시작)
- 4월 10일 제4차 건약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4월 11일 약물 부작용 주의보 1호 자료 배포 (주제: 코대원포르테 시럽)
- 4월 12일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토론회 (주제: 탄핵운동 4개월, 돌아보고 나아가기)
- 4월 17일 영화 토크아보기 모임 (영화 ‘제로데이’)
- 4월 18일 대경지부 정책간담회 진행 (주제 ‘재생산권 정치와 미프진 도입운동’)
- 4월 23일 건약 아카데미 진행 (책 ‘어셈블리 1부’)
- 4월 26일 의약품 정책 관련 대선공약 제안을 위한 정책부 워크숍
- 4월 27일 ‘배워서남주는책읽기’ 모임 진행 (책 ‘권력과 교회’)
- 4월 30일 제5차 건약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5월>

- 5월 2일 대한약사회에 유산유도제 도입 및 재생산권 확대 관련 입장문 요구
- 5월 3일 의약품 접근권 연구팀 3차 오프라인 모임 (주제: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역사와 현재)
- 5월 10일 ‘그린처방전’ 2기 오프라인 플로깅 진행 (망원동 한강공원)
- 5월 12일 약물 부작용 주의보 2호 자료 배포 (주제: 메트폴민)
- 5월 14일 트럼프의 약가인하 행정명령 관련 연합뉴스 인터뷰
- 5월 14일 늘품가치 주최 폐의약품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
- 5월 15일 에이즈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간담회 진행 (주제: 에이즈치료제 접근권 운동의 역사와 현재 상황)
- 5월 15일 영화 토크아보기 모임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 5월 17일 트럼프의 약가인하 행정명령 관련 YTN 인터뷰
- 5월 18일 ‘배워서남주는책읽기’ 모임 진행 (책 ‘너무 시끄러운 고독’)
- 5월 19일 의약품 정책공약 요구 관련 김윤의원과 간담회 진행
- 5월 19일 제6차 건약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5월 20일 광전지부 정책간담회 진행 (주제 ‘재생산권 정치와 미프진 도입운동’)
- 5월 23일 건약 아카데미 진행 (책 ‘흐름을 깨는 세계사’ 완독)
- 5월 27일 민주당과 품절약 대응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 5월 28일 건약 아카데미 진행 (책 ‘어셈블리 2부’)
 5월 29일 건약 정치를 사유하다 진행 (주제: ‘정치적 올바름: 과연 진보인가’)
 5월 31일 의약품 접근권 연구팀 4차 오프라인 모임 (주제: 품질약 사태의 구조적 원인)

<6월>

- 6월 4일 제7차 건약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6월 13일 원수폭금지 세계대회 참가자 1차 사전모임 (온라인)
 6월 17일 약물 부작용 주의보 3호 자료 배포 (주제: 울트라셋)
 6월 18일 영화 토크아보기 모임 (영화 ‘두 교황’)
 6월 18일 새약사새약국사업부 약물부작용 워크샵 첫 모임
 6월 20일 건약 엘리트포럼 진행 (주제: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
 6월 22일 ‘배워서남주는책읽기’ 모임 진행 (책 ‘돌봄의 논리’)
 6월 25일 건약 아카데미 진행 (주제: ‘어셈블리 3부’)
 6월 30일 제8차 건약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진행

<7월>

- 7월 1일 원수폭금지 세계대회 참가자 2차 사전모임 (일본 의료체계 학습)
 7월 5일 의약품접근권연구팀 5차 오프라인 모임 (주제: ‘최신 의약품접근권 운동’)
 7월 7일 ‘그린처방전 2기’ 폐의약품 환경수업 시작 (1달간 11개 학교 진행)
 7월 8일 보건의료단체연합 주최 ‘보건의료 및 의약품 정책전망’ 토론회 참여
 7월 11일 국정기획위원회 간담회 진행 (약제비 절감 정책 및 제네릭 가격 문제 논의)
 7월 11일 여성변호사회 주최, 임신중단 관련 법적 공백 해소방향과 과제 대토론회 참여
 7월 12일 원수폭금지 세계대회 특별모임 (대구 연극 ‘불새’ 관람)
 7월 13일 배워서남주는책읽기 모임 진행 (도서 ‘돌봄의 논리’)
 7월 16일 영화 토크아보기 모임 (영화 ‘라스트마일’)
 7월 17일 제9차 건약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7월 18일 원수폭금지 세계대회 참가자 3차 사전모임 (팔레스타인 등 국제 정세 공유 및 액션 기획)
 7월 19일 그린처방전 2기 안동 MT 및 연대활동 (~20일,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7월 24일 건약 정치를 사유하다 진행(주제: ‘보수주의 기원과 극우정치’)

- 7월 25일 약물 부작용 주의보 4호 자료 배포 (주제: 경구 피임약)
7월 27일 새약사새약국사업부 약물부작용 워크숍 오프라인 1회차
7월 30일 건약 아카데미 진행(주제: ‘어셈블리 4부’)
7월 31일 건약 엘림포럼 진행 (주제: ‘지난 6개월, 광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나’)

<8월>

- 8월 1일 원수폭금지 세계대회 참가자 4차 사전모임 (후쿠시마 핵폐수 및 국내 원전 문제)
8월 2일 의약품접근권연구팀 브레인스토밍 회의 (11월 심포지엄 기획)
8월 5일~10일 일본 원수폭금지 세계대회 참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8월 6일 박주민 의원실 주최,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 참여
8월 13일 영화 토크하기 모임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8월 19일 제10차 건약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8월 20일 새약사새약국사업부 약물부작용 워크숍 온라인 모임 2회차
8월 21일 모자보건법 개정 및 유산유도제 도입 관련 남인순 의원실 면담
8월 27일 건약 아카데미 진행 (책 ‘지속불가능 자본주의’)
8월 29일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토론회 진행 (주제: ‘극단의 시대, 한국사회 개혁과제’)
8월 31일 배워서남주는책읽기 모임 진행 (책 ‘어쩌다 우리는 환자가 되었나’)

<9월>

- 9월 8일 제11차 건약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9월 17일 영화 토크하기 모임 (영화 ‘싸이보그지만 괜찮아’)
9월 18일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의약품과 약가제도 정책 1차 워크숍 진행
9월 24일 건약 아카데미 진행 (도서 ‘지속불가능 자본주의’)
9월 25일 건약 정치를 사유하다 진행 (주제: ‘정치심리’)
9월 27일 927 기후정의행진 참여 (서울 세종대로)
9월 28일 새약사새약국사업부 약물부작용 워크숍 오프모임 2회차

<10월>

- 10월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 참여
- 10월 2일 건약 엘림포럼 개최 (주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주민 건강권에 대하여’)
- 10월 13일 제12차 건약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10월 15일 새약사새약국사업부 약물부작용 워크숍 온라인 모임 3회차
- 10월 16일 참여연대 회지 인터뷰 (건약 활동 소개)
- 10월 17일 영화 토크아보기 모임 (영화 ‘괴물’)
- 10월 2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의약품과 약가제도 정책 2차 워크숍 진행
- 10월 25일 전국건약행사 개최 (~26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 10월 27일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 저지 의원실 방문 (서영석, 전진숙, 김남희, 이수진, 남인순 의원실)
- 10월 29일 건약 아카데미 진행 (주제: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역사와 의의’)
- 10월 29일 그린처방전 2기 폐의약품 보고서 배포
- 10월 30일 EBS뉴스 생방송 인터뷰 (임신중지 약물 도입 관련)
- 10월 30일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 토론회 (주제: ‘윤석열-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정책 평가’)

<11월>

- 11월 04일 원격의료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 11월 6일 제13차 건약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11월 11일 영화 토크아보기 모임 진행 (영화 ‘소년의 시간’)
- 11월 16일 미래세대가 말하는 모두의 의약품 접근권 심포지엄 개최 (서울여성플라자)
- 11월 20일 건약 정치를 사유하다 진행(주제: ‘정체성 정치’ 진행)
- 11월 29일 ‘그린처방전’ 2기 오프라인 플로깅 진행 (서울숲)
- 11월 30일 새약사새약국사업부, ‘약물부작용 워크숍’ 마지막 오프모임 진행

<12월>

- 12월 3일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극복 1주년 집회 참여
- 12월 5일 엘림포럼 ‘AI와 데이터센터, 우리가 살아갈 미래’ 온라인으로 개최
- 12월 7일 동두천 평화기행 및 건약 송년회 개최

12월 11일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실 면담
12월 16일 ‘약가제도 개선방안’ 연속 간담회 개최를 위한 준비모임 진행
12월 17일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면담
12월 18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단체 송년회 개최

<1월>

1월 8일 <‘약가제도 개선방안’ 연속간담회 1탄: 선등제 후평가와 약가유연제> 참여
1월 9일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대한약사회 건정심 위원과 면담
1월 12일 <‘약가제도 개선방안’ 연속간담회 2탄: 제네릭 약가제도와 필수약품 공급> 참여

|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
기후위기비상행동 참여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 참여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참여
아프면설권리공동행동(준) 참여
윤석열 즉각 퇴진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참여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참여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참여

보고자료

지부 활동 보고

광전지부

2025년 광주전남지부 사업보고

1. 월별 활동

- 1월 25일 광전건약 28기 정기총회
- 2월 4일 운영위원회, 16일 사무실이사, 해남농민약국30주년 행사 참여
- 3월 4일 운영위원회, 11일/18일/25일/4월1일 새내기약사교실(4차시)
17일 광전 보건의료인 시국선언 및 단식농성장 방문
- 4월 15일 운영위원회
- 5월 9일 의료재난의 시대 북토크 참여, 13일 운영위원회,
17일 518전야제, 20일 미프진 지역간담회
- 6월 10일 운영위원회, 22일 광전건약 야유회
- 7월 15일 운영위원회
- 8월 5일 운영위원회, 7일~10일 원수폭금지세계대회(광전지부 3명 참가),
22일 회원단합회
- 9월 2일 운영위원회, 24일 국립대병원 파업지지 인증샷참가,
27일 망월동 열사묘역 합동별초 의약품지원, 회원단합회(조선대약향제 참여)
- 10월 2일 지부 엘림포럼(이주민건강권), 14일 운영위원회,
19일 광주평화통일마라톤대회 (민변,건약,건치,광주의료원운동본부 연합참가)
20일/27일/11월3일/10일 인문학포럼(클래식이야기), 25~26일 전건약 야유회
- 11월 6일 광주여성영화제 개막식 참여, 7일 고려인후원 자선음악회 참여,
25일 운영위원회, 28일 광주진보연대 후원의 밤
- 12월 11일 고려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고사모) 송년회 참가,
23일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1주기 추모현수막 게첨 및 추천단체 참가,
9일/30일/ 1월10일/20일 총준위

2. 고려인 광주 진료소 약국팀

2025년 계획

1. 목표와 의의

- 고려인들의 건강권 실현에 연대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회원들의 활동력을 높인다.
- 약대생들에게 봉사활동의 장을 제공, 함께 지속적인 사회활동의 창구를 마련한다.

2. 세부 계획

참여약사 확대 및 상,하반기 정기모임 진행/약제비 절감을 위한 폐기약 최소화/
세심한 투약을 위한 통역 복약라벨 보장/약대생동아리 ‘약수회’ 신입약사교실
통한 회원가입

<평가 및 계획>

- 7명의 회원들이 올해 결함하면서 총 17명의 약사들이 활동에 참여중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약사 2명, 약대생 2명(시험과 방학기간에는 약사3명)이 같은 조로 구성되어 약 2달간격으로 참여가 여유로워졌습니다. 다만, 상반기 정기모임이 진행되지 못했고 하반기 송년회만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 고려인 마을 탐방을 비롯하여 상하반기 모두 전체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틈틈이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폐기약을 최소화하였으나, 회원약국을 통한 약 교환은 사용약이 맞지 않아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 통역 복약라벨 보완이 진행되었으나 아직 부족합니다. 담당주체 선정이 필요합니다.
- 바쁘다보면 놓치게 되는 과거 조제기록과 혈압, 당뇨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여 만성질환자 복약지도에 더 세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약대생 졸업반 진료소 참여횟수가 적다보니 건약 홍보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학생시기 건약과의 교류를 강화하는게 항상 숙제입니다.
- 고려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고사모)에 건약이름으로 정회원 가입이 되어 진료소 운영에 관한 소통이 좀더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 데일리팜 주최 콘테스트에 고려인 광주진료소 활동 소개를 준비해서 진료소활동 홍보를 해보려 합니다.

3. 광주의료원 설립 연대 활동

2025년 계획

목표와 의의

- 광주의료원 설립
-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단체와 연대활동
- 광주의료원 등 공공의료에서의 올바른 약사 역할 모색

<활동 및 평가>

○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연대 활동

- 매월 1회 기획단 회의 참가(10회/년)
- 광주의료원 설립 재추진
 - 새로운 설립계획안 수립
 -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 예타면제를 위한 법적 제도 장치 촉구
- 지역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제 발굴
 - 시립요양병원 폐원 반대, 대안마련, 다른 공공병원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실천 활동

- 광주전남 보건의료인 시국선언문(3월) 발표, 전체 473명, 약사 79명)
- 지방지(광주일보, 전남일보 등)에 광주의료원 설립 촉구 신문 칼럼 기고(매월 1회, 전남일보)
- 518주간에 광주의료원 설립 홍보부스 운영(5월17일) : 부스홍보 및 종합밴드 지원
- 통일마라톤 대회에서 등자보를 통한 광주의료원 설립 촉구(10월19일)

○ 건약회원 대상 공공의료 이해 강화 사업

- 간담회, 토론회 개최 또는 참가 : 의료재난의 시대 북토크 참여
- 올바른 광주광역시 공공요양병원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11월25일)

○ 평가

-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대중홍보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고, 광주시민의 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광주의료원 설립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부족해 보여 걱정됩니다. 더욱 적극적 지속적인 의료원 설립운동 연대활동이 필요합니다.

4. 환경소모임

2025년 계획

목표와 의의

- 환경도서와 영화, 그리고 실천활동을 통해 기후위기의 해법을 모색하자.
- 지역의 환경이슈를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실천하자.

<활동과 평가>

- 3월17일 - 첫모임 (1년 계획세우기) 책, 줍킹, 영화보기를 순차적으로.
- 4월25일 - 책읽기 1차시(툰베리 외 공저 ‘기후책’)
- 5월10일 - 줍킹 (장소; 보성백민미술관— 티벳박물관 관람)
- 6월18일 - 영화보기 ‘두교황’
- 8월19일 - 책읽기 2차시
- 9월13일 - 줍킹 (장소; 고창서점마을 탐방)
- 10월22일 - 책읽기 3차시 (기후책 책거리)
- 11월8일 - 영화보기 (광주여성영화제 ‘인생세탁소’ 관람)
- 12월9일 - 송년회

- ‘기후책’은 툰베리외 다양한 환경전문가의 열정과 지성이 들어간 방대한 내용이었지만, 회원들이 꼼꼼히 각자 맡은 영역을 준비해와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 소모임 회원만이 아니라 많은 회원들이 줍킹의 기쁨, 환경에 대한 성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좀더 열린 구조로 실천활동 중심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5. 새내기약사교실

2025년 계획

1. 목표와 의의

- 약학대학을 졸업한 신입 약사들에게 의약품 강의를 진행하여 실무 적응을 도움.
- 약사의 사회적 소명을 고민하는 약사에게 건약을 홍보하고 신입회원을 모집.

2. 세부계획

- 4주 과정으로 3월~4월까지 진행. 일반의약품 내용과 건약 활동 함께 소개

<활동과 평가>

3월 11일 - 해열소염진통제, 감기약(이영주), 건약이 주목한 의약품(오정아)
 3월 18일 - 소화기계통 위장약(이창석), 환경과 의약품(김현진)
 3월 25일 - 화상치료 및 흉터치료 일반의약품(추경화), 피부질환 치료제(최연)
 4월 1일 -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이경훈), 건약 광전지부 소개(배정란)

- 건약을 알리고, 신입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이지만 점차 새내기약사에게는 약학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져(다양한 외부 공부모임 존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28명의 새내기약사가 참여하였고, 신입회원이 6명(송상엽, 윤주경, 박준하, 조영현, 오수진, 윤종호) 가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이후 신입회원예 대한 후속모임이 진행되지 못해 제대로 챙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6. 인문학 강좌

2025년 계획

1) 목표와 의의

- 집중강좌를 통해 회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며,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인식을 확장한다.

2) 세부계획

- 모차르트의 오페라 곡들을 감상하며 시대적 배경과 클래식을 이해한다.

〈활동과 평가〉

일시	내용 (강사: 양진호 인문학교육연구소장)
10월20일(월)	피가로의 결혼 - 이토록 미친 하루!
10월27일(월)	여자는 다 그래, 마술피리 - 새 세상, 새 예술
11월 3일(월)	마술피리, 돈 조반니 - 구원은 없다!
11월10일(월)	돈 조반니, 한국음악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 강의당 10~15명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으나 강의 진행 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를 했으면 좋았을거 같습니다.

- 일정은 연초에 계획을 진행해서 좀 더 여유롭게 일자 조율이 필요합니다.
- 음악의 역사적 배경과 곡과트별 자세한 해설이 어우러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강의 이후에도 추후 단체관람이나 인문학 관련 행사로 이어지면 좋을거 같습니다.

7. 회원 생일자 책 선물 보내기

2025년 계획	
1) 목표와 의의	- 광전회원의 생일을 축하할 겸 신규회원 연락처 추가 및 기존회원 연락처 갱신.
2) 세부계획	- 총회 전 부서원 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책들을 “2025 건약’ s pick” 으로 선정. 카카오톡 광전건약 단체톡방에 추천도서 및 수령방법을 안내, 수령날짜 선택지(즉시/생일날짜에 맞춰 중)를 전체 공지, 선택한 수령방법에 따라 전달

〈활동과 평가〉

일시	내용
2025.03.12	1. 단체톡방에 전체 공지. 2. 작년에 작성한 엑셀파일을 토대로 음력생일 양력으로 일괄 전환.
2025.03.12 ~ 2025.12.02	1. 신규회원 연락처 추가. 2. 단체톡방 공지 후 각 회원이 선택한 수령방법에 따라 전달. 3. 공지에 대한 답장을 주지 않은 회원에게는 최대한 생일날짜 맞춰 연락 후 선택한 책 전달.

- 연락처 확인된 회원 총 87명 중 60명 수령했습니다. (112만원 사용)
- 생일 책 수령방법은 모두 알라딘 선물하기를 이용했습니다.
- 새해에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되 12월~1월 중 추천도서 선정하여 좀더 빨리 공지할 예정입니다.

8. 광전건약 야유회

일시; 6월 22일

장소: 장흥 보림사,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배롱나무군락지인 송백정

참가; 총 19명(광주16명+목포3명)

- 준비기간이 부족했지만, 푸른하늘과 기와가 어우러지는 박윤우 회원의 홍보웹자보 그리고 박선자 회원의 꼼꼼한 답사로 잊혀진 동학의 역사와 명소를 발견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물이 많은 보림사의 풍광을 보며 흥미로운 사찰건축문화를 엿볼수 있었고, 열정적인 해설사님의 해설로 마지막 동학격전지였던 석대들전투에 대해 배웠습니다.
- 오랜만에 분회 회원들과도 만나는 자리인만큼 새해에는 문화재관람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예전처럼 1박2일로 해보았으면 합니다. 다음 야유회는 목포분회에서 기획해보기로 했습니다.

9. 광주평화통일 마라톤

일시; 10월 19일

장소: 광주 군공항 인근

참가; 총 55명(건약 24명, 민변 20명, 건치 7명, 광주의료원시민운동본부 4명)

- 광주평화연대와 광주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위가 함께 주최하는 광주평화통일마라톤대회는 접수당일 3200여명이 모두 마감되는 높은 관심속에서 올해로 14회째 치러지는 대회입니다. 이번이 3번째 참가인 건약은 작년 3개단체(건약,건치,민변)에 광주의료원 시민운동본부까지 4개의 단체가 함께 등록하여 하프(약21km) 4명, 10km 24명, 5km 27명 출전하였습니다. 3차시에 걸친 사전훈련을 기획했지만 시간이 맞지않아 훈련 참가자는 적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 55명의 참가자는 광주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자보를 부착하고 달리며 대시민 홍보를 하였습니다. 러닝을 통해 자신의 체력을 가늠해보며 몸을 되돌아보며 의미있는 실천활동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 목포 분회

2025년 건약 목포분회 활동 일지			
날짜		내용	참고
1월~		의약품 부작용 학습 소모임	매월 1회 '노인 약료 핵심 정리' 교재 마감 최화녕, 김미진, 염재언, 최승희
3월	1일	영화 '미키' 단체 관람	
	18일	정기 모임	
		목대약대 프리셉터 참여	오승우, 김미진

4월	19일	정기 모임	
5월	24일	정기 모임	결정 사항 1. 영화 김대중대통령 후원(10만원) 2. 목포지역 사회적협동조합 함께 평화 개별 후원회원 가입 3. 김윤희, 이주형 회원, 목포분회로 합류
6월	14~15일	전건약 중앙위 개최	중앙위 참관- 오승우, 김미진, 김경연(목포대 약대 학부생)
	22일	광전건약 합동야유회 참석	오승우, 최승희, 김미진
	26일	영산강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복원사업 범국민선언 참여	
7월	19일	정기 모임	
9월	20일	정기 모임	
10월	24~26일	전건약 행사 참석	염채언
11월	15일	정기 모임	결정 사항 1. 다제약물사업관련 다빈도 질환과 의약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 공유 2. 과대광고 다빈도 건기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 공유 3. 격월로 독서나 영화 관련 토론
건약 목포분회원 수상 내역			
2월	8일	남송약사대상 수상	정승원
		지오영약사대상 수상	유원석
11월		질병관리청장상 수상	최승희
12월	4일	약사봉사대상 수상	김미진

- 분회 회원 모두가 숫자는 적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고군분투했던 한해였습니다.

새해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 보려 합니다.

1. 다제약물사업관련 다빈도 질환과 의약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 공유

-다빈도 중복 질환과 다빈도 중복 의약품 선정은 현재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미진, 최승희 회원이, 관리와 상담 가이드라인은 전체 목포분회원들이 함께 하며 필요한 경우 논의해서 외부 자문을 받으려 합니다.

2. 과대광고 다빈도 건기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 공유

- 현재 TV 프로그램이나 홈쇼핑, 유튜브나 각종 매체를 통해 특정 건기식이 마치 만병통치약 인양 호도하거나 과장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추측됩니다.
- 실제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건기식을 들고 약국으로 상담하러 오거나 피해를 호소하러 오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 이에 따라 건약 목포분회에서는 시기적으로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과장, 과대 광고를 일삼는 건기식 내용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건약 회원 및 비회원 약사님들과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 다만, 건기식에 대한 약사님들의 시각이 제각각이라 비회원 약사님들과의 공유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경지부

2025년 대구경북지부 사업보고

I. 2025년도 사업

1. 회원의 날

- 2월 영화 보기 ‘소울’ 필름통
- 3월 산청 별아띠 별보러
- 4월 새약들(새내기 약사들을 위한 세미나)
정책간담회: ‘의약품을 통해 살펴보는 한국 재생산권 정치와 미프진 도입운동의 중요성’
(강사: 이동근 사무국장)
- 5월 대구수목원 걷기
- 7월 원폭 80주기 비핵평화연극 ‘불새’ 관람
- 9월 영화 보기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필름통
- 10월 전국건약행사
- 11월 대구간송미술관

평가 및 계획

내용이나 방식이 다양하게 짜임새 있었다. 다만, 오프라인 행사여서 그런지.. 참여하는 회원 폭이 다양하지 않은 듯하다. 온라인 모임도 내용에 따라 진행해보자.

필름통 영화 관람 준비 때 영화 추천자를 다양하게 해보자.

회원 모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이외의 회원들이 돌아가면 참여 가능한 날짜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반영해보자. 또한, 준비 단계에 구글폼으로 설문조사하여 회원 개개인의 관심사를 파악해 포커싱해보자.

후배 및 신입 회원 참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2. 기타 사업

나가사키 원수폭금지대회 참여

- 8/7~10일

- 원자폭탄 피해의 참혹함을 여러 증언과 전시관을 통해 경험하고 반전 평화에 대한 세계시민 연대의 기회였다. 팔레스타인 추모 액션과 이스라엘 전쟁을 지원하는 일본기업 규탄 시위도 함께 했습니다. 일본 민의련 회원들과의 교류에서 그들의 역사 인식에 감사하고 한국의 계엄 저지와 시민 연대의 경험을 공유했다.

조선인 추모비 앞에서 나가사키 원폭 조선인 희생자를 추도하였고, 원수폭금지대회에서 한국 발언자만 당시 조선인들의 희생자에 대해 얘기하는 상황이 좀 아쉬웠다. 향후 한국 원폭 피폭자들의 합천비폭평화대회에 참가도 필요할 것 같다.

단골약사캠페인

- 양현주 회원만 지속적으로 상담 진행 중
- 회원내 사업 확대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 논의가 필요하다
- 2026년 통합돌봄이 시행되어 다제약물사업의 참여 확대가 더 요구될 것 같다.

3. 소모임 평가 및 계획

1) 의약품 설명서 다시 읽기 모임 (이하 의설모)

- 구성원

- (1) 건약회원 : 한송희, 김균태, 이안나, 김경민, 우소빈, 손가희
- (2) 비건약회원 : 이효정, 신민아, 이승현

- 활동내용

(1) 스터디: 매월 4째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오프라인 모임

스터디 한 책 : ‘알면 약 모르면 독’ , ‘약이 병이 되는 시대’ , ‘노인약료 핵심정리’

12월 : 건강기능식품 공부 및 토론, 알면 약 모르면 독 완독 양승훈 약사 참관

1월 : 신년회겸 책 선정 위해 회식 및 방탈출 게임

- 2월 : 약이 병이 되는 시대 추천사와 서문 공부 및 토론 신유진 실습생 참관
3월 : 약이 병이 되는 시대 제 1부 유행병 공부 및 토론
4월 : 제 2부 정신과 약의 과학성 공부 및 토론 양승훈 약사 송별회
5월 : 참가인원 미달로 번개모임
6월 : 참가인원 미달로 다음달 연기
7월 : 3부 밝혀지는 역설 공부 및 토론, 책이 너무 어려워 ‘노인약료 핵심정리’ 변경
8월 : ‘노인약료 핵심정리’ 제 1부 총론 공부 및 토론
9월 : 우소빈 약사 청첩장 모임
10월 : 1부 총론 마무리 및 2부 노인에게 흔한 질환 공부 및 토론
11월 : 2부 심혈관계 질환 공부 및 토론

- 평가 및 계획

책을 선정하고 어려운 내용 때문에 갈팡질팡했고 참여인원이 부족해서 다른 연도 보다는 공부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슈들로 인해 몇몇 회원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인원을 늘릴지 분위기를 바꾸든지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6년은 의설모에게 많은 변화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주축이셨던 박미란 선배님의 부재와 몇몇 약사님들의 이탈이 느껴지고 회원들도 계속 진행했던 공부들이라 집중도가 약해진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새로운 책 ‘노인약료 핵심정리’ 책이 많은 도움이 되어 이 책을 끝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을 해볼 것입니다.

2) 새약들(신규)

- 구성원

- (1) 건약회원 : 한송희, 김군태, 손가희
(2) 비건약회원 : 김지민 박상준 신동훈 이강산 이중섭 전한빈 김정빈 최지인 황재훈

- 활동내용

- (1) 스터디: 매월 2째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오프라인 스터디 진행

스터디 한 책 : OTC 선택가이드

3월 : 신입약사에게 선포 신입약사들의 조언 및 새약들 스터디 가이드 세미나
 4월 : 근골격계 통증, 두통, 기침, 코감기, 무좀, 손발톱무좀, 아토피 공부 및 토론
 5월 : 색소침착, 상처관리, 비듬, 여드름, 탈모 공부 및 토론 이중섭 약사 군입대
 6월 : 알레르기 염증성 안과질환, 안구건조증, 시력감퇴, 구강 위생 공부 및 토론
 7월 : 소화불량, 속쓰림, 고창, 멀미, 설사 공부 및 토론
 8월 : 변비, 항문질환, 과민성대장증후군, 피임, 월경전 증후군 공부 및 토론
 9월 : 월경이상, 갱년기 장애, 질염, 불면증 공부 및 토론
 10월 : 기생충 감염, 비타민 및 미네랄 공부 및 토론
 11월 : 칼슘 비타민D, 빈혈, 혈액순환 개선, 간기능 개선 공부 및 토론 완책

- 평가 및 계획

2025년 신입약사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같이하고 건약을 홍보하여 신규 회원 1명 가입하였습니다. 활동 평가에서 멀리서 오는 노력에 비해 토론하는 시간이 짧아 아쉽다는 평이 많았고 본인들이 발제를 해서 발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스터디 내용은 모두 만족해하고 분위기도 좋고 신입약사들의 의지도 강하여 모임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다제약물과 부작용 스터디를 하기로 하고 지역의 다제약물사업에도 참여하면 같이 사례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독서모임

- 2024. 12월 필리프 슈테르처 ‘제정신이라는 착각’
- 2025. 2월 마사 C. 누스바움 ‘연약한 선’
- 3월 플라톤 ‘향연’
- 4월 대니얼 마코비츠 ‘엘리트 세습’
- 5월 한강 ‘소년이 온다’
- 6월 김옥숙 ‘흉터의 꽃’
- 7월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 9월 카를로 로벨리 ‘화이트홀’
- 11월 장용순 ‘라캉, 바디우, 들뢰즈의 세계관’

평가 및 계획

2025년에는 소설, 철학, 물리학, 뇌과학 등 다양한 책들과 함께 한 한해였습니다. 적당한 주제와 일정을 못 잡아 매년 하던 “저자/역자와의 대화”를 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일부 회원들의 바쁜 일정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여율이 조금 떨어졌고, 회원들이 각자 읽고 싶은 책과 모임에서 읽어야 할 책 사이에 괴리가 있어 참여가 힘든 회원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6년에도 열심히 책을 읽고 가능하다면 “저자/역자와의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같이 하고 싶은 책이나 저자가 있으면 많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초창기부터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많은 힘을 보태주신 이주미 회원을 추억합니다.

4) 가보자!(신규)

월 1회 정도 주말에 모여 한 시간 남짓 걸으면서 체력단련 및 회 내의 친목 도모
추진 회원: 박미란, 이주미, 오승희, 민수정, 김기숙외 다수

2월 첫모임:

- 2/16(일) 오전11시 수성못 둘레 걷기
참여회원: 박미란,김경한,한송희,김태희,오승희,김기숙 6명
아직은 쌀쌀한 기온이었으나 날씨는 몹시 화창함
땀이 제법 났 정도로 걷고, 근처 맛집에서 브런치 & 담소

3월 모임:

- 3/30(일) 오전11시 영남대학교 캠퍼스 걷기
참여회원: 박미란,김경한,전경림,한송희,오승희,김군태,손가희,꼬동이
막 제대한 양승훈 회원의 주도하에 벚꽃 만개한 캠퍼스 걷기 코스를 기획하였으나
양승훈 회원의 절박한 사유로 불참(ㅠ.ㅠ)해 아쉬움.
따뜻하고 청명한 날씨. 벚꽃만개, 온 사방이 모두 풍경화이고 남매지 산책은 덤

5월 모임:

- 5/11(일) 오전10시, 대구수목원
회원모임과 더불어 진행
참여회원: 최귀년,전경림,한송희,백광남,김태희,오승희,김기숙
주차장 넓다 해가 쨍쨍하기 전 산책하고(꽃, 나무 종류대로 다 본 듯한..)

안내도에 의존하기 보다는 발길 가는대로 걸으면서 시장기 느낄 때 쫘 후문 쪽 식당(맛집이었음^^)에서 식사하고, 빵이랑 차 마시며 수다
걸어온 길 반대쪽 데크 길은 입구까지 쫘 그늘로 이어져 식후 나른함을 달래며 걷기에 안성맞춤!

7월 모임:

- 7/13(일) 오전 10시 청도 낙대폭포, 남산계곡

참여회원: 오난희가족, 전경림가족, 백광남가족, 최귀년, 한송희, 김태희, 오승희, 민수정, 김기숙

무덥고 습한 날씨였지만 산중 자리한 계곡에서 더위를 식히고 오난희 회원 부부께서 손수 마련해주신 국수와 과일을 먹으며 담소를 오래 나누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로컬 푸드 직매장에 들러 장보기도~

8월~9월은 더위로 걷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반영

11월쫘 걷기를 계획했으나 11월 회원모임에 미술관 관람 일정이 있어 미술관에 합류

평가

날 좋은 날에 편안하게 걸으면서 살아온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식사도 함께(밥을 같이 먹는 사이에서 정이 생김^^)하고, 그러다보면 건강도 나아지리라는 보너스를 기대하며 결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구 날씨 6~9월은 이미 살인적인 더위가 느껴지는지라 걷기에 다소 부담이 되었고, 함께 출발을 약속했던 두 선배님의 부재도 안타깝다.

그러나, 같이 나란히 걷는 것은 역시 즐거운 일이었다.

모처럼의 주말을 함께 계획하는 일은 좀 부담되었지만, 셋이라도 모이면 걷는다는 생각으로(욕심을 버리고) 내년에는 좀 더 부지런히 걸어보리라 다짐해본다.

4. 연대사업 보고 및 계획

1)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 월 1회 정기 회의, 지역의 보건과 복지 등의 현안에 대응하고 대구시정 감시 활동
- 참여 단체: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 인도주의의사협의회,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연대 대구지역본부, 행동하는의사회
- 2/17 [성명] 코로나19 대구유행 5년, 무엇이 달라졌나?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그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 3/7 [성명] 의료 대란 속 믿을 곳은 공공병원,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재추진 촉구
: 새로운공공병원설립 대구시민행동
- 3/13 [기자회견] 대구시의 무책임한 시민단체 고발 규탄(11시, 동인동 대구시청 앞)
- 7/17 [기자회견] ‘대구 지역의료·돌봄 참담하다’ 민선 8기 대구시 보건복지 3년 평가
- 9/18 [성명] 대구시의 일방적인 ‘메디시티대구협의회’ 재발족을 규탄하며, 사회적으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9/28 대구퀴어문화축제: 의료부스 운영, 길리어드사 비판 유인물 배포 등
- 9/30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대구지역 간담회 참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중 대구달서구 상황, 본 사업이 유예가 된 상황 공유

< 선거 대응 >

- 4월 총선의 원내 정당별 공약(전국 및 지역) 검증과 보건 및 복지 공약 제안 등
- 3/26 [토론회] “제22대 총선 보건복지 공약 평가 토론회 : 원내 정당을 중심으로
- 6/16 [기자회견] 대한민국의 지역의료, 돌봄 암울하다. “아리송 두루뭉술”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 공약,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 의료총파업 및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대응 >

- 2/22 [성명] 정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의사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의대 증원을 거부하는 명분 없는 전공의 집단 행동을 규탄한다.
- 3/20 ‘지역의료 붕괴 위기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운영 실태(과별 진료 가능여부, 수술 지연 등), 진료과별 의사수 조사, 간호사 등 직군별 진료 현장 증언 수집
 - 소방서 응급환자 이송 관련 담당자 인터뷰 통한 상황 파악
 - 시민건강권 침해 사례(언론 보도, 주위 사례 제보 받기)
 - 의료연대 3개 병원(울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진주 경상대병원) 설문조사 결과
 - 지역의료 붕괴 위기 대책 마련 요구 등
- 3/23 [집회] “의-정 대립 속에 위기의 시민생명을 지키고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대구시민 대행진” 대구한일CGV앞 ~ 경북대학교 병원 앞까지 행진
- 4/3 [기자회견] 진짜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료시장화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
자의 생명을 불모로 한 명분없는 의사파업 중단하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

- 6/18 [기자회견] 환자생명을 불모로 한 명분없는 의사집단 휴진 철회와 가짜의료개혁 무능/불통 정부규탄 및 시민 의료주권 찾기

< 반환점을 돈 홍준표 대구시정, 보건복지 중간평가 토론회 >

- 2024년 6월 27일(목요일) 19:00, 교육공무직노동조합 회의(광덕빌딩 10층)
- 발제 : 복지분야 ⇒ 은재식 대표, 보건의료분야 ⇒ 이정현 집행위원장
- 토론 : 복지분야 ⇒ 김석주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
보건의료분야 ⇒ 정백근 교수(경상대 예방의학교실)
- 정보공개청구: 대구시 관련 부서 및 대구의료원에 운영자료, 예산, 통계 등 자료 분석

평가

-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에 다양한 대응을 하였으나 지역에서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음
- 대구시정에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진행함
- 연대회의를 계속 참여하고 있으나 지부 단톡방이나 운위 내 현안 공유가 부족함

2026년 계획

- 의료대란 1년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토론회 준비 중
- 지역 의료 공백과 여러 현안에 대응

2) 전문직단체협의회(이하 전단협)

- 2/6 전단협총회 : 위원장선출-손충환 (민변 대표)
- 2/11 북콘서트 ‘지방소멸과 수도권집중의 경제학’ 저자 김재훈교수
- 2/11 ‘비상시국토론회’ 주최-황현호 최봉대변호사
 - 1.비상계엄과 내란죄 성립여부와 탄핵, 형사절차의 적법성
 - 2.대구경제 회복방안(대구백화점의 불을 어떻게 밝힐것인가)
- 2/14 비핵평화 연극제작 위한 모금행사 ‘원폭투하 80년 끝나지 않는 피폭자 이야기’
피폭자 증언: 심진태(한국원폭피해자 협회 합천지부장), 한정순(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장)
시 낭송과 노래 공연
- 3/11 전단협 새집행부 회의:
 - 위원장(민변 손충환 변호사), 부위원장(건약 한송희, 백광남 약사님), 고문(전 위원장 인의협 이정만 원장님), 국장(김선주)
 - 향후 한 분 더 모셔서 전단협 집행부를 구성 예정
- 4·9 통일열사 50주기(인혁열사 기념 및 계승 사업) 행사위원회 요청건에 대한 토의 :

행사의 규모와 다른 참가단체 현황에 비추어 전단협 이름으로 참가하기보다 개별 구성 단체 이름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정함.

- 4/11 홍준표 대구시장 퇴임 기념 및 행적 규탄 기자회견
‘Bye Bye~홍준표, Good Night! 대구시민, 대구시도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 5/1 대구민변의 제20차 총회를 맞아 영화<어른 김장하>관람 및
김현지 감독님과 김주완 기자님과 대화의 자리를 가짐
- 5/7 25년 시국토론회 ‘내란이후 한국사회와 대구를 말한다’
- 5/27 변상욱대기자 초청강연회 ‘주제:내란 정치 종교’
주최: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 8/19 “21세기 제국의 정치와 종교“ 북콘서트 공동주최(대사연)
 1. 트럼프와 미국 백인 기독교 국가주의
 2. 푸틴의 러시아 세계
 3. 시진핑의 종교 중국화

평가 및 계획

전단협 주체의 활동보다 연대단체와의 활동에 맞추는 정도의 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집행위 논의나 회의가 없어 지속해온 인권투어와 가을산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26년은 순번제에 의해 대경건약에서 위원장(대표)직을 맡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건강권 연대

- 성서이주민 진료소: 월1회 건약 회원 참여(백광남 회원), 계대 약대생 연대 및 의약품 지원
- 경산이주민노동자 진료소: 파스 지원
- 동행(미등록이주민의료공제조합): 회원약국과 협약식, 공단지역 약국 협약 추진하여 1개소 약국과 협약 체결, 이주민을 위한 의약품 교육 등
- 위드의원: 안동 산불지역 진료 사업에 의약품 지원 등
- 쪽방 및 노숙자 진료소 : 파스와 뉴케어 지원
- 구미 옵티칼 고공농성장지지 방문 및 상비의약품 지원

평가 및 계획

- 이주민 건강과 관련해 적극적 사업이나 활동이 필요한지 논의해서 건약 회원들의 참여 확대를 모색해보자
- 이주민 진료소 활동을 약대생 연대 사업으로 확대해보고자 했으나 미등록 이주민과 노조에

대한 이견으로 활동이 미미함

- 2026년 통합돌봄 시행 초기 건강보험대상이 아닌 다제약물 상담 필요 환자에 대한 연대 요청으로 회원 참여가 필요한 상황

4) 합천비핵평화대회 연대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던 원폭 조선인 피폭자들이 합천에 거주함
- 평화대회 준비위원으로 참여, 분담금
- 비핵평화대회 연극 제작 기금 마련 모임 참여
- 합천 원폭피해자료과 관람(7/12)
- ‘불새’ 연극 관람(7/11, 7/12)
- 대회 준비 간담회(7/15) : 대회 전(8/1) 공연, 시낭송, 자료관 일본 방문단(8/9), 대회 당일 일정 공유, 다른 지역(서울, 수원 등) 사업 공유 등
- 비핵평화대회(8/5, 8/6): 평일이고 일본 원수폭금지대회 참여로 행사 참여 못 함
- 평가회(9/24) : 2025년 전체 행사 보고
나가사키 원수폭금지대회 참여기 발표(손가희 회원)

II. 2026년도 사업기조 및 계획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2025년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실천합시다!’ 라는 사업기조로 회원의 날, 정기적인 소모임, 지역 현안과 연대하고자 하였고 새내기 약사와 같이 하는 ‘새약들’ 과 맘 편하게 건자는 ‘가보자’ 를 새로이 시작하였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회원의 날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회원 내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회원들이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작한 단골약국캠페인에 참여가 미미하지만, 통합 돌봄 시행 예정으로 활성화를 고민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의설모와 독토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모임을 해오고 있으나, 올해는 회 내 교류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로이 시작한 새약들과 가보자는 26년이 기대됩니다.

지역 내 연대 활동은 꾸준히 해오고 있으나, 각 사안에 대한 회 내 공유나 논의의 기회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단편적인 연대로 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원들의 오프라인 모임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임 참여를 확대해보자.

회원의 날은 가능한 월1회 대면모임으로 하고 지부(건약 성명서 읽기 등)나 전건약(엘림포럼, 건약아카데미, 영화툰아보기 등)의 온라인 모임 참여를 활성화해봅시다. 온라인 모임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어 왔으며 개인으로나 건약으로나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역에서 약사로서 시민으로서 연대해보자.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나 전문직단체협의회 활동을 회원들과 공유하며 연대해 봅시다.

2026년 시작될 통합 돌봄 제도를 알아보고 다제약물사업과 같은 사업들을 함께 해봅시다. 제도 시행 초기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약물상담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주민, 쪽방, 노숙자 등 건강 취약층을 위한 진료소 활동, 의약품 교육, 의약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봅시다. 지역 현안이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투쟁 현장 지지 방문도 함께 해봅시다.

약대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보자.

보건의료인으로서 약사의 역할, 의약품 접근성이나 안전성 이슈 등을 통해 건약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울산지부

2025년 울산지부 사업 보고

<지부총회>

일시 : 2월 6일

장소 : 울산시민연대 교육관

<운영위원회>

3월부터 김경아 회원 운영위원 활동 시작 (총 7명)

운영위 2/20, 3/18, 4/17, 5/22, 6/19, 7/17, 8/26, 9/18, 10/16, 11/24, 12/17

총준위 12/30, 1/20(예정)

<건기식 소모임>

오프라인 모임 잠정 중단

건기식에 상관없이 강귀웅 회원이 정리한 학술 내용 단독방에 공유하고 있음

- ezetimibe 복합제 어떻게 보아야 할까-RACING 연구 / LDL가설의 귀환

- 스타틴 당뇨 신규발생 이슈 / 스타틴 복용과 인지기능장애

- 고령자 tibolone 복용

- 타이레놀 자폐증 이슈

- 인플루엔자 백신 미스매치

- 마그네슘 영양제와 고마그네슘혈증

- NSAIDs와 아세트아미노펜 위장관 부작용 분석

<고양이 책방>

격월로 총 6회(책 6권) 진행.

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이 됨

신입 2명 참여

날 짜	도 서 명	저 자	모 입 인 원
3월27일	파친코 1권	이민진	5명
6월11일	파친코 2권	이민진	7명
7월30일	산 루이스의 다리	손턴 와일더	8명
10월1일	나를 보내지 마	가즈오 이시구로	6명
11월25일	혼모노	성해나	4명
1월 예정	먼저 온 미래	정재승	

<이슈 토크>

상반기

[내 삶을 만드는 헌법]

- 정한신 박사 / 부산대학교 헌법 강의 / 학습공동체 ‘일상학교’ 운영
- 일시 : 4월 9일(수) 20시 / 장소 : 울산시민연대 / 회원 15명 참가

하반기

[AI와 함께 살아갈 우리의 미래]

- 정우진 / 네오틱스에이아이 대표이사
- 일시 : 12월 5일(금) 20시 / 장소 : 울산시민연대 / 오프라인 명, 온라인 명 참석

<회원 탐방>

- 질문 포맷 제작(개별/공통)

월	대상 회원	인터뷰어
4월	유정원	김현정
7월	임명섭	황재영
10월	김수진	석동현

<회원 기행>

상반기

[이번엔 ‘거창’ 하게, 떠나자 건약]

일정 : 거창 우두산 - 창포원 - 덕천서원

일시 : 6월 1일(일) / 회원 가족 26명 참석

하반기

[자연,역사,문화의 섬 가덕도! 아는만큼 보입니다]

일정 : 아미산 전망대 - 가덕도 적산가옥 마을 - 외양포 일본군 포진지 - 새바지 동굴

일시 : 10월 12일(일) / 13명 참석

<회원 만남의 날>

상반기 회원만남의 날(7/23 비단미미, 12명 참석)

하반기 송년회(12/23 센시, 20명 참석)

<중앙건약 연계>

- 3/18 지부맞춤 정책토론회

[재생산정치와 미프진] (오프라인 8명/온라인 다수 참가)

- 12/3 지부주최 엘림포럼

[AI와 함께 살아갈 우리의 미래] 정우진 / 네오틱스에이아이 대표이사

<회원 활동>

매주 이주민 진료소 봉사(일요일 2시~4시)

2월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반대 긴급 팩스행동(17곳 산자위 의원실)

- 매주 토요일 [윤석열 파면 국힘 해체 울산시민대회] 참가

- 울산 유기동물 기본권 서명운동 참여

- 내란청산 3.1대회 건약 현수막 게시

3월 - [3.1 윤석열 즉각 파면 울산시민대행진] 참가

- [후쿠시마 14주기 및 3.8 여성의 날 기념 탄핵 집회] 참가

- 윤석열 석방 이후 매일 집회 및 천막농성 참가
- ‘인권참사’ 울산태연재활원 폐지 및 탈시설권리보장 1만 서명운동 참여
- 헌법재판소 게시판 댓글 활동 / 검찰 항고 탄원서 제출 / 최상목 고발 동참
- 3/15 광화문 상경 집회 참가(12명)
- 탈석탄재생에너지확대 입법촉구 서명 참여
- 온산공단 삼평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탄원 동참(주민들 승리함)
- 보건의료인 시국선언 참여

4월 - 매주 토요일 [윤석열 파면 국힘 해체 울산시민대회] 참가

-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 72시간 100만 긴급탄원 참여
- 윤석열 파면 단체별 한줄 성명 참여
“건강한 사회와 새로운 세상은 부조리함의 척결로부터!”
- 한덕수 해임 서명 / 윤석열 재구속 긴급 10만 서명 / 지귀연 재판부 교체 청원
- 내란동조 내란선동 김기현, 박성민 국회의원 제명 국민동의청원 참여
-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공익소송 후원 카카오같이가치 참여
- 세월호참사 11주기 공동체 영화 상영 [제로썸] 관람
- 약물 부작용 주의보 1호 [기침, 가래 시럽] 공유

5월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헌 헌법소원 청구인 참여

- 전국 신공항사업 철회 촉구 서명운동 참여
- 윤석열 재구속, 내란 재판 전면 공개 촉구 서명 참여

6월 - 고공농성 문제해결 촉구 보건의료계 선언 참여

- 약물주의보 제3호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 복합제] 공유
-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입법청원운동 참여

7월 -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촉구 탄원 서명운동 참여

- [인종학살 중단! 가자지구에 폭탄이 아니라 식량을!] 보건의료인 긴급연서명 참여

8월 - ‘달달한 동물세상’ 후원 일일호프 참여

- 신규원전 반대 서명 참여
- 영화 [추적] 공동체 상영 관람

9월 - 기후정의행진 우리동네 거점 공간 참여

-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 촉구 서명 참여

10월 - 중대재해 ‘울산시민이 뽑은 안전의제’ 설문 참여

- 중대재해 기억사업 울산추모문화제 참여
- [한국정부는 이스라엘의 민간 선박 불법 나포 중단을 즉각 요구하라!] 서명 참여

[11월]- 제20회 울산인권마라톤대회 참가

- 한국석유공사.다나 페트롤리엄 규탄 국제행동 1만 서명 참여
- 신불산케이블카 반대 캠페인 산행

[12월]- 건약사무실 이전

- 내란1년, 다시 빛의 광장으로! 행진 참여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헌법소원 집단원고 참여
- 울산환경운동연합 2025 환경뉴스선정 설문
-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국민원고단 모집

2026년**[1월] - MBK. 홈플러스 경영진 구속 촉구 탄원 참여**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즉각 중형을 선고하라! 서명 참여

<연대 단체>**# 비상시 연대**

- 태연재활원상습학대사건 울산공동투쟁단 참여(4~5월)
- 범시민사회 탈핵선언대회 연명(4.24)
- MBK떡튀 저지! 홈플러스 사태 해결 울산공동대책위원회 참여
- 광장대선 울산연대회의 참가
- [21대 대선, 우리는 탈핵에 투표합니다] 신문 광고 참여
- 기자회견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1,500원이 되어야 한다!] 연명
- [이주노동자 이름 불러주기 릴레이 캠페인] 취약노동자 폭염대비 비상약품 지원
-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참여
- [울산대학교의 돈벌이 위한 호스피스 병동 폐쇄 반대한다!] 기자회견 참여
- 복날채식 캠페인 서명 참여
- 제20회 울산인권마라톤 대회 구급약 지원
- [현대중공업 상습적 폭행 규탄] 기자회견 참여
-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 울산운동본부 결성 참여
- 트럼프 방한 반대 현수막거리 조성 참여
-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참여

-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책임자 처벌 및 강제단속 중단 촉구] 기자회견 연명
-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한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동실천] 기자회견
- 내란1년 울산시민대회 현수막 거리조성 참여
-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역행을 멈추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한다] 기자회견
- [12/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울산이주민 진료소]

- 매주 일요일 2시~4시 내과진료팀 운영 (현재 의사8명 약사9명 참여)

[울산건강연대]

- 매월 1회 확대집행위원회 및 현안별 정책위원회
- 주요활동
 - 울산의료원 설립
 - 설립촉구 및 대선공약제안 기자회견
 - 시의회 토론회 참여
 - 울산대 의과대학(원) 지역환원
 - 울산대 의과대학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울산대학교 편법,불법적 운영에 대한 총장 면담요청 및 내용증명 발송
 - 대통령실 사회수석, 국회의원 면담
 - 지방사립의대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논의 국회토론회
 - 울산지역 보건의료정책 대선후보 공개질의서 발송
 - 울산산재병원 진행 상황 확인
 - 근로복지공단 본부 노조 간담회 진행
 - 울산대학교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 병동 폐쇄 저지 활동
 -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지역운동위원회 참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탈핵 금요 캠페인
- 월 1회 탈핵 공부모임
- 나아리연대 매주 월요일 아침
- 반핵아시아포럼 대만 행사 참여
- # 3.11 ~ 4.26 탈핵주간 행사
-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응

- # 월성 2.3.4호기 폐쇄 운동 - 릴레이 현수막 게첩
- #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 반대 운동 - 헌법소원
- # 고리2호기 노후원전 수명연장 반대 운동
 - 원안위 앞 종일집회, 국회 기자회견
 - 수명연장 무효소송
- # 신규원전 저지 운동
 - 서명운동, 울주군.의회.청와대.산업부 전달
 - 탈핵희망전국순례 / 울산탈핵버스 예정(20일)
- # 강연회
 - 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 특별법 법리 강연(김석연, 김영희 변호사)
 - 우리 모두의 탈핵 이야기(온오프 병행)
 - AI 데이터센터 (정우진)
- # 기자회견 - 생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 울산 추모문화제 참여

[미안마 민주주의연대]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원회]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확정됨
- 매주 일요일 반대 캠페인 산행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 매주 금요일 시청 캠페인
- 기후정의행진
-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방문
- 지방선거 기후정치특강(김현우)

[울산416기억행동]

- 매달 둘째주 운영위 참여
- 피켓팅, 노란리본 나눔 참여
- 세월호참사11주기 공동체 영화 상영 ‘제로썸’
- 세월호참사11주기 기자회견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 ‘우리들의 기억, 세월을 만나다’ 416 유가족 만남
-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 및 진상규명 축구 기자회견- 매 두 번째 금요일 운영위

[윤석열 즉각퇴진 울산운동본부 - 내란청산 울산운동본부]

1. 윤석열 파면 될 때까지 투쟁: 윤석열 즉각 퇴진 울산운동본부 주최

○ 집회, 선전전, 천막농성, 서명운동

-윤석열이 석방된 후 3/10~파면되는 날까지(4/4) 매일 집회

-3/10부터 4/4까지 철야 천막농성 진행

-윤석열 즉각 파면 거리선전전(123명 1인 선전전);4/1~4/4, 8:0 파면 축구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축구 전국 시민 서명

-4월1일-4월2일 헌재압박 철야농성 상경 투쟁

○ 기자회견/ 한줄 성명/ 보도자료

신속한 윤석열 파면 축구 기자회견 여러 차례 진행

2. 윤석열 파면 승리보고 울산시민대회 : 4/4 저녁 6시30분 롯데백화점 광장

3. 윤석열 파면 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로 전환

○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시민대회 개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집중 선전전 진행

○ 내란동조 내란선동 김기현, 박성민 국회의원 제명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운동
: 2025. 4. 24.(목) ~ 5. 24.(토)

○ 각종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내란공범 한덕수 권한대행 울산방문 규탄 기자회견(4/16)

-후안무치한 한덕수 내란정권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규탄(5/2)

-울산지역 내란세력(김기현, 박성민, 홍유준)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및 경찰청장 항의방문(8/13)

-김기현 사퇴촉구 및 엄정 수사촉구 기자회견(11/18)

-윤석열 내란 1년, 내란청산 투쟁 주간 선포 기자회견(12/1)

○ 내란동조,비리정치 김기현 퇴출 시위 (11/19~28)김기현 사무실 앞

○ 12.3 내란 1년 집중선전전 2025. 12. 1.(월) ~ 12. 5.(금) 매일 17:00

-내란청산 현수막 거리 조성: 12월 1일 오후 5시 롯데백화점 광장~롯데호텔 일제히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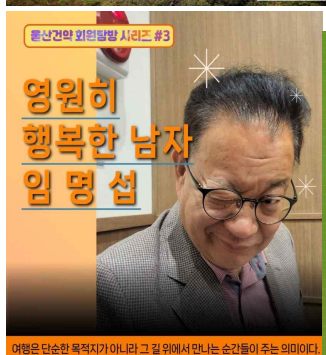
○ 12.3 내란 1년, 내란옹호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및 국민의힘 해체 퍼포먼스
2025. 12. 3.(수) 11:00,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



2025 울산지역 하반기 2기

자연, 역사, 문화의 섬 가득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10월 12일 일요일
9시30분 동천체육관
9시45분 무거환승센터



보고자료

2025년 사업 평가

18기 중앙사업 총괄평가

*** 사업 기조 및 슬로건: “다양하게 질문하고 실천” 을 통하여 새로움을 만들어 가자.**

건약 18기는 “다양하게 질문하고 실천” 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이를 통해 조직과 운동의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질문과 실천에 방점을 둔 기조는 다음 두 시기를 관통했습니다.

- 18-1기: 자본과 시장의 공세, 그리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시민사회 운동 진영의 위축 속에서 새로운 운동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 18-2기: 탄핵정국과 그 이후, 광장의 사회 대개혁 의제들을 실천 운동으로 이어받는 시기였습니다. 탄핵 이후의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 운동의 구체적인 전망을 만들기 위한 질문과 연대 실천이 요구되었습니다.

시민사회를 약화하려는 외부 압력에 맞서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일은 투쟁 주체를 만들고, 투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며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건약 18기에서는 기존에 진행하였던 엘리트포럼과 건약아카데미 외 “건약, 정치를 사유하다 ‘와’ ” 영화 토크아보기 “를 조직하여 정치 일반과 정체성 정치, 정치적 올바름, 인종차별, 불평등, 전쟁, 젠더, 질병 등 다양한 주제로 회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문제에 관한 세미나와 토론은 연대 실천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었

습니다. 다만 참여자들의 주제에 대한 사전 숙지와 준비가 미흡하여 토론의 상호작용 보다는 발제자가 고군분투해야 했던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입회원과 지부 미조직 지역의 회원들이 활동할 공간의 부족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관심 주제별 모임 등 다양한 소모임 운영이 필요합니다.

2인 상근자 체제를 마련해서 조직사업을 강화하고 활동의 폭을 넓힐 것을 기대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건약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을 위해 향후 상근자 확충이 필요합니다.

1) 정책사업;

의약품 공공성·접근성 강화를 위한 활동과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감시 활동이라는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약가제도 및 공공 생산, WHO 팬데믹 협정, 재생산권, 품질약 대응, 혁신형제약기업 제도의 문제에 대하여 비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기고와 연합뉴스, YTN, EBS 뉴스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정책을 알렸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의약품 수급 안정화, 신약 고가화와 빨라진 고령화에 맞춘 약가 정책, 의약품 환경정책, 여성의 재생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의제를 제안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과 품질의약품 대응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과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문제를 2016년 최초로 제기한 후 감사원 감사청구, 심평원 재평가, 제약사의 급여 축소 취소 소송 등의 여러 난제를 극복하며 2025년 9월 급여 축소를 끝내냈습니다.

2) 연대사업;

구미 옵티칼, 동두천 성병 관리소 등 다양한 현안에 맞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연대의장을 마련해왔습니다. 상시적인 연대사업 외 타 약계 단체(늘품약사회, 농민약국·새물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와 탄핵약사네트워크를 만들었고, 비대면 영리플랫폼 도매상 운영금지를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3) 회원 사업;

신입회원들이 건약 활동에 녹아들 수 있도록 부서 활동 참여, 기후 책 읽기 모임, 영화 토크아보기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각 지부 대표 회원과 함께 전국건약 행사를 준비하고, 지부 추천 내용으로 엘림포럼을 진행하는 등 지부와 중앙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4) 학생 사업:

18기의 학생 사업의 주요 특징은 일 년이라는 긴 호흡을 가지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책부와 함께 한 의약품접근권연구 모임과 새약사새약국사업부와 함께한 그린처방전 2기 활동이 그것입니다. 학생 회원들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연구 및 실천 활동을 주도하여, 참여 의식과 주체성을 높였습니다.

- 의약품접근권연구팀 모임은 일 년간의 연구 활동을 모아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의약품 정책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 그린처방전 2기 팀은 기후정의행진 참가, 미래세대(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에게 환경교육 시행, 폐의약품을 수거 분석, 제도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 두 명의 상근 활동가가 이러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19기에 상근자 인력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어서 학생 사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2025년 의약품정책부 사업평가

정책부는 국내외 약계와 보건학적 정세 동향을 추적하고, 문제를 파악하여 이슈화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부원들은 뉴스클리핑과 주제 발제로 내용을 공부하고, 이슈화할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또한 스터디한 내용들을 토대로 지부, 약학대학 학생들과 내용을 공유합니다.

1. 정책부 2025년 사업 추진 내용

1.1 정책부 회의

□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19번의 회의 진행

- 2025년 2월 5일(수), 오후 9시
- 2025년 2월 17일(수), 오후 9시
- 2025년 3월 6일(목), 오후 9시
- 2025년 3월 20일(화)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7일(월), 오후 9시
- 2025년 4월 26일(토), 오후 5시 오프라인 워크숍
- 2025년 5월 22일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16일(월), 오후 9시
- 2025년 6월 26일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9일(수), 오후 9시
- 2025년 7월 17일 (뉴스클리핑)
- 2025년 8월 11일(월), 오후 9시
- 2025년 8월 21일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4일(목), 오후 9시
- 2025년 9월 15일(월), 오후 9시
- 2025년 9월 29일(월), 오후 9시
- 2025년 10월 20일(월), 오후 9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후 9시
- 2025년 11월 24일(월), 오후 9시

1.2 정책 제안

- ☐ 대선과 국정감사를 대비한 정책 제안
 - 대선공약제안(총선공약 리뷰)
 - 국정감사대응

1.3 학생, 지부 사업

- ☐ 학생, 지부와 함께하는 사업 수행
 - 약사다(약 사용서 다시읽기) : 학생 대상
 - 의약품 접근권 연구모임 : 학생대상
 - 지부별간담회 : 지부회원 대상

1.4 기고글, 논평, 성명 작성

- ☐ 오마이뉴스 그 약이 알고싶다 기고글

- 251121 [그 약이 알고 싶다_26회] '국민 구내염 약'의 위험 감수했던 이유는 속도
- 251024 [그 약이 알고 싶다_25회] 우리나라 약값이 투명해서 문제? 제약사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 250912 [그 약이 알고 싶다_23회] '위고비' 가격 인하의 진실... 견제받지 않는 약값의 비밀
- 250822 [그 약이 알고 싶다_22회] 넘쳐나는 '위고비' 게시물, 식욕억제제의 진짜 효과
- 250802 [그 약이 알고 싶다_21회] 죽음 부른 '기적의 약'... 논란 계속되는 이유
- 250711 [그 약이 알고 싶다_20회] '화제의 약'이라는 치매 치료제, 크게 확산되지 못한 이유
- 250613 [그 약이 알고 싶다_19회] 4년 만에 환자 3배 증가? ADHD 치료제 대란의 진짜 이유
메틸페니데이트 품질사태에서 드러난 불편한 진실
- 250523 [그 약이 알고 싶다_18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혜국 약가정책과 가격 투명성 _
트럼프의 약가 인하 폭탄선언...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다
- 250502 [그 약이 알고 싶다_17회] 다국적 제약사의 충격적인 내부 스캔들 “존슨앤드존슨의
어두운 비밀“... 제약 비리에 더욱 민감한 이유
- 250412 [그 약이 알고 싶다_16회] 제약산업과 대형 로펌의 연결이 위험한 이유
- 250321 [그 약이 알고 싶다_15회] 백신 광고에 등장한 아이돌 그룹, 이유 있었다
- 250228 [그 약이 알고 싶다_14회] 피임약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한국 사회
- 250206 [그 약이 알고 싶다_13회] 역대급 독감, 15만원 주사 한방으로 해결...의사만 잘 아는

속사정

□ 성명, 논평, 보도자료 작성

- 251123 [성명] ‘약가 뺄튀기’ 정책을 이제라도 돌려놔야 한다
- 251102 [성명] 혁신의 탈을 쓴 특혜... 리베이트 족쇄를 푸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 251016 [성명] 정은경 장관의 이중약가제 확대시사, 제약기업 특혜 정책 중단하라
- 251015 [공동리포트 국민제안위원회]의약품도 전기처럼 공공에서 생산할 수 있다(- 공공제약사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250915 [공동성명] 이재명 정부는 제약기업 봐주기 행보 즉각 중단하라
- 250908 [논평] K바이오토론회는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외면한, 기업민원 청취회에 불과했다
- 250723 [논평] 정은경 신임 복지부장관 취임에 부쳐
- 250704 [논평] 트럼프와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인상 압력,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 의약품 가격 인상을 통해 다함께 건강을 퇴보하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 부쳐
- 250630 [성명] 오유경 식약처장 유임, 국민 건강 외면한 제약산업 지원처 선언이다
- 250625 [성명]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
- 250605 [성명] 정책 설계자에서 정책 파괴자로... 퇴직 공직자의 책임윤리 바로 세워야
- 250604 [논평] 새로운 나라에는 새로운 의약품 정책 패러다임이 마련되어야
- 250602 [논평] 이번 WHO 팬데믹 협정 채택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의 최소한 조치다
- 250425 [논평] 바이오기업 관리종목 지정 유예, 환상을 팔아 투자자 피해만 양산한다
- 250423 [논평] 빌베리 급여 삭제, 4년의 법적 공방 끝에 드디어 마침표
- 250314 [논평]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취소소송의 제약사 최종패소는 당연한 결과다.
- 250313 [성명] 건보재정과 환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용납할 수 없다.

□ 보도자료 작성

- + 250527 [보도자료] 건약, 민주당과 품절약 대응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 + 250516 [보도자료] 여성의 재생산권 보호를 위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 시급
- + 250515 [보도자료] 뒤쳐진 제약산업 환경정책, 국제 규제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 + 250514 [보도자료] 약값은 내리고 접근성은 높이는 건약의 의약품 정책제안
- + 250513 [보도자료]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약가인상 넘어선 공공성 강화정책 필요하다
- + 250522 [모임넷][기자회견] “임신중지 권리 보장, 3년 전엔 약속이었고 지금은 침묵이다”
- + 250323 [공동]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약사 시국선언]

□ 스터디 진행

- .등재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가격 실태 및 개선방안
- 일본 약가제도 조사(특히 사후 약가관리 제도)
- 트럼프 의약품 정책 모니터링 및 대응
- 등재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가격 실태 및 개선방안

2. 정책부 활동 평가

2.1 2025년 정책부 사업 목표

1) 의약품 공공성,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활동

○ 유산유도제(미프진)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활동

○ 의약품 공적 생산 유통관리 체계화를 위한 활동

- 품절약 대응
- 수급불안정 의약품 공적 생산에 대한 필요성 요구

○ 신약의 고가화에 따른 의약품 접근성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활동

- 신약의 공적 생산에 대한 필요성 요구
- 급여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2)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감시를 위한 활동

○ 효과없는 의약품 발굴, 이슈화 및 퇴출 유도 사업

-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재평가 약제의 본안소송 추적관찰
- 급여 적정성 재평가 사업 관련 활동
- 급여기준강화 요구 : 히알루, 이모튼 등

○ 의약품 안전관리 문제제기 및 규제완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

- (제도 비판)조건부허가 품목 증가, 사용 후 단계 RMP 운영의 이상, 임상시험 완화 기조
- 의약품 생산 관련 안전문제 추적

○ 바이오의약품 안전성 문제 제기 사업

- (제도 비판)첨단바이오재생법
- 바이오의약품의 임상3상 추적

3) 회원과 예비 회원 중심 의약품 관련 이슈를 홍보하는 활동

4) 연대활동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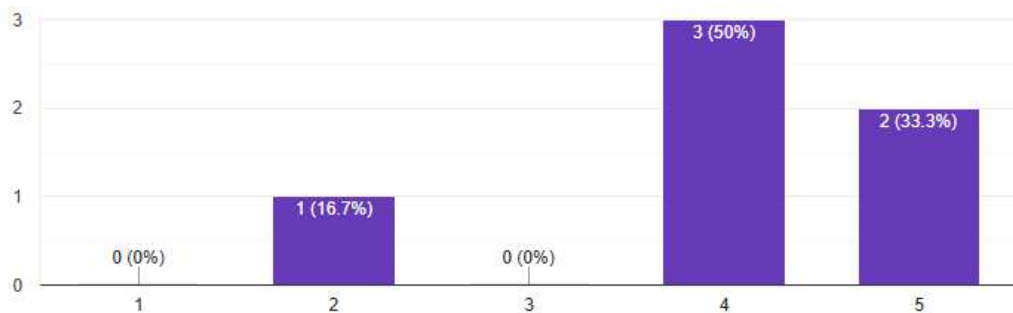
- 의료영리화, 공공의료 강화, 기후위기 등
- 보고서, 해외사례 스터디, 리뷰

2.2 의약품 공공성,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활동 평가

□ 유산유도제(미프진)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활동

○ 미프진 운동은 연대활동의 느낌이 크며, 올해는 모임넷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함. 앞으로 미프진을 급여권으로 들여오려고하는 움직임과 미프진 허가를 막으려는 움직임 속에서 2026년 운동방향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됨.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모임넷이 뜨뜨미적지근한 느낌입니다.
- 늘 마음한켠 건약 비영리 제약회사를 세워 미프진을 들여왔음 좋겠다 생각합니다.
- 건약 전체 회원 대상 정책 관련 설명, 논의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의서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여론조성 방안이 좀더 필요할것 같습니다
- 미프진은 앞으로 오프모임을 통한 교육이 중요할 듯 함.
- 연대사업이라고 생각하며. 다만 내부적으로 조금 더 내용이 공유될 필요가 있음.

○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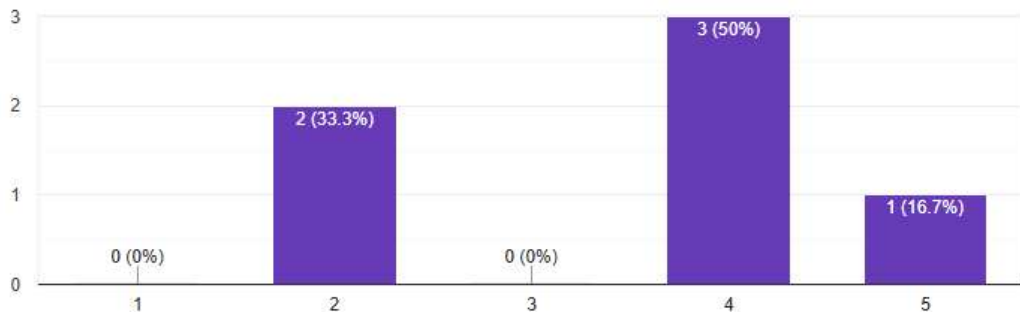
- 학생사업 내용으로 제안
- 총회식전행사 내용으로 제안

□ 의약품 공적 생산 유통관리 체계화를 위한 활동

○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2024년만큼 약계, 정치권

○ 정량평가

응답 6개



○ 정성평가

- 작년에 비해 현장에서 느끼는 수급불안정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앞으로도 수급불안정을 계기로 공공 생산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싶어요.
- 공공생산 같은 정책대안에 대한 논의가 좀더 필요할것 같습니다
- 공론화가 부족했음. 국회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 필요함.
- 공론화 : 정치권의 반응을 끌어낼 필요가 있음.(정치권의 관심이 중요함!)

○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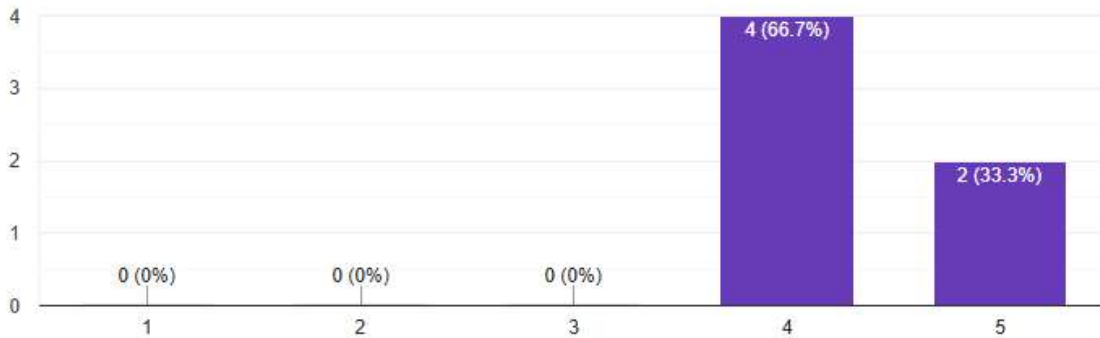
- 토론회 : 우리의 대안을 제시할 단계에 하면 좋을 것 같으며, 법안발의 시가 적시라고 제안됨.
- 국회의원 몇명을 미리 설득하는 전단계가 필요함.
- 지방선거 마치고 국회의원 미팅(하반기)을 하는 것을 제안함

□ 신약의 고가화에 따른 의약품 접근성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활동

○ 지속적으로 신약의 고가화와 특허는 문제로 부상해왔다. 특히 하반기에 약가제도 개편을 앞

두고, 이중약가제도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올해 건약은 이 사안을 이슈로 다루며, 환자단체, 보건연 등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문제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내년의 빅 이슈. 앞으로 가져갈 우리의 중대 아젠다.
- 신약가 결정에서 국제연대(유럽, 동남아시아 등)나 외국사례에 대한 논의 좀더해봅시다
- 이건 시기가 중요한듯... 적절한 시점이 되면 열심히 활동해야 함.

○ 활동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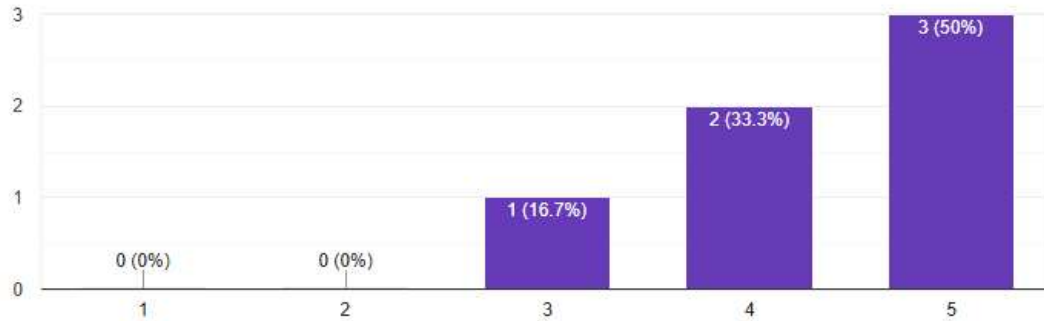
- 내년 중 토론회 등 네트워크(환자단체, 보건연 등) 운영
- 신약가 결정에서 국제연대(유럽, 동남아시아 등)나 외국사례에 대한 논의 좀더해봅시다
- 보고서 스터디(상반기 돌아가면서 발제)

2.3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감시를 위한 활동

□ 효과없는 의약품 발굴, 이슈화 및 퇴출 유도 사업

○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같이 효과가 없음에도 의약품으로 급여권 내에서 처방받는 약들이 존재하고 이는 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의약품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성분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퇴출을 유도하는 사업을 한다. 올해아네스 빌베리 급여가 삭제되었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들이 있었으며 이를 추적했다. 또한 약제재평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그렇다할 이슈가 많지 않았던듯요(놓쳤을지도)
- 그래서 내년 재평가는 어찌되는걸까요
- 특히 많이 기억에 남는걸 보니 충분한것같습니다
- 약제 재평가가 유명부실하지 않도록 지속적 감시활동합시다
- 발굴을 못해서 아쉬움.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 다행...

○ 향후 계획

- 계속 약제 별 팔로업이 필요(실리마린, 빌베리, 콜린알포(제약회사의 반격 주의))
- 특히 콜린알포의 경우 2026년 경도인지장애 임상재평가가 있음
- 제도 작동 확인

□ 의약품 안전관리 문제제기 및 규제완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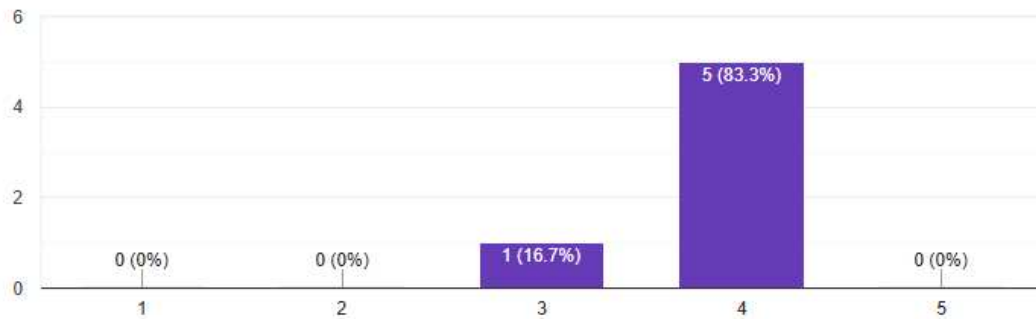
○ 2025년 정권이 바뀌어도 규제완화 흐름 자체는 완화되지 않았다. 특히 혁신형제약기업의 선정과정, 선정으로 인한 약가 우대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해서 올해에도 리베이트,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도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현재 정부는 개발 중심의 정책에 힘을 싣고있는 점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할 필요가 있다.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혁신형제약회사는 앞으로도 잘 추적하면 좋겠습니다.
- 혁신전제약기업 특혜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좋았습니다
- 이건 이슈가 있어야 함.

응답 6개



○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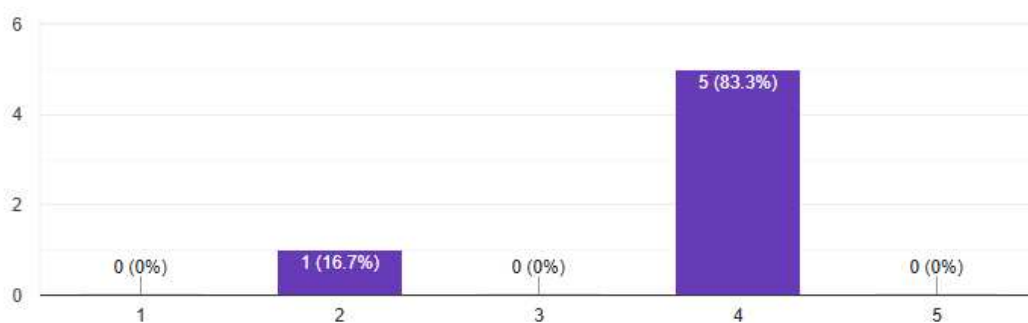
- 스터디가 제안됨 : 의약품 안전관리(사후관리, 조건부허가)
-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추적관찰

□ 바이오의약품 안전성 문제 제기 사업

○ 바이오 의약품의 안전성은 계속 관찰될 필요가 있지만, 바이오 분야를 국가 주력 산업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규제당국의 욕망은 규제완화를 불러오게 된다. 관련하여 문제를 관찰하고 필요시 의견을 냈다.

○ 정량평가

응답 6개



○ 정성평가

- 계속 아젠다 팔로업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 바이오의약품 안전성 주제는 follow up 하기 어려운 것 같다.
- 할게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 많이 못했음.

○ 향후 활동

- 침단바이오재생법 : 1회정도 침단바이오재생법 관련 안전문제 역사 훑아보기(미국, 한국)가 제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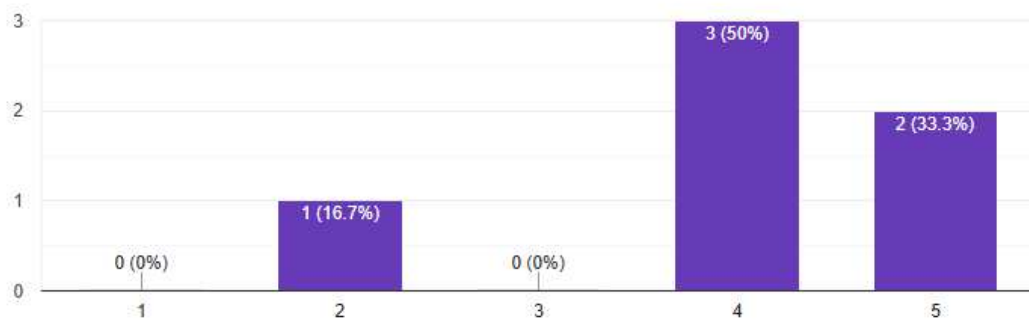
2.4 연대활동 및 기타

☐ 활동 전반

- 의료영리화, 공공의료강화,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논의들과 보고서, 해외사례 등을 스터디하고 리뷰하는 활동을 했다.

☐ 정량평가

응답 6개



☐ 정성평가

- 건약을 넘어서는 여론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더 열심히 합시다.

☐ 국내 현안 대응 및 추적 전반

☐ 정량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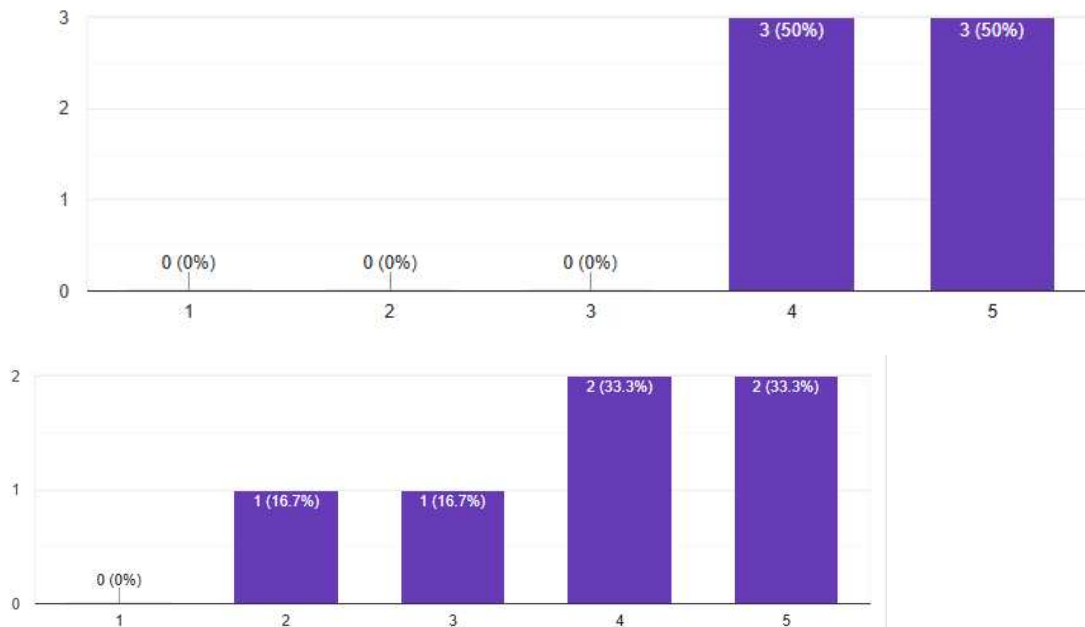
☐ 국외 현안 대응 및 추적 전반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오직 동근샘의 리딩만이.. 공유만이.. 추적의 전부.. 영어 싫어요

응답 6개



- 국제 현안도 트럼프로 인해 변화가 커서? follow up 하기 좀 어려웠다.
- 충분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인것 같습니다
- 그래도 열심히 했음.

3. 수행 사업 평가

☐ 정책부는 지부맞춤정책토론회, 약사다, 약접연 활동을 지원했다. 이는 2025년 사업 목표 <회원과 예비 회원 중심 의약품 관련 이슈를 홍보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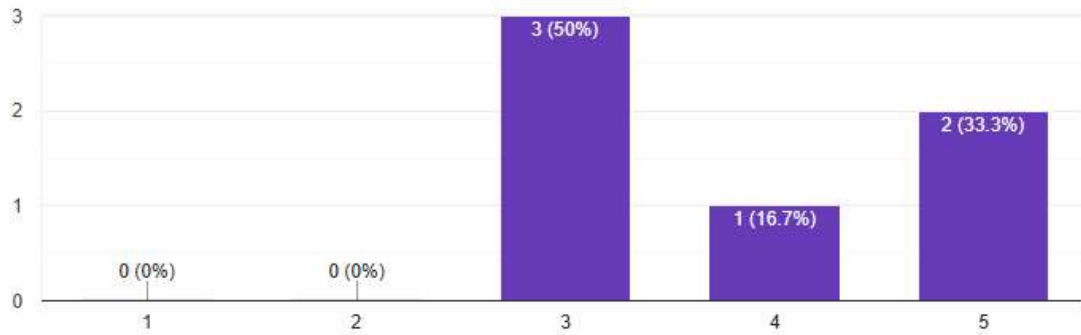
3.1 회원 대상 이슈 홍보

☐ 지부 맞춤 정책 토론회

- 미프진을 주제로 사무국장이 지부에서 토론회를 수행했다.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잇을만 할 때 새로운것을 완전 처음부터 만드는 품까지는 안들이고 잘 했다고 봅니다.
- 주제도 의미 있었지만 건약의 활동을 알수 있는 주제여서 좋았습니다



-지부 토론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네요. 정책부 활동이 지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게 좋을지 궁금해요.

○ 향후 활동

-지금까지 활동의 의의 : 지부와 중앙의 정보격차를 줄임. 새로운 의견을 수렴

- 한편 지부에서 성명서 읽기 활동을 해볼까함 → 회원들과 정책부 사이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활동

-논쟁이 가능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면 좋겠음(ex 미프진), 건약활동의 결에 대해 공유

-컨텐츠 : 초고가약(논쟁 지점 및 접근방식), 공적생산(전략 논의, 구체화를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연약가제

-최소 1회 시행

3.2 학생 대상 이슈홍보

□ 약사다, 의약품 접근권 모임

○ 학생 대상 이슈 홍보 활동을 다음과 같이 수행했다.

- 약사다 2월 22일 저녁 6시 30분~8시 30분

- 의약품접근권모임

○ 정량평가

○ 정성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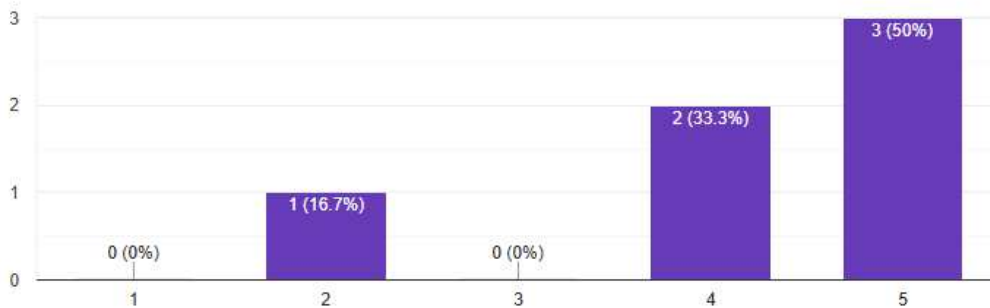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추가의견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근자의 역할을 줄일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봐요

응답 6개



-약접연 모임에 참석율이 너무 낮았음.

4. 결론

2025년 정책부는 국내외 약제 및 보건의료 정책 동향을 추적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제안, 성명/논평 발표, 회원/학생 대상 교육 및 연대 활동을 폭넓게 수행하였다. 회의를 통해 이슈를 발굴하고, 스터디와 내부 토론을 기반으로 방향성을 정리하여 현안에 대응해 왔다는 점에서, 정책부가 건약의 싱크탱크로 기능하려고 노력했다.

올해 정책부 활동은 크게 △의약품 공공성·접근성 강화를 위한 활동(미프진, 공공생산·수급 불안정 대응, 고가 신약 문제 제기),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감시 활동(효과 없는 의약품 퇴출 요구, 약제 재평가 감시, 규제완화 저지, 바이오의약품 안전성 추적), △회원·예비회원 대상 이슈 홍보(지부 맞춤 정책토론회, 학생 대상 모임), △연대 및 기타 활동(의료영리화·공공의료·기후위기 등 범보건의료 의제에 대한 스터디 및 연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그 약이 알고 싶다’ 기고, 다수의 성명·논평·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약가, 리베이트, 공공생산, WHO 팬데믹 협정, 재생산권, 품질약 대응, 혁신형제약기업 특혜 등 주요 의제를 꾸준히 사회적으로 이슈화한 점은 정책부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미프진, 의약품 공적 생산 유통관리, 고가 신약과 이중약가제도, 의약품 재평가와 비급여 고가 의약품 문제 등은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건약이 중심으로 다뤄야 할 구조적 의제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정책부는 이러한 의제들을 단순 비판을 넘어, 공공생산, 약가 결정 방식 개선, 급여기준 강화, 국제연대 등 대안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까지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올해 평가를 통해 한계와 과제도 분명히 드러났다. 첫째, 미프진 운동, 공공생산, 고가 신약 대응 등 굵직한 의제에 비해 눈에 두드러지는 활동은 보이지 않았고, 건약 전체 회원 및

지부·학생과의 ‘내용 공유’와 ‘정책 논의의 폭’의 확장에 대한 요구가 남았다. 둘째, 의약품 수급불안정, 고가 신약, 바이오의약품 안전성, 국제 의약품 정책 변화 등 복잡한 의제에 대해 지속적인 팔로업이 필요하지만, 인력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는 자기평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정책부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사회적 메시지를 생성했으며, 지부와의 접점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을 병행하였다. 특히 의약품 공공성과 접근성, 안전성과 유효성 감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건약이 앞으로 도 축적·확대해야 할 정책적 아젠다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올해 활동은 중요한 디딤돌이었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2026년에는 핵심 아젠다에 대한 집중도와 내부·외부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부의 역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새약국새약사사업부 사업평가

팀원: 전경림,문순지,정소원,성열원,이주형,송해진,정동만,서완석,천문호,황해평

I. 2025년 사업계획

1. 제약산업과 환경: 지속 가능한 의약품 생산을 위한 모니터링

목적:

- 제약산업의 환경영향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도출
- ESG 경영 현황 분석을 통한 환경 책임 강화 방안 모색

2. 지역 약국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필수 약료 정리

목적:

- 지역 약국의 공공성 강화
- 필수 약료 서비스 표준화 및 품질 향상

3. 열린동아리 “내 약국에서 하는 약물 감시 활동”

목적:

- 지역 약국 기반 약물 감시 체계 구축
- 부작용 보고 및 분석 시스템 검토

4. 약학대학생 기후위기 환경동아리 “그린처방전” 지원

목적:

- 예비 약사들의 환경 인식 제고

- 약국-학교 연계 환경 활동 활성화

5. 보건의료 현안 대응

목적:

- 보건의료 정책 분석 및 대응
- 약사 직능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II. 사업경과 및 평가

1. 제약산업과 환경사업 경과

제약산업과 환경: 지속 가능한 의약품 생산을 위한 모니터링

1. 사업 배경

1.1 배경 및 취지

제약산업은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탄소 배출, 에너지 소비, 수자원 사용, 폐기물 발생 등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산업에도 지속가능한 운영이 요구되고 있으며, 각국 규제 당국은 관련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새약사팀은 과거부터 제약산업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탄소배출, 폐의약품, 의약품 포장, 약물의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이슈를 논의해왔다. 최근 ESG 도입 초기에 비해 관련 자료가 질적·양적으로 풍성해지고 있으며, ESG 공시가 국내외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제약기업의 환경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환경 책임을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가 오랫동안 제기해온 환경 이슈들이 현재 제약기업의 ESG 평가 항목에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ESG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제약사의 환경 책임 이행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 도구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졌음을 뜻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사업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외 제약사의 ESG 보고서 제출 현황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환경 책임 이행 실태를 분석한다. 둘째,

현행 ESG 평가 기준을 검토하여 제약산업의 특수성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약산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제안한다. 셋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ESG 도입 및 공시 진행의 차이를 검토하고, 한국 기업의 ESG 도입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한편, ESG 보고서는 본래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에는 기업 감시 활동에 필요한 여러 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 시민사회의 감시 도구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즉, ESG 보고서는 투자 판단을 위한 자료인 동시에, 시민사회가 기업의 환경 책임을 묻고 개선을 요구하는 근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사업은 제약산업의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ESG 보고서를 제약기업의 환경 책임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환경 감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1.2 제약산업의 주요 환경 영향 요소

제약산업은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제조 과정에서는 에너지 집약적 공정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다. 원료의약품 합성과 완제의약품 생산에는 고온·고압 반응과 정제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에너지가 소비된다.

수자원 사용 측면에서도 제약산업은 대량의 물을 사용한다. 의약품 제조 공정에서 물은 반응 용매, 세척, 냉각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하천이나 토양으로 배출될 경우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항생제나 호르몬제 등이 포함된 폐수는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한 처리가 필수적이다.

폐기물 발생 역시 주요한 환경 문제이다. 제조 과정에서는 화학 부산물이 발생하며, 완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과 종이 등의 포장재,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미사용된 의약품이 폐기물로 배출된다. 이러한 폐기물은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에 장기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류 및 유통 과정에서도 환경 영향이 발생한다. 의약품은 전 세계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발생하며, 특히 백신이나 바이오의약품과 같이 온도 조절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콜드체인 운송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냉장·냉동 운송 시스템은 일반 운송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크며, 이는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진다.

1.3 규제 대응 및 주요 이니셔티브

제약산업의 환경 영향이 부각되면서 각국 규제 당국과 국제기구는 다양한 정책과 이니셔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EIA) 절차가 의약품 개발 승인 과정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이는 신약 개발 단계부터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한 ESG 기준이 제약산업

에도 통합되고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이 강조되면서 제약기업들은 단순히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한 경영 방식을 요구받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제약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EU 그린딜은 유럽 지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포괄적 정책 패키지로, 제약산업에도 탄소 감축과 순환경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보건, 환경,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약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이를 경영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탄소 배출, 에너지 사용, 수자원 소비, 폐기물 발생 등 환경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권고안은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재무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이를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투자자와 시민사회가 기업의 환경 성과를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2. 국내 제약사 25년 ESG 보고서 비교평가

2-1 주요 평가

2025년 주요 제약사(대웅, 보령, 유한, SK바이오)들의 자체 ESG 보고서를 살펴보면, 환경(E) 부문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기업은 탄소중립 로드맵,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공정 개선 등 다양한 계획을 내세우며 지속가능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성과보다는 계획과 선언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정량적 지표는 일부 공개되고 있으나, 그 외 지표의 경우 항목별 세부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단위가 달라 기업 간 비교와 검증이 어렵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존이나 친환경 패키징과 같은 항목은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상세하지만, 실제 실행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은 ESG 보고서가 실질적인 환경 체질 개선을 보여주어주기보다는 투자자와 시장을 의식한 이미지 관리용 문서로 소비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환경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은 큰 문제다. 본사나 특정 사업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과를 강조하는 방식은 기업의 전체적인 환경 리스크를 가리거나 축소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는 ESG 보고서가 기업의 책임을 투명하게 드러내기보다,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전형적인 그린워싱(greenwashing)의 위험을 보여준다.

결국 제약사들의 ESG 보고서는 선언적 계획과 상징적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감축 성과와 공급망 전반의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ESG 보고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도구가 아니라, 단순한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2-2 국내 주요 제약사(대웅, 보령, 유한, SK바이오)의 ESG 보고서

1)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2025 ESG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환경 관련 활동을 실행했으며, 일부 정량적 성과를 공개하였다.

항목	실행 내용 및 수치
온실가스 배출 관리	Scope 1: 3.2% 감소, Scope 2: 1.8% 감소 (전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	사업장별 에너지 소비량(MWh) 공개
용수 사용량	연간 총 사용량 공개, 2.5% 절감 성과
폐기물 처리	총 폐기물 발생량 및 68% 재활용률 공개
친환경 포장재 적용	생분해성 소재 적용 제품 2~3개 품목에 한정
환경 인증	ISO14001 인증 유지 사업장 3곳

※ 일부 수치는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ESG 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됨.

- 비판적 시선에서 본 주요 한계점

환경 항목은 실행 의지는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① 실행 범위의 협소함

- 친환경 포장재 적용 제품 수가 전체 제품군 대비 매우 적음
- 생물다양성 및 환경정화 활동은 지역 캠페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② 정량적 성과의 깊이 부족

- Scope 3 배출량 미측정
- 제품 단위당 환경효율성 지표 미공개 (예: CO₂ /제품, m³ /제품)
- 목표 대비 달성률, 외부 검증 여부 등 고도화된 ESG 지표 부재

③ 생물다양성 · 환경정화 활동의 형식성

- 보호 대상 중, 식재 면적, 생태계 영향 평가 결과 미공개
- 쓰레기 줍기 활동의 횟수, 참여 인원, 수거량 등 정량 정보 미기재

④ 제품 생애주기 관리 미흡

- 폐의약품 회수 시스템 부재
- 소비자 대상 폐기 안내 및 오남용 방지 캠페인 미포함

⑤ 공급망 ESG 연계 부족

- 친환경 자재 구매 확대는 언급되었으나, 협력사 ESG 기준 적용 여부 불명확

- 개선 제안 항목

환경 항목의 실행력과 보고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제안은 다음과 같다.

제안 항목	구체적 실행 기준	기대 효과
친환경 포장재 적용 확대	전체 제품군 대비 적용률 공개, 제품명 및 적용 시기 명시	형식적 ESG 탈피, 소비자 신뢰 제고
Scope 3 배출량 측정 및 공개	공급망·물류·폐기 단계 포함, 연도별 변화 및 감축 목표 설정	전 생애주기 관리 강화, 국제 ESG 기준
제품 단위당 환경효율성 지표 도입	제품 1개당 CO ₂ 배출량, 물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등 산정 및 공개	환경 성과의 실질적 비교 가능, 투자자
폐의약품 회수 시스템 구축	약국·보건소 협력 회수처 운영, 회수량·처리 방식·소비자 참여율 공개	환경오염 예방, 책임 있는 생산자 관리
시민 대상 폐기안내 및 오남용 방지 캠페인	연간 캠페인 횟수, 콘텐츠 제작 수, 인식 변화 조사 결과 포함	사회적 책임 강화, 소비자 행동 변화 유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의 구체화	보호 대상 종, 식재 면적, 생태계 영향 평가 결과 공개	형식적 활동 탈피, 지역 생태계 기여 증
환경정화 활동의 정량화	활동 횟수, 참여 인원, 수거량, 지역별 성과 공개	ESG 보고서의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
공급망 ESG 기준 적용	협력사 대상 환경 기준 도입, 평가·점검 결과 공개	ESG 경영의 수직 확장, 지속가능한 공급

2) 보령 제약

1. 환경경영 체계: ISO 14001 기반 전사 관리 체계 구축, ESG 위원회 운영.

2.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제3자 검증,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 탄소중립 2050 달성을 목표로 2035년까지 2022~2024년 평균 대비 14%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3. 에너지 절감 성과: 2024년 총 17.9 TJ 절감.

4. 자원 효율화: FSC 종이, 콩기름 잉크, E-라벨 도입.

5. 생물다양성 보전: 황새·바다제비 서식지 보전,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6. 사내 친환경 문화: 종이컵 제로, 지역 환경정화 활동 추진.

주요 한계와 비판

1. Scope 3 배출 관리의 부재
보령은 Scope 1(직접 배출), Scope 2(간접 배출)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검증까지 받았으나, Scope 3(공급망 및 제품 사용·폐기 과정)은 사실상 다루지 않았다. 제약산업은 원재료 생산, 물류, 포장재, 폐의약품 처리 등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유발한다. Scope 3가 빠진 탄소중립 전략은 불완전하며 신뢰성이 낮다.

2. 정량적 성과 공개 부족

보고서는 “2024년 17.9 TJ 에너지 절감” 등 일부 절대 수치만 제시했으나, 총 사용량 대비 비중이나 온실가스 감축률 같은 핵심 지표는 부족하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률, 재생에너지 도입률 등 주요 데이터는 아예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 이해관계자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3. 산업 특수 리스크에 대한 대응 미흡

제약산업은 본질적으로 화학물질 사용, 폐수 배출, 일회용 플라스틱, 폐의약품 처리 문제가 크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이와 관련된 전략이나 관리 지표가 거의 없다.

이는 제약사로서의 핵심 환경 리스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이다.

4. 이벤트성 CSR 활동의 한계

황새·바다제비 보전 등 생물다양성 프로젝트는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제약업의 본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약하다. 결국 이런 활동은 사회공헌 이벤트로만 비칠 수 있으며, 본질적인 환경영향 저감을 가리는 그린워싱(greenwashing)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5. 중장기 목표의 구체성 부족

보령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2030·2040 중간 단계별 로드맵이나 실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2035년까지 2022~2024년 평균 대비 14%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제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수준의 구체적 목표가 없어, 선언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

기업명	환경 전략/정책	주요 성과 및 활동
대웅제약	생산 과정 환경 부담 관리 체계 강화	온실가스·에너지 사용량 관리, 친환경 공정 도입 시도
보령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제3자 검증, 에너지효율목표제 우수 사업장 황새 서식지 보전 협약
유한양행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 포함	환경 데이터 공시 강화, 친환경 경영 체계 구축
SK바이오사이언스	오염물질·용수·폐기물 관리 지표 설정 및 공개	안동 L하우스 중심 친환경 생산공정 개선, 에너지 절감 노력

3) 대웅, 보령, 유한, SK바이오 기업의 주요 활동과 비교

4) ESG 보고서 환경 항목 분석 및 개선 제안

기업명	분석	개선 필요 사항
대웅제약	환경 관리 체계 강화 의지는 있으나 성과 제한, 정량적 데이터 부족	보여주기식 대응 가능성, 관리 체계 고도화
보령	탄소중립 로드맵·생물다양성 활동 내	본업 환경 영향 관리 강화 필요

	세우나 실질적 감축 성과 미흡	
유한양행	국제 기준 충족했으나 데이터 범위·깊이 제한	제조·연구 과정 환경 전략 구체화 필요
SK바이오사이언스	특정 사업장 중심 보고, 전체 관리 수준 불균형	공급망 전체 환경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2-3 국내 esg 평가기관별 ESG 등급 차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2025년 ESG 평가 결과가 공개됐는데, 평가기관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 혼란이 있다. 한국ESG기준원은 메디톡스, 정보제약, 일양약품의 등급을 낮게 평가했으며, 법적 문제와 회계 위반, 횡령 사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반면 서스틴베스트는 같은 기업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부여해, 기관별 평가 기준과 데이터 해석 방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특히 HLB테라퓨틱스는 한 기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상위 등급을 받아 최대 5단계 차이를 보였다. ESG가 글로벌 제약사와 투자기관 협력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그 신뢰성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4 25년 국내 제약사 esg 경영 평가

2025년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ESG 평가 결과를 보면, 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상장사 96곳 중 절반이 B등급 이상을 획득하며 전체 시장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C~D등급에 머물러 지속가능경영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경(E)과 지배구조(G) 부문에서 낮은 평가가 집중되었는데, 이는 환경 데이터 공시 부족, 중소기업의 관리 체계 부재, 경영권 분쟁과 내부통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사회(S) 부문에서는 의약품 기부, 환자 지원 프로그램, 의료 봉사 등 업의 본질과 맞닿은 활동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다수 기업이 높은 등급을 확보하고 있다. SK케미칼과 현대바이오랜드가 A+ 등급을 획득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유한양행 등 주요 기업들이 A등급권에 포함되면서 업계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ESG기준원의 이번 평가 결과는 단순히 투자자와 시장을 위한 지표를 넘어,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따라서 제약·바이오 업계는 점수 경쟁이나 이미지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경영 체질 개선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 확립으로 이어져야 한다. 글로벌 협력과 기술이전 과정에서 ESG가 신뢰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제적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3. 해외 제약사 최신 ESG 보고서 검토

3-1. GSK (GlaxoSmithKline)

기준: 2023 ESG Performance Report

GSK는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을 80% 감축하고, 2045년까지 전체 밸류체인에서 90% 절대 감축 및 넷제로를 목표로 했다. 2023년 기준 이미 Scope 1, 2 배출량을 2020년 대비 27% 감축했다.

주요 특징

1) 평가 항목 세분화 및 구체적 내용 포함

전체 밸류체인 탄소발자국을 Scope 1&2(7%), Scope 3 공급망(31%), 물류(4%), 제품 사용(57%), 제품 폐기(1%)로 상세 구분

2023년 Scope 1, 2 배출량을 2022년 대비 10% 추가 감축

2) 연도별 Scope 1, 2, 3 단계별 온실가스 배출량 유사 수준으로 공개

2020년 베이스라인 대비 2023년까지 연도별 감축 진척도 명시

2023년 기준 83%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

3) 흡입기 추진제 가스 탄소 배출량 감소에 체계적 대응

구조용 메타도스 흡입기(MDI) Ventolin의 추진제 가스가 전체 탄소발자국의 48%를 차지
저탄소 추진제로 전환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감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중이며,
2024년에 3상 임상시험 시작, 성공 시 2025년부터 규제 승인 신청 예정

4) SBTi 검증 목표

2023년에 SBTi로부터 2045년 넷제로 목표 승인

3-2. 노바티스 (Novartis)

기준: 2024 Q4 Impact and Sustainability Update

노바티스는 2025년 Scope 1&2 탄소중립, 2030년 Scope 1&2 90% 이상 및 Scope 3 42% 감축(2022년 대비), 2040년 전체 Scope 90% 이상 감축 및 넷제로를 목표로 했다.

주요 특징

1) 향후 목표가 구체적이고 엄격함

2023년 기준 Scope 1&2 배출량을 2016년 대비 63% 감축 달성

2025, 2030, 2040년 단계별 명확한 감축 목표 설정

2) 국내 제약사 대비 상세한 기술이나 형식적 항목도 존재

SiGREEN이라는 Siemens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2024년에 도입하여 공급업체의 제품 및 서

비스벨 배출량 데이터 수집

ENERGIZE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업체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높임

공급업체 성숙도, 녹색 기술 가용성 등 과제도 명시

3) 환경 전략 재구성

2024년에 기후와 자연(Climate and Nature) 두 축으로 환경 전략 재구성

4) SBTi 검증

2024년 7월 SBTi로부터 단기 및 장기 목표 승인

3-3. MSD (Merck & Co.)

기준: 2023/2024 Impact Report

MSD는 2045년까지 Scope 1, 2, 3 전체에서 넷제로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2023년 기준 57%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했다.

주요 특징

1) Scope 1의 생산 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세 분류

직접 연료 사용, 차량 배출 등으로 세분화하여 기재

2) Scope 2, 3은 외부 전력구매 및 간접배출로 세부 분류의 한계

Scope 2는 외부 전력 구매로 표시

Scope 3는 밸류체인 배출로 포괄 표시

Scope 3 배출량이 Scope 1&2 합계의 7배 이상 차지

3) 공급망 협력

2025년까지 공급업체가 GHG 데이터를 측정하고 보고하도록 요구

2026년까지 SBTi 기준 GHG 감축 목표 설정 요구

4) SBTi 가이드라인 준수

2024년 SBTi 가이드라인에 따라 2045년 넷제로 목표 설정

3-4. 사노피 (Sanofi)

기준: 2024 Sustainability Statement

사노피는 2030년까지 Scope 1&2를 55%, Scope 3를 30% 감축(2019년 대비)하고, 2045년까지 전체 Scope에서 90%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기준 총 배출량은 약 4.2백만 톤 CO₂e 이다.

주요 특징

1) Scope 3 항목이 세분화되어 기재

Scope 3를 구매 상품 및 서비스, 자본재,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업스트림 운송 및 유통, 운영 폐기물, 출장, 직원 출퇴근, 업스트림 임대 자산, 다운스트림 운송 및 유통, 판매

제품 가공, 판매 제품 사용, 판매 제품 수명 종료 처리, 다운스트림 임대 자산, 프랜차이즈, 투자 등 15개 카테고리로 상세 분류

2) 체계적 환경 전략

기후변화, 오염, 생물다양성, 순환경제를 포괄하는 Planet Care 프로그램 운영

3) 공급업체 참여 프로그램

2024년 기준 205개 공급업체가 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는 Scope 3 배출량의 75%에 해당

4) 거버넌스 구조

Planet Care Impact Steering Committee와 Climate-related Risk & Opportunities Committee(CROC) 운영

3-5 종합 평가

글로벌 제약사들은 국내 제약사 대비:

1.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중장기 목표 설정 (2030-2045년 넷제로)
2. Scope 3 배출량에 대한 상세한 분류와 관리 체계 구축
3. 공급망 전체의 탄소감축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ENERGIZE, SiGREEN 등)
4. 연도별 진척도 투명 공개**로 이해관계자 신뢰 제고

다만 노바티스 사례처럼 일부 형식적 항목이나 공급업체 성숙도 등의 과제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

[참고]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검증

SBTi는 기업들이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기후행동 조직으로, CDP, UN Global Compact, WRI, WWF의 협력으로 설립되었다. 과학 기반 목표는 기후과학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로,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C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Johnson & Johnson, Pfizer, Novartis, Bayer, Merck, GSK, Sanofi, Takeda, Gilead, Amgen 등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파리협정의 1.5° C 목표에 부합하는 SBTi 배출 목표를 설정했다. 국내에서는 유한양행의 자회사 유한화학이 2025년 6월 국내 제약사 최초로 SBTi 승인을 획득했다.

4. ESG 보고서의 비판적 검토

4-1. 약가 인상 가능성과 글로벌 제약사 집중도 심화

ESG 이행 비용의 약가 전가 가능성

ESG 경영 도입은 기업에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국내 5대 제약사의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를 보면 GC녹십자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탄소 감축에 실패했으며, 이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설비 투자, 재생에너지 전환, 공급망 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궁극적으로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원료비 급등과 생산원가 보전을 위해 약가를 주기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의 M&A 확대와 시장 집중도 심화

2024년 미국 투자은행 스티펐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8개 글로벌 제약사는 M&A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탄인 1조 2천억 달러를 확보했으며, 특히 질병과 약가 인하 등 불확실성 속에서 고마진 신약후보물질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2023년에는 화이자의 씨젠 인수(430억 달러), 에브비의 이뮤노젠 인수, 사노피의 프로벤션 바이오 인수(29억 달러) 등 1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M&A가 성사되며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었다. 대형 제약회사들이 M&A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는 특허 만료 대응,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시너지 창출이다. 특히 보호받을 수 있는 의약품 보유가 회사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M&A 확대는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 제약사의 시장 퇴출 또는 인수합병을 가속화하고, 소수의 글로벌 제약사에 시장이 집중될 위험을 높인다.

새약사팀 향후 논의 필요사항

- ESG 경영과 약가 접근성의 균형점 모색
- 중소 제약사의 ESG 전환 지원 방안
- 공공 보건 관점에서의 ESG 도입 속도 조절 필요성
- 글로벌 제약사 집중도 심화가 약가 및 공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4-2.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공적 개입의 필요성

제약 공정 중 사용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탄소배출량 감소의 핵심 지표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설비 고효율화,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재생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 등을 탄소 감축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실적 장애요인

- 민간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구조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주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제약업계의 에너지 전환에 한계가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6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PPA)을 통해 사용 전력의 11%를 대체할 계획이지만, 이는 2050년 재생에너지 100% 목표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 공공 인프라의 역할

공공기관은 신축·증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2024년 기준 예상에너지사

용량의 3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 제약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공적 개입 방안 검토

1.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국가 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충
- 공공 전력회사를 통한 제약업체 대상 재생에너지 공급 보장

2.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

- 제약업체 대상 재생에너지 전환 보조금 또는 세제 혜택
- 녹색금융 지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촉진
-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거래 시장 활성화

3. 산업단지 차원의 접근

- 제약산업단지 내 공동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지원

4. 단계적 전환 로드맵

- 기업 규모별 차등화된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설정
- 중소 제약사를 위한 공동 구매 플랫폼 구축

4-3. ESG 경영과 기업 간 격차 심화

구조적 불평등 문제

1) 자본력 격차

중소·중견기업은 ESG 데이터 수집, 외부 검증,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크며, 자금조달과 고객기반 측면에서 ESG 경영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글로벌 제약사는 ESG 투자를 위한 자본 여력이 충분하나, 중소 제약사는 단기 생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주요 제약사들도 2023년 대부분 탄소 감축에 실패했으며, GC녹십자의 경우 절대적인 배출량이 많아 추가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2) 기술 접근성 격차

선진 제약사는 저탄소 공정, 디지털 배출량 추적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나, 개발도상국 및 중소 제약사는 기술 이전 및 도입에 한계가 있다.

3) 공급망 관리 역량 차이

대기업은 협력사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애플의 경우 협력사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클린워터 프로그램, 폐기물 제로 목표 달성 파트너십 등을 운영한다. 그러나 중소 제약사는 공급업체 관리 자체가 어려워 Scope 3 배출량 감축에 한계가 있다.

4) 투자 시장에서의 차별

금융기관은 기업 대출심사 요건으로 ESG 수준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주요 투자자들은 ESG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SG 등급이 낮은 기업은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며, 선순환 구조에서 배제되어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

5) 결과적 영향

- 시장 퇴출 가속화: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 제약사의 폐업 또는 인수합병
- 개발도상국 제약산업 위축: 자국 제약산업 보호가 어려워지고 글로벌 제약사 의존도 심화
- 혁신 생태계 위축: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줄어들어 제약산업 전체의 혁신 동력 감소

4-4. ESG 경영과 지속가능성의 역설

역설적 상황

1. 경제적 지속가능성 저해

- ESG 달성을 위한 과도한 비용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
- 중소 제약사의 도산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지역경제 위축

2. 사회적 지속가능성 저해

- 약가 인상으로 인한 의약품 접근성 저하
- 글로벌 제약사 집중으로 인한 특정 질환 치료제 개발 소홀
- 개발도상국의 보건 불평등 심화

3. 혁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위협

- 중소·벤처 제약사의 도전적 연구 위축
- 다양성 감소로 인한 제약산업 생태계 취약화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민

- 균형잡힌 접근: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조화
- 차등적 적용: 기업 규모와 역량에 따른 단계적 ESG 도입
- 공적 지원 체계: 시장 실패를 보완할 공공의 역할 강화
- 글로벌 협력: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기술 이전 및 자원 지원

4-5 종합

ESG 경영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향이나, 그 이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1. 약가 접근성과 ESG 비용의 균형

환경 보호가 공공 보건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며, 특히 필수약품의 경우 ESG 비용 전가를 제한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2. 공적 영역의 적극적 개입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지원 등 시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공공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다.

3. 형평성 있는 전환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다양한 ESG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글로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를 고려한 실질적인 차등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4. 진정한 지속가능성의 재정의

환경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제약산업의 경우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5. ESG 경영을 통한 기업의 공적 역할 강제: 정부 개입 방안 검토

5-1. 국가의 ESG 개입 방식

국가는 ESG를 통해 기업의 공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조합하여 활용한다.

인센티브 방식

- 세제 혜택: 사회적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ESG 관련 투자에 세액 공제가 제공된다.
- 금융 지원: 산업은행 탄소넷제로 프로그램 등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공공조달 우대: 정부 포상·인증 제도를 활용해 재정사업 우대와 조달·금융상의 혜택을 제공한다.

패널티 방식

- 환경 규제: 2026년부터 EU는 탄소배출 초과분에 대해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며, 미제출 시 인증서당 1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정보공개 의무: 2026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에 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 무역 제재: CBAM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5-2. 국가별 개입 전략

한국: ESG 공시·평가 제도화를 통해 관리한다.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초기 진입단계 기업이 우선적으로 갖춰야할 문항을 제시한다. 대기업 협력사에 대한 ESG 경영 지원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공급망 전체로 확대한다.

EU: 가장 강력한 통제 체계를 구축했다.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으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EU 탄소노미로 녹색 금융 수혜 기준을 명확히 한다. CBAM 대상 품목은 시멘트, 순철 및 강철,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가 해당되며 이후 유기화학제품 플라스틱으로 확대 예정이다.

미국: 공공조달과 투자 정책을 통해 간접 개입한다. SEC가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추진

중이나 주별 규제 차이가 크다.

중국: 녹색금융 중심으로 관리하며, ESG 기준 충족 기업만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5-3. 제약산업에 대한 함의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며, 제조 및 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유기용매나 항생제, 의약품 유출로 인한 수생 생태계 오염이나 탄소배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ESG 경영은 대형사 위주에서 중소형 및 벤처 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법령상 의무화가 되면서 수출에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공급망 내 압력이 늘어나고 있다. 제약산업도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5-4. ESG 개입의 한계와 과제

구조적 불평등 심화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은 자본과 인력으로 대응 역량을 갖추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최고 등급은 소수이고 여전히 중소 제약기업들은 최하위인 등급이 다수이다. ESG가 대기업에게 유리한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의 적합성 문제

제약바이오산업 최고의 사회공헌은 신약개발과 의약품 공급을 통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인데 이러한 부분이 ESG 평가지표에 반영되어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약산업의 핵심적 공적 역할인 의약품의 접근성 확보, 적정 가격 유지, 안전성 보장 등이 평가 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일반적인 획일적 기준이 적용될 경우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다.

형식적 대응 우려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도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실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평가 등급 향상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나 사회적 책임 이행보다는 서류상 점수 관리에만 치중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5-5 결론: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국가의 ESG 개입 방안 모색

제약산업에서 의약품의 공공성 확보와 제조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 관리는 모두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ESG 경영 평가에 대한 국가 개입은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국가는 ESG 평가 지표에 제약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의약품 접근성 개선, 필수약품 안정적 공급, 적정 가격 유지, 제조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저감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약기업이 단순한 환경·사회 지표 개선을 넘어 의약품의 공공성 강화와 환경 책임 이행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특히 ESG 평가는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 역량을 검증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환경 관리 체계, 품질 관리 시스템, 투명한 지배구조 등은 궁극적으로 안전한 의약품 생산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ESG를 통한 국가 개입이 공중보건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약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 개발과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와 패널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모색함으로써 ESG 경영이 제약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환경 책임 이행을 동시에 달성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제약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ESG 평가 항목 개발: 의약품 공급 안정성과 환경 책임을 중심으로

6-1. 의약품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ESG 항목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약품 품질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 건강과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수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거나 대체 약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의약품 품질 현상은 단순한 물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환경적 요인인 원료 수급 차질, 사회적 요인인 공공 접근성 저하, 그리고 기업의 공급 책임 문제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구조적 문제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의약품 품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한, 주요 원료의약품 생산국의 수출 규제, 물류 대란 등이 겹치면서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여기에 특정 질환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거나 예상치 못한 보건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제한된 생산 능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품질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는 것은 제약산업의 핵심적 사회적 책임이다.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 제품이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만큼, 제약기업은 예측 가능한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품질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환경적·사회적 리스크 관리가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원료 작물 수확 감소,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원료의약품 생산 공장 가동 중단, 노동 인권 문제로 인한 공급망 차질 등은 모두 ESG 리스크이면서 동시에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제약기업이 ESG 경영을 강화하고 공급망 전반의 환경적·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책임을 넘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 되고 있다.

2) ESG 보고서 포함 가능 항목

ESG 분야	세부 기준	기대 효과
환경(E)	생산·공급망 다변화, 원료 확보 전략, 긴급 생산 전환 체계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 확보, 공급망 안정성 강화
사회(S)	품질약 모니터링 시스템, 대체약 안내, 환자 정보 제공, 공공기관 협력	환자 접근성 보장, 공중보건 기여, 사회적 책임 실현
지배구조(G)	품질 대응 프로토콜 수립, 리스크 관리 체계 운영, 책임 부서 지정	위기 대응 체계 강화, 투명한 공개

3) 해외 규제 사례

미국 FDA

2012년 FDASIA 법 제정 이후 제조업체는 특정 의약품의 영구 중단 또는 제조 중단을 FDA에 6개월 전에 보고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중단 후 5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2020년 CARES Act는 API(원료의약품)까지 보고 범위를 확대했으며, 생명유지 의약품 제조업체에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 EMA

EMA는 2025년 2월부터 의무화되는 유럽 의약품 품질 모니터링 플랫폼(ESMP)을 통해 제조업체와 각국 당국이 의약품 공급, 수요, 가용성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체는 현재 또는 임박한 의약품 품질을 모두 보고해야 하며, 의약품의 임상적 중요성과 관계없이 보고 의무가 있다.

글로벌 제약사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은 ESG 보고서에 백신 및 의약품 공급 안정화 전략을 포함하여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6-2. 폐의약품 회수 및 환경 책임 강화를 위한 ESG 항목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폐의약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질 경우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토양 및 수질 오염이 발생하며, 특히 항생제나 호르몬제 성분이 수계로 유입되면 생태계에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베르톨레 지역에서는 스테로이드 생산 공장에서 흘러나온 약물로 인해 주변 하류 물고기의 60%가 중성으로 변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는 의약품 성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이론적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SG 관점에서 폐의약품 관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SG 경영은 제품의 생산뿐 아니라 사용 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 관리(Life Cycle Responsibility)를 요구한다. 제약기업은 의약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에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사용

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안전하게 회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폐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의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가 필수적이다. 아무리 좋은 회수 시스템이 마련되어도 시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폐의약품의 올바른 폐기 방법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 그리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회수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환경 보호의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미 해외 제약사들은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약국과 협력한 폐의약품 회수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의 많은 국가에서는 제약사가 회수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약국이 회수 거점으로 참여하는 체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국내 제약산업이 ESG 평가 항목에 폐의약품 회수와 환경 책임을 포함시켜야 할 당위성을 제공한다

2) ESG 보고서 포함 가능 항목

항목	구체적 실행 기준	기대 효과
폐의약품 회수 시스템 구축	약국·보건소 협력 회수처 운영, 회수량·처리 방식·참여율 공개	환경오염 예방, 생산자 책임 실현
시민 대상 폐기 안내 캠페인	연간 캠페인 횟수, 콘텐츠 제작 수, 인식 변화 조사 결과 보고	사회적 책임 강화, 소비자 행동 변화 유도
의약품 오남용 방지 교육	고령층·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 약물 안전 가이드 배포	공중보건 기여
제품 라벨링 강화	폐기 방법 안내 문구 및 QR코드 도입	소비자 편의 증대, 적절한 폐기 유도
유통기한 관리 및 폐기량 감축	유통기한 연장 기술 도입, 재고 최적화	폐기물 발생 자체 감소, 자원 효율성 향상

3) 해외 사례

유럽연합

EU는 2004년 지침을 통해 의약품 포장에 '당신의 행동이 환경을 보호합니다'라는 문구를 넣도록 했으며, 약국의 참여를 통해 폐의약품을 받도록 하고 운영비의 절반을 제약사와 약국이 부담하도록 했다. 2007년 조사 결과 28개국 중 20개국이 폐의약품 수집계획이 있고, 그 중 11개국은 약국을 중심으로 수집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는 1993년부터 사이클라메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2007년 이후 모든 약국이 제약사 회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폐의약품을 약국으로 반환하면 약사들이 이를 선별해 의약품 도매업체에 보관하여 소각하며, 위반 시 약사나 제조업자에게 벌칙이 부여된다.

미국

미국은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Law에서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약회사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 미네소타 등 일부 주에서는 폐의약품 회수 프로그램 운용과 관련된 법률을 마련해 적용 대상, 대상 기관, 제조업체의 책임, 처리방법 등을 명기하고 있다.

벨기에

벨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쓰레기 포함 금지, 매립 금지, 제약사의 폐의약품 회수 의무 등을 의무화했으며, 전국민 모두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6-3. 결론: 제약산업 특성을 반영한 ESG 평가 체계 구축

제약산업의 공공성과 환경 영향을 고려할 때, 의약품 공급 안정성과 폐의약품 관리는 제약기업의 필수적 사회적 책임이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 국가들은 법적 규제를 통해 제약기업에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 1) 의약품 품질 조기 보고 및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 2) 폐의약품 회수 시스템 구축 및 비용 분담
- 3)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 생애주기 관리

이러한 요소들을 ESG 평가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제약기업의 공공성 강화와 환경 책임 이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특히 단순한 일반적 ESG 지표가 아닌, 제약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개발할 때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추가 논의 내용-

약국의 ESG 보고서 활용 가능성과 적용의 한계

ESG 지표의 본질적 성격

기업의 ESG 지표는 본래 투자자에게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다. 자본주의 경제 시장에서 ESG는 기업의 가치 평가를 높이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되며,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ESG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개인투자자 등 명확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며,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약국 ESG 지표 도입의 구조적 모순

1. 투자자 부재의 문제

약국에 ESG 지표를 도입할 경우,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약국 ESG 보고서의 수요자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기업 ESG는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명확한 목적을 갖지만, 약국은 대부분 개인 사업체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국의 ESG 보고서를 보는 “투자자”는 누구

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2. 잠재적 이해관계자 재검토

약국 ESG의 잠재적 이해관계자로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환자: 약국 선택의 기준으로 ESG 성과를 고려할 가능성

지역사회: 지역 보건 거점으로서 약국의 사회적 책임 요구

정부: 약국 인허가 및 평가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평가 체계 내 ESG 지표 통합 가능성

그러나 이들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투자자처럼 약국의 ESG 성과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3. 목적과 대상의 재정의 필요성

약국 ESG는 기업 ESG와 다른 목적과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투자 유치가 아닌 사회적 책임 이행의 수단으로 재정의

경쟁력 강화가 아닌 공공 보건 기여도 평가의 도구로 전환

자발적 공시가 아닌 의무적 사회적 책임 보고의 성격 부여 검토

약국 ESG의 사회적 의제화 방안

1. 약국의 공공성 강화 논의와 연계

약국은 의료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보건을 담당하는 공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공공성을 기반으로 ESG 경영을 사회적 책임 이행의 틀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2. 기후정의행진과의 접점 모색

기후위기는 보건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위협한다. 약국의 ESG 경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후정의 의제와 연결될 수 있다:

지역사회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 보장

폭염·한파 등 기후재난 시 약국의 응급 대응 체계 구축

의약품 폐기물 감축을 통한 환경 보호 실천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3. 제도적 기반 마련

약국 ESG 경영의 사회적 의제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약국 ESG 평가 지표 개발 및 표준화

우수 약국 인증제도와의 연계 방안 마련

건강보험 수가 체계 내 ESG 인센티브 도입 검토

지역사회 약국의 환경·사회적 성과 공개 의무화

4. 국제 사례 벤치마킹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는 보건의료 분야의 ESG 경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NHS의 ESG 경영 관련 온라인 자료를 검토하여 약국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과제 및 논의 방향

1. 장기적 관점의 논의 필요

약국 ESG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충분하고 심도 깊은 장기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새약사팀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약국 ESG의 철학적 기반 정립

개인사업체 중심 약국 구조에 적합한 ESG 모델 개발

약국 ESG와 공공 보건의 연계 방안

약사의 전문직 윤리와 ESG 경영의 통합

2.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약국 ESG 논의에는 약사뿐 아니라 환자 단체, 지역사회, 정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들의 관점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포용적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3. 실천 가능한 단계적 접근

이론적 논의와 함께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ESG 활동을 발굴하고 시범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약품 포장재 재활용 캠페인

지역사회 취약계층 복약지도 강화

약국 내 에너지 절감 실천

협력 약국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ESG 프로젝트

4. NHS 사례 심층 분석

NHS의 ESG 경영 사례를 다음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 보건의료 체계 내 ESG 통합 방식

1차 의료기관(약국 포함)의 ESG 이행 체계

성과 측정 및 평가 방법론

인센티브 및 지원 체계

소결: 약국 ESG의 방향성

약국의 ESG 경영은 기업의 그것과는 다른 철학과 목적을 가져야 한다. 투자 유치를 위한 도구가 아닌, 지역사회 보건 향상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약국의 공공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ESG 경영의 수요자와 목적을 재정의하며, 실천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새약사팀이 이러한 논의를 앞으로도 이어가며 약국이 기후위기 시대의 보건 거점으로 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활동이라 판단된다.

2. 지역 약국의 공공성 평가

지역 약국의 공공성 평가 지표 작성 사업 경과 및 평가

1. 사업 방향의 전환: 지표 개발에서 개념 탐색으로

당초 이 사업은 '지역 약국의 공공성 평가 지표'를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회의를 진행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평가 지표를 만들기 전에 우리는 '약국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할 수 있는가? 공공성에 대한 합의 없이 만들어진 지표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고민 끝에 사업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전환되었다. 구체적인 지표 개발보다는 공공성 개념에 대한 근본적 논의와 이론적 탐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커먼스(Commons) 이론을 통해 공공성의 새로운 관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사업의 중심축이 이동했다.

2. 공공성과 보건의료: 추상적이지만 중요한 개념

공공성은 한국어 사전에서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정의된다. 동양학에서 공(公)은 개인의 몫을 나눌 때의 공정함, 즉 균등한 분배를 의미하고, 공(共)은 여럿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여, 공공성은 균등한 분배를 통해 여럿이 함께하는 성질로 해석된다. 서양에서는 소수가 아닌 대중, 사적이 아닌 정부, 닫힌 것이 아닌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공공성은 더욱 복잡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에서 공공보건의료 또는 공공성 개념은 보건의료의 상품화, 영리화, 시장화가 확대·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형성된 역사적 개념이다. 공공성의 개념은 맥락에 따라 달라지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에서의 공공성을 논의할 때는 그것이 요구되는 맥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조직의 공공성 판단 기준은 정부 소속 여부에서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로 넓어졌다가, 이어서 공공적 가치에 대한 동의와 헌신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이는 공공성을 단순히 소유 주체나 운영 형태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가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3. 커먼스 이론의 탐색: 공유와 실천의 철학

약국의 공공성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커먼스 이론에 주목했다. 매 회의마다 팀원들이 번갈아가며 자료를 발제하며 함께 학습했는데, 서리풀학당 지역참여정치 강의와 커먼스 관련 문헌들이 주요 학습 자료가 되었다.

커먼스와 커머닝의 개념

커먼즈는 자원을 장기간 돌보기 위한 사회 체계로서, 공유된 가치들과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을 보존하는 자기조직된 체계이다. 커먼즈는 우리가 함께 물려받거나 창출한 부를 가리키는 데, 이 부를 감소되지 않은 채로 혹은 더 증가된 채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커먼즈는 공동체에서의 공유자산, 공통-부, 공통재, 공유재, 공유 활동 등을 모두 포괄하며, 공기, 물, 햇빛, 바람, 산, 들, 갯벌, 바다 등 우리 주변의 많은 자연자원도 커먼즈에 해당한다.

커머닝 없이 커먼즈는 없다. 커머닝이란 집단적 이익을 위한 공동체의 자원관리를 돕는 사회적 실천들과 규범들이다. 커머닝은 공유된 자원을 관리하는 체제들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상호지원, 갈등, 협상, 소통 그리고 실험의 행동들을 의미하는 사회적 실천이다.

커먼즈는 명사라기보다 동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커먼즈는 함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부정이며, 공통인들은 자원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관습적으로 그리고 집합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했다.

커먼즈는 다양한 활동 속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의지를 갖고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지 않더라도, 활동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다. 커머닝이란 부딪침, 갈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 차이들의 회합 속에서 새로운 공통감각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한국의 커먼즈 실천 사례

- 책읽기 모임은 가장 일상적인 커머닝의 사례다. 각자 책을 읽고 와서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생각이 섞이며 다른 생각을 촉발하고 다양한 생각이 부딪히고 섞이고 조율되는 가운데 어떤 공통 감각이 만들어진다.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무언가는 각자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누어지는 한편, 거기에 있던 모두가 향유한 어떤 공통의 경험으로서 '우리'라는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계산하거나 만들어진 결과를 어떤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난곡 희망의료협동조합은 1970년대 서울 도시빈민 여성들이 주체가 된 커먼즈의 역사적 사례다. 난곡지역 엄마들은 한 달에 한 번 국수계를 조직했고, 이웃 여자가 산업재해로 입원했을 때나 같은 공장의 여성들이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국수클럽에서 병원비를 모금하고 집안일과 양육을 떠맡았다. 이는 의료와 돌봄이 어떻게 공동체의 커먼즈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다.

- 빈집은 임노동을 벗어나 최대한 자유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거 공동체다. 초기에는 “모두가 손님”이라는 암묵적 원칙으로 자율적 분위기를 유지했으나, 빈집이 늘어나고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과 살림 부담에 대한 갈등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통해 공동체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발전해 갔다. 살림과 돌봄, 고정된 역할이 없는 자발적 활동, 위계 없는 관계 맺기를 실험했다.

- 경의선공유지는 국유지의 개발권을 대기업에 넘겨주는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공익은 무엇이며, 누가 공익의 내용을 결정하는가를 질문하면서 시민행동이 만들어졌다. 놀장, 벼룩시장,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재개발과 도시재생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초대했다. 싸움도 공유지를 만드는 과정임을 보여준 사례다.

- 빈고는 금융 커머닝의 실험이다. “능력에 따라 모으고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는 원칙으로 운영되는 공동체 은행이다. 전세보증금은 현실에서 이자를 낳는 자본의 기능을 하는데, 그 이자를 타인과 나누는 구조다. 빈고에서는 출자자=이용자=연대자=운영자의 동일성을 추구한다. 일반 은행이 모든 주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적 금융활동 속에서 누군가의 몫을 빼앗으면서 화폐를 증식시키는 것과 달리, 빈고는 공유를 통해 이자, 즉 자본을 소멸시키는 반 자본 직접행동을 지향한다.

4. 약국의 공공성에 대한 구체적 상상: 커먼스를 통한 약국의 공공성 실현

운영 방식과 지역사회 역할

팀원들은 약국이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제시했다. 첫째, 친환경적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샅인샷 형태로 취급하거나, 아이스팩을 기부받아 재사용하는 등의 실천을 통해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약국을 상상했다. 둘째,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이다. 단순히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모색했다. 셋째, 차별이 없는 방향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를 약국에서 고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었다.

브로콜리약국 사례: 커머닝의 실천

원주에 위치한 브로콜리약국은 약국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커머닝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이다. 이 약국은 환자 자조모임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상상을 현실화한 곳이다. 브로콜리약국은 ‘동물약국’으로도 유명한데, 약국 앞에 비둘기 모이와 목욕탕을 만들어두고, 가끔 동물을 구조해서 회복시키는 과정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한다. 인스타그램으로 “반사회”라는 온라인 모임을 월·분기 단위로 개최하는데, 탈모, 콜레스테롤, 아토피, 여름철 질환 같은 주제로 진행한다. 모이는 사람들을 ‘대원들’이라 부르며 생활습관, 식습관, 건기식 제품 추천 등 매우 섬세하고 지속적인 일대일 상담을 제공한다. 마치 주치약사처럼 활동하는 것이다. 2022년 울진 산불이 났을 때는 팀을 조직해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활동을 했다. 약국이 지역에서 구심점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활동, 이것이 바로 커머닝이 아닐까 하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5. 의약품의 성격: 공공재, 가치재, 상품

약국의 공공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공공재적 측면

필수 의약품이나 백신과 같은 특정 의약품은 공공재의 성격을 띤다. 필수 의약품의 공급 중단 사례(예: 리피오돌 사태)는 필수 의약품이 공공재로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백신은 개인의 감염 예방을 넘어 집단 면역 형성으로

사회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지므로 공공적 가치를 지닌다.

가치재적 측면

의약품은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고 개인의 소비에 따라 소모되는 '사적 재화'의 특성을 가지지만, 그 소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치재로 분류된다. 개인이 질병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복용하여 건강을 회복하면, 이는 노동력 증진, 생산성 향상, 질병 확산 방지 등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품으로서의 측면

의약품은 제약회사가 연구 개발, 생산, 유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이윤 창출을 위한 '상품'의 성격이 강하다. 제약사는 의약품 개발과 생산에 막대한 투자를 하므로, 적절한 약가 보전이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신약 개발과 공급이 가능하다.

종합적 이해

대한민국에서 의약품은 공공재적 가치를 지닌 가치재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필수 의약품이나 백신처럼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인 의약품은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강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의약품은 가치재적 성격을 지니며, 시장 기능만으로는 최적의 소비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건강보험과 약가 정책을 통해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동시에 의약품은 제약 산업의 산물로서 상품의 특성도 가지므로, 공공성 확보와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정책적 과제가 항상 존재한다.

6. 남겨진 질문들: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

회의를 진행하면서 새약사팀은 여러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왜 약국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가? 공공성을 확장할 방안은 무엇인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실천적 차원에서도 질문들이 이어졌다. ESG 평가 항목과의 연계 가능성은? 허가 시 공공성 기준을 반영할 방안은? 환경친화약국 등급제를 도입할 수 있을까? 새로운 약료(藥療) 방식으로서의 가능성은?

이러한 질문들은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남겨졌지만, 이 질문들 자체가 약국의 공공성을 고민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 생각한다.

7. 사업의 의의와 한계

의의:

이 사업은 단순히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넘어, 약국 공공성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커먼스 이론을 통해 공공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얻었다. 특히 브로콜리약국과 같은 실천 사례를 통해 약국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력을 확보했다.

한계 및 어려움:

당초 목표였던 구체적 평가 지표는 개발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공공성 개념 정립의 어려움이 컸다. 공공 또는 공공성 개념이 맥락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약국의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커먼스 개념 자체가 생소했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했다. 커먼즈라는 삶의 양식이 우리에게 낯설어진 것은 우리가 공통의 삶보다는 각자도생에 이미 익숙해져버렸기 때문이다. 이론적 이해와 약국 현장에의 적용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했다. 이론적 논의와 실천 방안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어려웠고, 공공성 확장 방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향후 과제 및 방향:

이 사업은 완결되기보다는 계속 이어져야 할 주제의 시작점이 되었다. 지역약국의 커먼스 활동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야 한다. 약국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공유와 실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지역의 구심점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를 계속 탐색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약국 모델에 대한 상상도 이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제로웨이스트샵과 샵인샵 형태의 약국이나 협동조합 약국은 어떨까? 약국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이것은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지역사회에 기반한 새로운 약국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커먼스 이론에 기반한 약국 공공성 개념을 더욱 정교하게 정립하고, 이 개념에 부합하는 구체적 실천 방안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정책적·제도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8. 맺음말: 공공성에 대한 탐색은 계속되어야 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공공성 접근이 소유 주체를 강조하는 형식 중심에서 공공적 가치나 공공 성과를 강조하는 내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시민과 이용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공공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를 연결하는 흐름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경계를 강조하고 주체를 구분하는 예리한 공공성에서, 체계의 특성과 주체의 본성을 존중하고 통합하면서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넉넉한 공공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사업은 비록 구체적인 지표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약국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했다. 커먼스 이론을 통해 공공성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실천'의 문제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약국 공공성 논의의 새로운 방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약국이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을 함께 돌보고 서로를 챙기는 커먼스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상상, 그것이 이 사업이 남긴 성과이다.

3. 부작용 평가 워크숍 사업평가서

2025년 약물 부작용 평가 워크숍 사업 평가서

1. 사업 개요

1.1 사업 명칭: '신입약사를 위한 약물 부작용 평가 워크숍'

1.2 사업 목적

본 워크숍은 졸업 후 1-2년차 신입약사를 대상으로 약물 부작용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약대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이론과 실무 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경력약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장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약사의 필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향하였다.

1.3 사업 배경

본 사업은 2024년 부스터 사업에서 작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일방적 강의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신입약사와 경력약사가 함께 참여하며 상호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조직 사업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였다.

1.4 사업 기간 및 대상

본 워크숍은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약대 졸업 1-2년차 신입약사와 새약사새약국사업부 팀원이 함께 참여하였다. 교육 장소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실과 온라인 줌 미팅 플랫폼을 활용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총 6회차의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온라인 교육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에 3회, 오프라인 실습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3회 진행되었다.

2. 사업 추진 내용

2.1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일본의약품안전성학회가 감수한 『의약품부작용평가』(2018)를 주교재로 활용하였다.

- 첫 번째 온라인 워크숍은 6월 18일에 개최되어 본 강좌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의약품 안전성학의 기초적인 개념과 이해를 돕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 두 번째 온라인 워크숍은 7월에 진행되었으며,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1부에서는 윤선희 약사가 지역약국에서의 부작용 상담 노하우를 공유하였고, 2부에서는 간장과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의 부작용 평가 케이스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세 번째 온라인 워크숍은 9월에 열렸으며, 마찬가지로 두 파트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부작용 보고의 현황과 의약품 피해구제제도의 실태를 다루었으며, 참여자들에게 워크숍 전에 최소 1건 이상의 부작용을 직접 보고해보도록 권유하여 실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2부에서는 호흡기계, 피부/비뇨기계, 심혈관계 등 계통별 의약품 부작용 평가 이론을 학습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2.2 오프라인 실습 프로그램

오프라인 실습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실제 약국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 첫 번째 오프라인 워크숍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지역약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빈도 부작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경력약사와의 질의응답 세션이 포함되었다. 2부에서는 소그룹으로 나누어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인과관계 평가, 중증도 판단, 중재 조치 결정 등을 직접 분석해보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 두 번째 오프라인 워크숍은 약물 부작용 상담 및 대응 실습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새약사팀에서 사전에 약사의 부작용 평가 사례를 시나리오로 준비하였고, 신입약사들이 각 사례별 상황에서 직접 대응하는 시연 형태로 운영되었다. 오전에는 공통 사례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역할을 바꾸어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습 내용에는 다양한 환자 유형별 롤플레이 시뮬레이션,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시연,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및 대응 사례 실습, 혈압기와 혈당기 및 인슐린 주사 사용 안내 등이 포함되었으며, 경력약사들이 효과적인 환자 상담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 세 번째 오프라인 워크숍은 종합 실전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었다. 환자 대상 상담 결과 의견서, 즉 레터를 작성하는 실습이 이루어졌으며, 약물 부작용 상담 레터의 기본 양식을 검토하고 실제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작용 보고 시스템과의 연계 작업을 실습하였으며, 약물 부작용 상담의 전 과정인 분석, 대응, 문서화, 보고를 통합적으로 실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3. 사업 성과

3.1 주요 성과

본 워크숍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새로운 교육 방식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참여 약사들이 즉석으로 부작용 상담 시연을 진행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문서화된 자료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참여자들 간의 다양한 상호 피드백을 통해 교육 내용의 깊이와 풍부함을 높일 수 있었다.

둘째, 이론과 실무를 효과적으로 통합하였다. 온라인에서의 이론 교육과 오프라인에서의 실습을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약물 부작용 평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참여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였다. 환자 안전을 위한 약사의 실질적 역할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부작용 관리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

넷째,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팀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워크숍은 약사의 역할을 제시하는 레퍼런스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약료의 새 전형을 제시하였다. 약국 약사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실무자들에게 약사 역할에 대한 고민의 해답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3.2 사업의 의의

본 워크숍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신입약사와 경력약사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학습 모델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실제 약국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실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이론과 실무의 간극을 좁히고,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사업 평가 및 개선점

4.1 한계점

본 워크숍이 여러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참여 회원 규모가 제한적이었다. 투입된 자원과 노력에 비해 참여한 신입회원의 수가 적어 사업의 확장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이는 홍보 및 모집 전략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참여자들의 사전 준비도에 문제가 있었다. 일부 참여 회원들의 이론적 기반이 부족하여 실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사전 학습 자료 제공 및 기초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교육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였다. 신입 회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환자 대상 필수 질문 리스트와 같은 실습 자료가 사전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4.2 개선 방향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신입회원들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하여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 접촉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기초 이론 교육을 위한 사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자들의 준비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5. 향후 계획

5.1 차년도 사업 연계 방안

본 워크숍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6년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확장 가능한 부작용 관련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주요 추진 방향으로서는 워크숍 과정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하고, 약물 부작용 상담 레터 양식을 표준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단계별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5.2 기대 효과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약국 약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자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교육 사업 모델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신입약사와 경력약사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대 간 경험을 공유하고, 건약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6. 결론

2025년 신입약사 대상 약물 부작용 평가 워크숍은 단방향 교육 방식을 탈피하고 실무 중심의 상호작용형 학습 모델을 구현하였다. 비록 참여 인원이 제한적이었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실질적인 역량 향상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약물 부작용 평가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실습하고, 신입약사와 경력약사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약국 약사의 전문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약료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는 레퍼런스 사업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교육 사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된다. 이번 사업에서 도출된 개선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차기년도 사업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약사 사회의 역량 강화와 환자 안전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부작용 캠페인 사업

부작용 캠페인 사업

1. 사업 배경 및 목적

약국에서 부작용을 제대로 체크하고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이번 사업은 약사들이 바로 쓸 수 있는 부작용 정보를 만들어 제공하고, 환자 상담 능력을 키워서 약국 그 질을 높이는 게 목표이다.

약사가 부작용을 꼼꼼하게 챙기면 환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결국 약국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 사업 계획

2.1 월별 집중 모니터링

2025년에는 매달 1~2개 약물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선정된 약에 대해서는 짧고 실용적인 자료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나눠준다:

- 주요 부작용 3~4가지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 환자 상담할 때 주의할 점
- 보관 방법과 복약 지도 팁

- 실제 경험한 사례 공유

이렇게 하면 약사들이 해당 약물의 부작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현장에서 모은 경험들을 계속 쌓아갈 수 있다.

2.2 다빈도 의약품 100개 자료 만들기

장기적으로는 많이 쓰는 약 100개를 뽑아서 각각 한 장짜리 자료를 만든다. 내용은 이렇게 구성한다:

- 약 기본 정보와 어떨 때 쓰는지
- 꼭 알아야 할 부작용 3~4가지
- 특별히 조심해야 할 환자
- 보관법과 복약 지도 포인트
- 작용 원리는 링크로 따로 제공

자료가 다 완성되면 세미나나 교육을 열어서 현장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한다. 이 자료는 나중에 교육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2.3 다양한 형태의 자료 제작

문서 외에도 사진,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영상 같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한다. 이런 자료들은 보기 쉽고 재미있어서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고, SNS로도 쉽게 퍼뜨릴 수 있다.

3. 월별 추진 내용

3.1 4월: 코대원포르테

(1) 약물 특성

코대원포르테는 여러 성분이 섞인 복합 감기약이라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비슷한 성분의 약이 처방전에 중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약사가 잘 체크해야 한다.

(2) 자료 제작

회원용 자료 2종을 만들어 검토했고, 다음 내용을 담았다:

- 졸음이 올 수 있다는 점 환자한테 설명하기
- 중복 처방 위험성과 DUR 체크 방법
- 졸음 유발 스티커 활용
- 자료 출처 반드시 밝히기

(3) 한계점

코대원포르테는 며칠만 먹는 약이라 환자 추적이 어렵다. 또 현재 DUR 시스템은 복합제의

성분별 용량을 합쳐서 체크하지 못해서, 과용량 처방을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4) DUR 개선 필요성

DUR은 약물 상호작용이나 금기사항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체크하고 있고, 참여 의무도 없어서 효과가 떨어진다. 약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DUR 의무화를 주장했지만 의료계와의 갈등, 비용 문제, 법적 책임 문제 등으로 진전이 없었다.

심평원에 복합제 과용량 처방을 걸러달라는 의견서를 내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내는 게 적절한지는 의견이 갈렸다. 나중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3.2 5월: 메트포르민

5월에는 당뇨약인 메트포르민을 선정했다. 메트포르민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당뇨약이고 오래 먹는 환자가 많아서 부작용 체크가 중요하다. 특히 속 쓰림, 비타민 B12 부족, 젖산산증 같은 부작용을 잘 살펴야 한다.

3.3 6월: 울트라셋

6월에는 진통제 울트라셋을 선정했다. 심평원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내용을 담은 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 통증약 단계별 사용법 (WHO 3단계)
- 울트라셋 언제 어떻게 쓰는지
- 마약성 진통제 과다 사용 문제
- 중독이나 내성 생길 수 있다는 점 환자 상담

이를 통해 약사들이 진통제 처방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상담할 수 있게 돕는다.

3.4 9월: FDA 안전성 서한

9월에는 8월에 나온 FDA 안전성 서한을 정리한 자료를 편집해서 배포하였다. 최신 안전성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현장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평가 및 향후 계획

4.1 성과

- 매달 특정 약물을 집중해서 공부하니 이해가 깊어짐
- 여러 형태의 자료로 만들어서 접근하기 쉬움
- 실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현장 지식 쌓임
- FDA 같은 해외 기관 정보를 빠르게 전달

4.2 아쉬운 점과 개선 방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먼저 단독방에 자료 올린 후 회원들끼리 피드백이나 토론이 별로 없었다. 적극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 또 자료 만드는 사람이나 받아보는 사람 모두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가 부족했다. 게임처럼 재미있게 만들거나, 우수 사례를 뽑아서 상을 주거나, 참여하면 혜택을 주는 등 동기를 유발할 방법이 필요하다. 웹툰, 애니메이션, 팟캐스트 같은 새로운 형식도 시도해볼 만하다.

이번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었다. 참여율, 활용도, 환자 만족도 같은 걸 체크할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4.3 마무리

이번 부작용 캠페인은 약사의 전문성을 키우고 환자 안전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이다. 초반에 소통이나 참여 동기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매달 집중 모니터링하고 장기적으로 자료를 쌓아가는 방식은 앞으로 계속 이어갈 만하다.

추후 회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재미있는 방법을 찾고, 사업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5년 사무국 사업평가

1. 사업목표

- 1) 안정적인 회원 관리
- 2) sns를 활용한 건약 사업활동 소개 및 홍보
- 3) 젊은 약사 및 약대생들과 접점 만들기
- 4) 각 사업부 활동 및 연대활동 지원
- 5) 기타 중집위 사업 추진

2. 사업계획

- 1) 안정적인 회원 관리
 - 회원 명단 및 재정의 안정적 관리
 - 매월 재정관리 업무 보고
- 2) SNS를 활용한 건약 사업활동 소개 및 홍보
 - 정기적인 건약 뉴스레터 제작 및 홍보
 - 건약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
- 3) 신입약사 및 약대생 중심으로 신입회원 모집
 - 건약 주최 세미나 등 행사 홍보
 - 신입 약사와 ‘선배와의 대화’ 형식 행사 개최
 - 약대생 중심의 조직사업 활성화
 - 회원들과 온오프라인 모임 모색
- 4) 각 사업부 활동 및 연대활동 지원
- 5) 기타 중집위 사업 추진

- 정기적인 엘림포럼 개최
- 건약 새로고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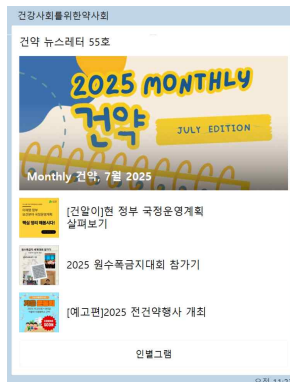
3. 사업 진행 경과

1) 안정적인 회원 관리 업무

- 회비영수증 발급 방법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회원들 원하는 방식에 맞춰 진행
- 회원 경조사 안내 공지
- 매달 회원 대상 생일선물보내기 사업을 진행
- 건약 로고를 이용한 굿즈 제작
- 중집위에서 월별 재정보고

2) SNS활동을 통한 사업 활동 소개 및 홍보

- 건약 뉴스레터 제작(총 9회)





- 엘림포럼 웹자보 제작 및 홍보
- 매달 영화 토크아보기 웹자보 제작 및 홍보
- 건약 X(구 Twitter) 개설 및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단체 SNS 운영

3) 젊은 약사 및 약대생들과 점점 만들기

- 약대생들에게 2025 약사다 홍보 및 지원
- 약대생들과 기후환경 연합동아리 ‘그린처방전’ 모집 및 운영
- 약대생들과 ‘의약품접근권 연구팀 모임’ 조직 및 운영
- 약대생 및 젊은 회원들과 원수폭금지 세계대회 참가 조직
- 신입약사들에게 건약 활동 소개 및 선배들 이야기 듣는 ‘건약이음’ 행사 개최
- 신입 약사들 대상 약물부작용 워크숍 지원(온오프라인 6회 진행)
- 신입 회원들과 책읽기 모임 진행

약대생 1명, 회원 4명과 함께 책읽기 모임 진행하였음. 기존 참가자에서 권수민 회원이 새로 참여함. 매달 1회 모임 지속하고 있으며, 책 ‘권력과 교회’, ‘너무 시끄러운 고독’, ‘돌봄의 논리’, ‘어쩌다 우리는 환자가 되었나’ 을 같이 읽고 토론을 진행함.

- 3월말부터 약 5개월간 매주 월요일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주최한) ‘기후책읽기 모임’ 을 진행함. 자율 소모임형태로 그레타툰베리 기후 책을 기본교재로 주제별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신입회원 2명 등 총 6명이 함께하는 모임 진행

4) 각 사업부 활동 및 연대활동 지원

- 5월 트럼프 약가인하 행정명령 관련 인터뷰에 참여 (연합뉴스, YTN)

- 2, 5, 7, 9, 10월 유산유도제 도입 및 재생산권 관련 토론회 및 인터뷰 참여 (세미나 및 국회 토론회, EBS뉴스 인터뷰)
- 3~5월 지부별 회원 정책간담회 지원
- 1~5월 윤석열 탄핵집회 다수 참여
- 탄핵집회에서 만난 보건의료인들의 모임인 ‘보건의료청년학생’ 지원
- 2~8월 보건의료단체연합 주최한 회원토론회 지원
- 5월 국정기획위 및 민주당과 정책협약 등 의약품 정책간담회 관련 지원
- 7~10월 그린처방전에서 발행한 폐의약품 보고서 제작 지원
- 10월 16일 건약 활동을 소개하는 인터뷰 참여(참여연대 회지 및 오마이뉴스)
- 11월 16일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심포지엄’ 개최 지원
- 나가사키에서 개최된 원수폭금지 세계대회 사전모임 및 본행사 지원
- 6~10월 새약사새약국사업부, 약물 부작용 워크숍 오프모임 지원
- 기타 토론회 및 포럼 참여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성, 폐의약품 포럼, 이재명 의약품 정책전망)

5) 기타 중집위 사업 추진

- 3월 23일 윤석열 탄핵결정 촉구하는 ‘약사 시국선언’ 조직
- 총 5차례의 엘림포럼 행사 지원

- 4월 2일,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 살피기 위해 ‘연결된 위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진행
- 6월 20일 내란 이후 새로운 사회 시리즈 1편,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 진행
- 7월 31일 내란 이후 새로운 사회 시리즈 2편, ‘지난 6개월, 광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나’ 진행
- 10월 2일 내란 이후 새로운 사회 시리즈 3편, ‘우리가 알아야 할 이주민 건강권에 대하여’ 진행
- 12월 5일 급변하는 AI 환경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AI와 데이터센터,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진행

- 10월 25일- 26일에 경기 시흥에서 전국건약행사 지원
- 11월 12일 대한약사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약대협과 비대면진료 관련 간담회 조직
- 12월 3일 약계단체와 비대면진료법 관련 공동성명 발표 지원

4. 사업평가

- 회원관리의 기본 업무인 회비영수증 배포, 회원경조사 안내, 회원 생일선물 보내기 사업, 월별 재정보고 등을 안정적으로 진행함. 또한 작년에 새롭게 제작된 건약 로고를 활용하여 수건 및 우산을 굿즈로 제작하였고, 전국건약행사에서 모루철사로 로고 키링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회원들에게 건약 로고를 소개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함.
- 올해 4월 건약 활동을 사람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X(구. 트위터)를 추가로 개설하였음. 기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운영도 활발하게 하고 있음. 다만 탄핵정국에 업무 과부화로 카톡채널을 이용한 뉴스레터 발송을 약 2~3개월간 발송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 기존 약대생 사업이 1회성으로 그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보완하기 위해 약대생과 지속적으로 접점을 만드는 모임을 진행함. 새약사새약국사업부와 함께 기후·환경 약대생 연합동아리 ‘그린처방전’을, 정책부와 함께 ‘의약품접근권연구팀 모임’을 운영하였음. 본래 계획은 2명의 사무실 상근자가 함께 운영하여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하려 했으나 아쉽게도 1명의 상근자가 중간에 그만둠에 따라 기존 계획보다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지 못함.
- 그 외에 2월에 약대생 대상 ‘2025 약사다’, 신입 약사들 대상으로 ‘건약이음’ 및 ‘약물부작용워크숍’을 진행함. 그리고 일본 원수폭금지 세계대회를 신입회원들과 약대생들이 함께 참여함. 신입 약사들의 조직화를 위해 진행한 ‘건약이음’은 아쉽게도 많은 참여자를 조직하지 못했으며, 추가적인 모임 조직도 달성하지 못함. 약사고시 이후 이미 진로를 결정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과 시험 이후 여행을 간 사람들이 많다는 점 등이 참여자 조직에 실패한 요인으로 파악함.
- 책읽기 모임은 회원 5명이 함께 정기적을 운영하였으며, 총 4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을 진행함. 다만 8월 이후 후속모임을 진행하고 있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기후 책읽기모임은 신입회원 2명이 20주간 매주 월요일 지속적으로 모임에 참여했으나 이후 후속 모임을 운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 올해 5차례 엘림포럼을 준비하였음. 엘림포럼 주제로 국제정세, 차별금지법, 탄핵집회, 이주민 건강권, AI와 데이터센터를 다루었음. 특히 7월에 진행한 포럼은 탄핵집회에 참여한 회원들의 토크쇼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음. 다만 시의성 있는 주제로 기획된 좋은 내용의 포럼을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평

가됨.

- 매달 돌아가면서 회원들이 추천한 영화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영화 톨아보기’를 진행함. 각자 회원들의 관심 주제에 따라 다채로운 영화에 토론할 수 있었음. 하지만 회원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며, 발제에 참여한 회원들이 후속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적었음. 온라인이라는 모임의 특성상 친목을 도모하기 어려웠으며, 영화를 보고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이 참여가 제한적이었을 거라 생각됨.
- 올해 전국건약행사는 서경지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에서 경기도 시흥에서 진행됨. 하지만 타 행사와 일정이 겹치고, 건강상의 이유로 많은 회원들이 당일 참여하지 못하였음. 그리고 근처 관광명소 등을 탐색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됨. 다만 약대생의 폐의약품 보고서 발표회와 운동회에는 좋은 평가가 많았음. 다음 행사는 보다 많은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함.
- 총괄평가: 사무국은 초기 2명의 상근자를 바탕으로 여러 조직사업과 활동사업을 기대하였음. 하지만, 탄핵정국이 길어지고 1명의 상근자가 그만둠으로써 기대보다 다채로운 조직사업을 운영하지 못하였음. 하지만, 탄핵집회 등을 통해 건약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참여한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건약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과 약대생과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다 깊이있는 관계를 형성하였음. 또한 약사 시국선언 및 공동 성명등을 조직함으로써 타 약계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향후 건약이 품절약이나 비대면진료 문제, 폐의약품 관리 등의 이슈화를 통해 약대생 및 약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첨부1) < 2025 전국건약행사 평가 설문 결과 >

1.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 responses

1 매우 만족합니다	90%	18 responses
2 조금 만족합니다	10%	2 responses
3 보통입니다	0%	No responses yet
4 조금 불만족합니다	0%	No responses yet
5 매우 불만족 합니다.	0%	No responses yet

2. 이번 행사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3개 이하)

20 responses

1 행사 위치와 시기, 날씨	20%	4 responses
2 행사 음식	10%	2 responses
3 숙소 및 프로그램 진행장소	25%	5 responses
4 토요일 경품 추첨과 게임	55%	11 responses
5 그린처방전 약대생들과 함께 한 폐의약품 보고서 발표회	70%	14 responses
6 회원 및 회원가족들과 함께 한 명랑운동회	75%	15 responses

3. 이번 행사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3개 이하)

20 responses

1 행사 위치와 시기, 날씨	45%	9 responses
2 행사 음식	15%	3 responses
3 숙소 및 프로그램 진행장소	15%	3 responses
4 토요일 경품 추천과 게임	5%	1 responses
5 그린처방전 약대생들과 함께 한 폐의약품 보고 서 발표회	0%	No responses yet
6 회원 및 회원가족들과 함께 한 명랑운동회	0%	No responses yet
7 Other	40%	8 responses

4. 다음 전건약 행사에 참여할 생각인가요?

	투표수	비중
없음	1	5%
있음	3	15%
매우 있음	16	80%

6. 다른 건약 회원들에게 추천할 생각 있는지(10점만점)

	투표수	비중
7 점	1	5%
8 점	2	10%
9 점	5	25%
10 점	12	60%

5. 전국건약행사에서 더 보완했으면 하는 점을 알려주세요(선택사항).

9 responses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행사 때 한사람씩 일어나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는 노래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주변 관광지나 역사 유물 탐방 같은 것도 같이 하면 어떨지요?^^

없습니다.
숙소, 프로그램, 식사, 위치 모두 좋았어요.

회원 가족도 배려한 게임및 장소(토요일)
학생들에겐 다소 불편해보이는 공간이었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부족

내성적인 성격의 회원은 아는 회원 옆에만 있게 되는거 같아요. 모르는 사람끼리 섞어서 알아나갈수 있는 자리, 그리고
지부별 같은 활동을 하는 팀끼리 묶어서 이야기나누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거 같아요.

없습니다

2025년 연대사업 사업평가

I. 활동보고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논평·기자회견

- [보건의료인 1653인 선언] 민주주의와 생명을 짓밟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_04.02
- [논평] 윤석열 파면은 몸 던져 민주주의를 지킨 민중의 승리 _04.04
- [논평] 윤석열 식 가짜 ‘의료개혁’의 완전한 파산 _04.23
- [성명] 대법원의 정치개입 규탄한다 _05.08
- [성명] 테러국가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중단하라 _06.19
- [논평] 복지부, 식약처 장관관 인선에 대한 논평 _06.30
- [성명] 이스라엘은 해초 활동가와, 의료진을 포함한 수무드 선단의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_10.09
- [성명]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계엄 1년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_12.03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논평·기자회견

- [성명] 쿠데타범죄자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정책 실행 계획 모두 폐기하라 _01.16
- [논평] 정부의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발표에 부쳐 _03.10
- [성명]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재구속하라 _03.11
- [성명]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의 정책을 발표하려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강력 규탄한다 _03.19
- [성명] 쿠데타 범죄 윤석열 정권의 거짓 의료개혁은 폐기되어야 한다 _03.21
- [성명] 윤석열 파면! 우리 운동의 승리다! _04.04
- [성명] 갈라치기·혐오 선동 극우 정치인 이준석의 엉터리 건강보험 공약 _05.27
- [보도자료]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의료기술의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_06.02
- [논평]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에 대한 입장 _08.21
- [논평] 공공의료 예산은 절감, AI·바이오헬스·제약산업 지원 예산은 평평 _09.03
- [기자회견] 민간 영리 플랫폼 금지 없는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한다 _09.11

- [기자회견] 건강보험 국고지원 대폭확대는 건강보험 강화의 출발 _09.16
- [성명] 건보공단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선 안된다 _09.30
- [성명] 의료대란 종식, 이제 근거 없고 부작용만 양산한 영리 앱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_10.21
- [보도자료] 영리기업 진료 플랫폼 법제화는 의료민영화 _10.27
- [성명] 성급한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에 앞서, 정부는 그간의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부터 내놓아야 한다 _11.07
- [성명] 의료민영화인 원격의료 법제화 의료법 개악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강력히 규탄한다 _11.19
- [성명] 건강보험원칙을 무너뜨리는 약가 비밀주의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_11.25
- [기자회견] 원격의료 법제화 본회의 통과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_11.27
- [성명] 약가제도 개선방안, 국민 건강권과 건보재정은 제약산업 재편의 그림자인가 _11.28
- [성명] 의료민영화법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_12.04
- [성명]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을 위한 ‘닥터나우방지법’ 입법훼방을 중단하라 _12.11
-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닥터나우 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_12.16
- [성명] 건정심은 ‘애엽추출물’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급여유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_12.23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성명·논평·기자회견

- [성명] 부천에는 공공병원이 꼭 필요하다! 절박한 부천 시민들의 농성 투쟁을 지지한다 _04.17
- [기자회견] 내란잔당언론 조선일보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거짓보도 중단하라 _04.28
- [논평] 법원에 건강권과 공중보건을 위한 책임있는 판결을 촉구한다 _05.13
- [성명] 성남시의료원 진실 왜곡, 공공의료 파괴 개혁신당 이준석 규탄 _05.21
- [논평] 지역의료 살리지 못할 ‘필수의료’ 법안 통과 유감이다. 국가책임 ‘공공의료’ 강화 분명히 하라! _10.15

| 기후정의동맹&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논평·기자회견

- [성명] 윤석열 몰아낸 광장의 힘으로 기후정의의 봄을 피워내자 _04.05
- [포럼 개최] 2025 기후정의포럼 _07.05

[집회] 927 기후정의행진 _09.27

[성명]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_11.26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성명·논평·기자회견

[기자회견] ‘임신중지 권리보장, 3년전엔 약속이었고 지금은 침묵이다 _05.22

[성명] 권리보장을 위한 진전,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의결을 요구한다 _07.25

[기자회견]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산유도제 도입, 하루 빨리 모두에게! _09.23

[성명] 6년간의 방관과 태업, 이제는 끝내야 한다 _10.23

[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 _12.22

| 기타

[공동성명]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시도다 _02.06

[보건의료인 1653인 선언] 민주주의와 생명을 짓밟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_04.02

[공동성명] 공공병상 확충 없는 병상수급정책은 지역의료 붕괴를 방치하는 국민 기만이다 _04.11

[공동성명]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날치기 통과 시도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_04.28

[공동기자회견] 보건의료대선정책 요구안 발표 (노인 어린이 의료비 국가보장 등) _05.08

[공동결의대회] 빈곤층 의료비 인상, 의료시장화 시도를 중단하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 강화하라 _05.22

[공동논평] 보건의료 공약 논평 _05.29

[공동논평] 이번 WHO팬데믹 협정채택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의 최소한 조치다 _06.02

[공동기자회견] 내란정권의 대표 복지 후퇴정책,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전면 철회하라! _06.11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비인도적 이민정책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_06.11

[보건의료계 선언] 생사를 건 해고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이제 소년공 이재명의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_06.20

[공동기자회견] 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STOP the ATTACKS ON IRAN! _06.23

[공동기자회견]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이 추진하던 의료민영화.산업화 정책을 모두 폐기하라!

_07.03

[공동의견서] 빈곤층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_07.17

[보건의료인 선언] “가자지구에 폭탄이 아니라 식량을”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라!”

_07.29

[공동성명] 고물가, 저임금, 생계위기에 서민 건강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_08.28

[출범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는 유급병가 법제화와 제대로된 상병수당 도입을 통해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_09.09

[공동성명] 공공의료와 지역医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_09.15

[공동기자간담회]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 _09.18

[공동성명] 정률제 개악의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복지부의 의료급여 포럼을 규탄한다! _10.22

[공동성명] 비대면 진료 영리 플랫폼에 대한 규정은 의료법 외 별도 규제법령 필요 _11.12

[공동성명]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법안 반대한다 _12.02

[공동성명] 국회는 ‘플랫폼 도매상 운영금지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_12.03

[공동성명] 의료급여 보장성 후퇴 ‘본인부담 차등제’ 끼워 넣은 복지부를 규탄한다 _12.10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연)

II. 2025년 연대사업 평가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약이 보건의료 의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고 활동하는 핵심 연대체이다. 2025년은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의 의료부스 조직과 “탄핵집회 참여하는 보건의료청년학생 모임” 운영, “이재명 정부 하의 의료 민영화 저지” 라는 큰 과제를 함께 수행하였다.

상반기 윤석열 정권의 내란사태에 맞서 민주주의 회복과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투쟁은 현재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새 정부가 추진한 ▲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및 영리플랫폼 허용 시도(닥터나우 방지법 입법 촉구), ▲ 바이오헬스/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등 ‘제2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또한 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부천 공공병원 설립 촉구, 성남시의료원 위탁 반대 등 지역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도 연대했다. 향후 새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감시하고 제동을 거는 연대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안동 산불 피해 주민과 연대)

건약은 2019년부터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건강권의 문제임을 인식하며 꾸준히 연대하고 있다. 2025년은 격변하는 정치상황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후퇴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올해 약대생 연합동아리인 ‘그린처방전’ 2기 모임을 운영하면서 예비 약사들에게 폐의약품 문제를 다룬 보고서 발간과 산불피해지역 연대 방문, 새만금 신공항 문제에 대한 다류 시청하기를 진행하였으며, 회원 6인이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기후책임기 모임을 참여하며 20주 간 환경 활동가들과 소통하고, 건약의 환경 이슈를 알리는 등 실천을 조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건약에서 다른 분야 의제들이 우선되면서 관련 긴밀한 연대활동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폐의약품 문제, 제약회사와 병원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문제 등 보건의료 특화 기후의제를 발굴하여 기후운동 내에서의 역할을 더욱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로 임신중지 권리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대하여 활동하였다. 특히 올해 대선시기에 이재명 후보가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공약이 후퇴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정권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올해에도 많은 연대활동을 전개했다.

상반기에는 ‘내란법들은 가고 임신중지권리 보장 오라’는 구호 아래 퇴진 집회에서 재생산권 확보의 계기로 삼고자 했으며, 하반기에는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는 논평과 성명을 배포하고 각종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식약처와 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했다. 내년에도 유산유도제 도입을 둘러싼 의약품 접근권 문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한 임신중지권 접근성 확대가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속적인 연대활동 조직이 필요하다.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이재명 정부로 교체되면서 의약품을 둘러싼 정부의 산업육성 기조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관련하여 건약은 연대단체들과 함께 이중약가제의 폐해와 팬데믹 협정의 중요성, 의약품 독점권에 대항하는 외국의 운동들을 살펴보고 대응을 모색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향후 품질약에 대한 정부정책과, 국내 장기지속형 에이즈치료제 도입 등 접근권 이슈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및 HIV 관련 인권단체와 연대하는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앞으로 의약품 공공성과 국제연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같이내는 연대단체 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이 해를 넘겨 지속되고 전선이 시리아 등으로 확대되는 위기 상황에서 국제 연대를 위한 활동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인으로서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현지 의료 시스템과 부족한 의료물자에 대해 규탄하며, 공격중단과 인도적 지원(식량 및 의약품 반입)을 촉구하는 서명과 기자회견에 결합했습니다.

또한 최근 극우적 정치세력의 준동과 반외국인 정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으로 이주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해 살펴보면, 향후 정책적 문제와 연대방안을 살펴보는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반핵평화운동 및 동두천 평화운동 시민단체와의 연대

건약은 매년 일본 민의련 초청으로 일본에서 개최되는 원수폭금지 세계대회에 참여하였다. 특히 올해는 원폭투하 80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국제적 관심이 높았다. 건약은 원수폭금지 세계대회 참여를 위해 관련 의제들을 학습하면서 국내 원폭피해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운동에 대해 알게되었고, 또한 일본 민의련이 지역의 반전평화 운동과 연대하는 활동에 감명을 받아 일본 방문 이후에도 반핵반적 평화운동에 연대하는 활동을 지속했다.

뿐만 아니라 건약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 동두천의 평화운동과 성병관리소 철거를 둘러싼 사회 운동을 알게되었고, 건약 송년회 명목으로 회원들과 동두천을 방문하여 미국 공여지 반환운동, 윤금씨 사건 등 동두천에서 진행된 평화운동에 대해 연대하게 되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러시아 침략전쟁, 중국의 대만위협 등 다극화된 세계에서 국제 분쟁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건약은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올해 진행한 연대활동을 계기로 평화운동 연대사업을 조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 자료

2025년 재정 보고

I. 수입결산

1. 2025년 세입 결산 (단위: 원)

내역	수입예산	수입결산	집행율(%)
1. 전년이월금		32,988,972	
2. 회비	95,748,000	97,013,000	101.3
서경지부 자동이체	480,000	440,000	91.7
서경지부 CMS	58,800,000	59,985,000	102.0
광전지부	14,880,000	14,880,000	100.0
대경지부	6,528,000	6,528,000	100.0
대충지부	4,200,000	4,225,000	100.6
울산지부	8,280,000	8,280,000	100.0
부경지부	2,580,000	2,675,000	103.7
3. 기타 이자 등	1,236,000	54,125,077	4379.1
적립금 만기 및 이자	36,000	19,553	54.3
기타	1,200,000	54,105,524	4,508.8
4. 모금	1,200,000	0	-
소계 (2+3+4)	98,184,000	151,138,077	153.9
계 (1+2+3+4)		184,127,049	

2. 2025년 월별 수입내역 (단위: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합계	월평균	비율(%)
1. 회비	8,269,000	7,988,000	8,059,000	7,913,000	8,207,000	8,216,000	8,085,000	8,245,000	8,083,000	7,697,000	8,089,000	8,162,000	97,013,000	8,084,417	100.0
서경자동이체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40,000	36,667	0.5
서경CMS	5,140,000	4,959,000	4,970,000	4,854,000	5,153,000	5,117,000	5,046,000	5,046,000	4,989,000	4,703,000	4,985,000	5,023,000	59,985,000	4,998,750	61.8
광전	1,240,000	1,240,000	1,240,000	1,240,000	1,240,000	1,240,000	1,240,000	1,240,000	1,240,000	1,240,000	1,240,000	1,240,000	14,880,000	1,240,000	15.3
대경	544,000	544,000	544,000	544,000	544,000	544,000	544,000	544,000	544,000	544,000	544,000	544,000	6,528,000	544,000	6.7
대세충	380,000	320,000	380,000	350,000	320,000	380,000	320,000	380,000	350,000	315,000	385,000	345,000	4,225,000	352,083	4.4
울산	690,000	690,000	690,000	690,000	690,000	690,000	690,000	690,000	690,000	690,000	690,000	690,000	8,280,000	690,000	8.5
부경	235,000	195,000	195,000	195,000	220,000	205,000	205,000	305,000	230,000	205,000	205,000	280,000	2,675,000	222,917	2.8
2. 기타	962,800	74,149	814,500	80,000	20,960,000	758,823	4,379,400	10,155,824	152,882	14,279,000	1,350,000	157,699	54,125,077	4,510,423	
이자		149				8,823			2,882			7,699	19,553	1,629	
기타	962,800	74,000	814,500	80,000	20,960,000	750,000	4,379,400	10,155,824	150,000	14,279,000	1,350,000	150,000	54,105,524	4,508,794	
3. 모금													0	-	
합계	9,231,800	8,062,149	8,873,500	7,993,000	29,167,000	8,974,823	12,464,400	18,400,824	8,235,882	21,976,000	9,439,000	8,319,699	151,138,077	12,594,840	100

* 기타수입내역: 5월 원수폭 참가비 2087만원/ 8, 10월 건강공동체기금 이자 2000만원/ 5월 광전소모임 등 특별회비 약 700만원/ 10월 건약 굿즈 등 판매 약 450만원/
기타 행사참가비 180만원

II. 세출결산

1. 2025년 세출 결산 (단위: 원)

내역	지출 예산	지출 결산	집행율(%)
1. 관리 운영비	118,116,000	100,567,219	85.1
인건비	90,204,000	77,800,000	86.2
상근자활동비	1,800,000	1,727,885	96.0
임대,관리비	4,740,000	4,740,000	100.0
사무용품비	180,000	69,390	38.6
비품비	960,000	821,600	85.6
홈페이지,MRM관리	972,000	977,550	100.6
우편통신비	660,000	507,660	76.9
4대보험	10,800,000	6,660,634	61.7
퇴직금적립	7,680,000	7,200,000	93.8
기타	120,000	62,500	52.1
2. 제반 수수료	1,200,000	1,185,800	98.8
3. 조직 활동비	8,400,000	9,773,050	116.3
회의비	3,600,000	2,981,500	82.8
경조사	600,000	603,000	100.5
기타(회원선물 등)	4,200,000	6,188,550	147.3
4. 사업행사비	15,000,000	36,041,130	240.3
5. 네트워크사업비	1,560,000	889,008	57.0
회지 발행	1,200,000	53,550	4.5
자료구입 및 구독료	360,000	835,458	232.1
6. 연대 사업비	8,556,000	10,496,000	122.7
정기분담금	7,356,000	7,646,000	103.9
기타연대	1,200,000	2,850,000	237.5
7. 모금지출	1,200,000	0	0.0
8. 예비비			
계	154,032,000	158,952,207	103.2
차기이월금		25,174,842	

2. 2025년 월별 지출내역 (단위: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합계	월평균	비중(%)
관리운영비	5,639,630	5,695,235	10,050,925	9,524,880	10,164,225	9,801,010	9,751,740	9,706,364	13,661,839	4,794,964	6,025,843	5,750,564	100,567,219	8,380,602	63.3
인건비	4,100,000	4,100,000	7,700,000	7,834,580	7,734,580	7,734,580	7,734,580	7,734,580	10,827,100	4,100,000	4,100,000	4,100,000	77,800,000	6,483,333	48.9
상근자활동비	43,000	90,800	603,900	119,700	292,385	124,000	70,600	98,600	89,100	22,500	113,100	60,200	1,727,885	143,990	1.1
임대,관리비	395,000	395,000	395,000	395,000	395,000	395,000	395,000	395,000	395,000	395,000	395,000	395,000	4,740,000	395,000	3.0
사무용품비	1,500	9,500			6,900							51,490	69,390	5,783	0.0
비품비			255,800						180,000		385,800		821,600	68,467	0.5
홈피,MRM관리	81,600	81,325	80,775	84,900	82,700	82,150	80,500	80,500	141,275	20,000	80,775	81,050	977,550	81,463	0.6
우편통신비	42,250	42,330	39,170	49,000	36,940	36,940	45,640	36,770	19,680	82,380	40,530	36,030	507,660	42,305	0.3
4대보험	376,280	376,280	376,280	376,280	1,015,720	697,500	697,500	688,644	1,802,204	(424,916)	311,438	367,424	6,660,634	555,053	4.2
퇴직금적립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7,200,000	368,877	2.8
기타				65,420		130,840	127,920	72,270	(392,520)		-800	59,370	62,500	5,208	0.0
수수료	96,200	95,360	97,200	96,280	99,900	98,900	101,820	104,220	102,440	93,680	101,580	98,220	1,185,800	98,817	0.7
행사비	(893,709)	9,383,199	452,460	3,720	14,573,340	4,700,000	1,496,966	6,692,093	909,840	4,458,830	1,744,265	(7,479,874)	36,041,130	3,003,428	22.7
네트워크사업비	536,458	0	0	0	352,550	0	0	0	0	0	0	0	889,008	74,084	0.6
회지발행					53,550								53,550	4,463	0.0
자료구입 및 구독	536,458				299,000								835,458	69,622	0.5256
조직활동비	966,700	3,290,270	200,200	0	264,600	350,000	0	1,200,000	3,168,280	0	333,000	0	9,773,050	814,421	6.1
회의비	966,700		200,200		264,600	350,000		1,200,000			333,000		2,981,500	248,458	1.9
경조사									270,000				603,000	50,250	0.4
기타(회원선물)		3,290,270							2,898,280				6,188,550	515,713	3.9
연대사업	613,000	1,713,000	813,000	613,000	663,000	913,000	813,000	971,000	871,000	671,000	671,000	1,171,000	10,496,000	874,667	6.6
정기분담금	613,000	613,000	613,000	613,000	613,000	613,000	613,000	671,000	671,000	671,000	671,000	671,000	7,646,000	637,167	4.8
기타연대		1,100,000	200,000		50,000	300,000	200,000	300,000	200,000			500,000	2,850,000	237,500	1.8
모금													0	0	
합계	6,958,279	20,177,064	11,613,785	10,237,880	26,117,615	15,862,910	12,163,526	18,673,677	18,713,399	10,018,474	8,875,688	-460,090	158,952,207	13,246,017	100

* 지출 내역 설명: 1월 행사비-(약고모)탄핵집행비용 약 220만원 정산포함 / 9월 기타- 근로소득세정산/ 10월 4대보험: 정산 / 12월 행사비: 원수폭대회 정산

Ⅲ. 자산 보고

1. 2025년 결산 통장 잔고 내역 (단위: 원)

은행명	잔액	비고
국민은행 (건약)	311,890	자동이체 회비 입금
국민은행 (홍춘택)	354	자동이체 회비 입금
약사신탁 (출자금)	22,466	출자금 통장
약사신탁 (입출금)	1,437,009	입출금 통장
하나은행 (건약)	23,403,123	CMS 및 지출 전용(주거래)
계	25,174,842	차기이월금

2. 30주년 기금 [정기예탁금 통장(26년 1월 17일 만기)]

145,539,551 원 (원금 134,152,087원/ 누적 이자 11,387,464원)

3. 공동체약국 기금

111,941,578 원 (원금 75,575,867원/ 누적 이자 36,365,711원)

4. 사무실 전세금

37,000,000 원

5. 총 자산 (1+2+3+4)

319,655,971 원

* 참고: 상근 활동가 퇴직금 정립액 34,811,815원

상근활동가 퇴직금		
약사신탁(예탁금)	23,326,550	정기예탁금 통장(26년 4월 일 만기)]
약사신탁(예탁금)	4,285,265	정기예탁금 통장(24년 2월 4일 만기)]
약사신탁(정기적금)	7,200,000	정기예탁금 통장(24년 2월 3일 만기)]
합계	34,811,815	

IV. 2025년 재정 운영 보고

1. 수입

- 2025년 수입 총액은 약 1억 5,110만원입니다. 회비수입 약 9,700만원, 기타 수입 약 5,410만원입니다.
- 전년 대비 회비 수입이 약 7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기타 수입 약 5,410만원 중 피폭 80년 세계 원수폭금대대회 참가비 등 약 2,087만원, 건강공동체기금의 이자액 일반재정 편입금액 2,000만원, 특별회비(목포분회, 광전 소모임, 전경림, 한송희, 강봉주, 임종철) 약 700만원, 건약 굿즈 및 식후책 판매 약 450만원(굿즈 제작비 약 320만원), 전건약행사, 워크샵, 심포지엄 등 행사 참가비 약 180만원입니다.

2. 지출

- 2025년 지출총액은 약 1억 5,900만원입니다. 관리운영비 약 1억 57만원, 수수료 약 119만원, 조직활동비 약 977만원, 사업행사비 약 3,604만원, 네트워크사업비 약 89만원, 연대사업비 약 1,050만원입니다.
- 인건비: 회원 풀상근 1인 및 약 7개월(3-9월) 회원 풀상근 인건비로 약 7,78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 상근활동가 퇴직금 적립으로 72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 조직활동비: 부서회의비로 약 300만원, 경조사비용으로 약 60만원, 회원선물비로 3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건약굿즈(자석, 우산, 수건 등)제작에 약 319만원 지출하였습니다.
- 사업행사비:
 - 1) 8월 피폭 80년 세계 원수폭금지대회 참가로 약 2,403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참가비 등으로 약 2,087만원 기타수입으로, 실제 지출액은 약 316만원입니다. 민의련 미수령금액 120만원 고려하면 지출액은 약 196만원입니다.
 - 2) 총회비용으로 약 136만원(25년 118만원, 26년 18만원), 전건약행사비용으로 554만원 지출했습니다. 전건약행사 참가비로 120만원, 굿즈판매비용 약 450만원(총회 94만원, 전건약행사 273만원, 기타 약 80만원)이었습니다. 실제 지출액은 약 120만원입니다.

- 3) 학생사업(그린처방전 및 의약품접근권팀)비용으로 약 520만원 지출했습니다. 2기 그린처방전 약 330만원, 의약품접근권팀 약 190만원 지출했습니다.
- 네트워크사업비: 회지발행 및 자료 구입 및 구독료로 약 89만원 지출했습니다.
 - 연대사업비: 정기분담금(보건연, 나누리플러스)으로 약 76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비정기연대사업비로 28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3. 결산

- 2025년 총 수입은 약 1억 5,114만 원, 총 지출은 약 1억 5,895만 원으로 당해 적자 약 **781만원**입니다. 당해 건강공동체 이자액 2,000만 원을 건약 일반 재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적자액은 2,781만 원입니다.
- 30주년 기금 잔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45,539,551 원**입니다. 약사신흥 정기예금 중이며, 만기가 2026년 1월 17일에 도래하며 다시 정기예금화 할 예정입니다.
- 건강공동체 기금은 2026년 1월 3일 기준으로 대출원금(신흥근) 75,575,867원입니다. 2025년 이자 3,602,424 원으로 2026년 1월 3일 기준으로 이자통장 잔액은 36,365,711 원(신흥 리병도)입니다. 총 건강공동체 기금(대출원금+이자)액은 **111,941,578원**입니다.
- 2026년 1월 3일 기준 기금(30주년 기금+건강공동체기금) 및 전세금 합계액은 **294,481,129원**입니다.
- 총 자산액은 **319,655,971원**(익월 이월금+ 30주년 기금 + 건강공동체기금 +사무실 전세금) 입니다.

보고 자료

2025년 17기 2차년도 감사 보고

I. 사업 감사 보고서

18기 2차년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업내용 및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총회에서 인준한 사업목표에 맞는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여 보고합니다.

1. 18기 건약은 1기에 이어 [“다양하게 질문하고 실천”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 가자]라는 슬로건 아래, 건약아카데미, 엘림포럼 등으로 회원간 소통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보건의료관련 단체와 약사관련단체 등과 연대활동, 시기 적절한 논평, 보도자료, 정책제안 등 다양한 기고활동과 ‘건약 뉴스레터’ 발행 등을 꾸준히 진행하여 대내외적으로 건약의 정체성과 위상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2. 의약품 정책부는 효과 없는 의약품 발굴, <그 약이 알고 싶다>기고와 정책제안, 의약품부작용주의보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의약품관련 주제를 이슈화하였고, 건약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였다는 평가에 동의합니다. 의약품 접근권 연구모임의 심포지움과 지부맞춤 정책토론회는 의약품 정책부의 결과물을 회원과 함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3. 새약국새약사사업부의 그린처방전 활동 등 미래 약사와 신입약사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의약품과 약국의 공공성 연구, 부작용평가 워크숍과 캠페인 등의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향후 책읽기모임, 영화툰아보기 등 다양한 활동에 회원들의 참여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4. 사무국은 재정·회원관리, 행사준비와 홍보업무, 신입회원·약대생과 교류, 전건약 행사와 송년모임 등 많은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 계정이 잘 관리되고 있어서 건약의 활동방향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 향후 서울/수도권 회원들의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사무국의 인력확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18기를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신 전경림회장님과 활동회원님들, 각 지부 회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26년 1월 18일 감사 김선영 드림

II. 회계 감사 보고서

건약18기_2차년도 2025년 감사보고서

2026년 1월 15일 감사 하성주

2025년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 월별 보고서, 통장 등 일반회계, 건강공동체기금, 30주년 기금, 사무실전세보증금, 총자산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직은 물처럼 흘러야 건강해집니다. 정체되면 썩고, 흐르면 살아납니다. 오랜 기간 감사를 맡아온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1. 일반회계

2025년 수입액은 151,138,077원, 지출액은 158,952,207원으로 당해적자 7,814,130원입니다. (건강공동체 기금 중 이자수입금 2,000만원을 건약 일반재정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적자액은 27,814,13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2,988,972원으로 2026년 이월금은 25,174,842원입니다.

2. 건강공동체 기금: 111,941,578원

2025년 1월 총회에서 이자의 일반재정 편입 의결 이후, 기금의 이자액(52,763,287원_2025년 1월 2일 기준) 중 2,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사용했습니다.

2025년 이자로 3,602,424원 발생하였습니다.

* 참고: 원금 75,575,867원(신형근) + 누적이자 36,365,711원(이병도 관리)

3. 30주년 기금: 145,539,551원

2025년도 정기예금 만기이자로 4,773,954원 발생했습니다.

위 금액(145,539,551원)은 약사신탁 정기예금 중이며, 2026년 1월 17일 만기입니다.

* 참고: 원금 134,152,087원 + 누적이자 11,387,464원

4. 사무실 전세보증금: 37,000,000원

5. 총자산: 319,655,971원

이월금 25,174,842원 + 건강공동체 기금 111,941,578원 + 30주년 기금 145,539,551원 + 사무실 전세보증금 37,000,000원

- * 특별회비를 많이 내어 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 상근활동가 퇴직금 모금에 동참하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 전경립대표님을 비롯한 지방에서 중앙회의 등에 참여하시고 회의비도 받지 않으시고 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1. 특별회비: 1,396만원(18기-2024년, 2025년)

- ① 2024년: 5월 윤영철(100만원), 7월 유경숙(100만원), 오정아(500만원)
- ② 2025년: 6월 목포분회(36만원), 7월 광전소모임(400만원), 10월 강봉주(100만원), 임종철(30만원), 전경립(60만원), 한송희(70만원)

2. 상근활동가 퇴직금 모금(38명) : 2,260만원

강경연, 강봉주, 김찬임, 국승철, 김대정, 김선영, 김현주, 김희선, 백광남, 목포건약회원모금, 박기호, 박남운, 박미란, 소정환, 양현주, 오송희, 오한석, 원남숙, 유용훈, 윤선희, 윤승천, 이경훈, 이권의, 이규화, 이모세, 이상호, 이성미, 임영상, 임익근, 임종철, 정동만, 최인순, 하성주, 한송희, 한희용, 현수미, 황재영, 황해평

*** 건약의 발전 방안 3가지를 제안합니다.

1. 건약의 법인화
2. 건물(사무실) 확보
3. 제약·도매회사 설립

건약은 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해 왔지만, 정작 우리 조직은 아직 공적 조직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원 대부분은 수억 원대의 주거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의 사무실은 여전히 단칸방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해 줄 약국은 충분히 있는데, 정작 우리가 만들고 유통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사당동·서초동 시절, 신호제약, 한국약품을 인수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건강공동체가 더 발전하였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된다', '비용이 어디 있느냐', '아직 시기상조다'. 하지 않으려면 못할 이유는 언제나 충분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사회는 민주화되고 산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약은 오늘날 민주정부 아래에서도 정부 부처 관계자나 누구를 만날 때마다 '법인의 누구냐, 개인의 누구냐'라는 차이 앞에 서 있습니다. 가야 할 방향이 옳다면, 당장의 부담을 이유로 미루기보다 멀리 보고 초석을 놓아야 합니다. 그 위에서만 비로소 장족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약의 사단법인화>

1. 왜 사단법인화가 필요한가

사단법인은 단순한 “형식 변경” 이 아니라 조직의 성격과 책임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사단법인화의 핵심 효과는:

- 법적 인격 확보
- 공공성 강화 (대외 신뢰도 상승)
- 지속 가능성 확보
- 사업 확장 가능 (연구, 출판, 교육, 법인회사 설립 등)

2.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

① 조직 내부 합의 형성

법인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 즉 단순 상징이 아닌 실제 운영 주체가 될 준비.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법인 전환 원칙 승인, 추진위원회 구성 결의

② 정체성 확립

주무관청인 복지부는 ‘이 단체가 왜 공익법인이어야 하는가?’를 묻게 됩니다.

‘건약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의 공공성 강화 사업, 시민 대상 건강·약물 교육, 보건의료 정책 감시·연구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한다’고 답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해 왔습니다.

— ‘약사의 이익 단체’ 로 보이면 인가 불가하다고 하겠지요. 대약의 반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3. <법인화 TF> 구성 —법인화는 결론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전문직능인 사단법인은 의사·약사·변호사·교사 등 특정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직능의 공공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핵심은 “이익단체 ≠ 전문직능 사단법인” 이라는 점입니다.

* 분야별 대표적 전문직능 사단법인 사례

의료부문

<의사>

대한의사협회: 법정 직능 대표 기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의협): 전문직능 사단법인의 전형, 공공의료 · 인권 · 정책 비판, 의협과 대립이 아닌 역할 분화

<약사>

대한약사회: 직능 대표 · 이익 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약): 약사 전문성 + 시민 건강권, 의약품 공공성 · 정책 개입, 대약과 대립이 아닌 역할 분화

법조부문

대한변호사협회: 법정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변): 변호사 직능 기반 공익 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문직능 사단법인의 고도화 모델(상근전문가 · 재단화)

교육부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전교조는 범형식은 노조지만 ‘교사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직능 분화 조직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유사

* 전문직능 사단법인의 공통 조건 (인가 포인트)

주무관청이 보는 핵심은 5가지입니다.

1. 회원 자격의 전문성: 자격증 · 면허 기반
2. 목적의 공익성: 직능 이익 / 국민 · 사회 이익 □
3. 정치적 중립성(형식상): 정책 비판은 가능 □ / 정당 조직화는
4.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 총회 · 이사회 · 감사 · 회계
5. 기존 대표단체와의 구분: “대안 · 보완 조직”임을 명확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약사 전문직의 공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능인 사단법인’으로 보건복지부 인가 논리, 대한약사회와의 공존 논리, 시민사회에서의 정당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전문직 사회가 성숙할수록 ① 대표단체 + ② 전문직능 사단법인 + ③ 공익재단 삼층 구조로 갑니다.

안전 자료

19기 사업 계획 (안)

2026년 정세전망 & 19기 사업 기초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였다. 시민들의 저항이 없었다면 계엄을 좌절시키지도, 윤석열을 재구속시키지도, 새 정부가 출범하지 못했을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헌법재판관들의 결정만 남았던 그 순간에도 시민들의 저항이 없었다면 명명백백한 파면의 사유에도 파면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끔찍한 생각이 든다. 건약도 계엄에서 파면까지 123일. 하루도 빠짐없이 광장에서 함께 찬바람을 맞았다.

광장에서는 윤석열 파면,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수호뿐 아니라 혐오와 차별금지, 소수자의 권리 보장, 기후정의 실현, 사회적 돌봄과 복지 강화, 노동권 향상과 안전한 사회 실현, 교육 개혁, 의료민영화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윤석열 퇴진은 파면에 그쳐서는 안 되며 퇴진 투쟁이 사회 변화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지난 2016년에 타올랐던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퇴진과 정권을 교체하였지만 소위 진보정권하에서 광장의 요구인 적폐 청산과 현장에서의 민주주의를 확대시키지 못하고, 운동의 동력이 떨어지거나 위기를 맞은 경험에 있다.

광장은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동력이다. 건약 19기는 광장에서 제기된 사회대개혁 요구를 분석, 수용하고, 사업 과제로 구체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광장의 요구는 건약의 조직적 실천을 통해 정책 제안, 연대 활동 등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러한 실천의 성과와 한계는 다시 사회적 논의의 장 속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운동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에 실질적인 압력을 형성하고 개혁을 추동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 지연되는 내란 청산,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산업 재편에 따른 불평등과 기후위기, 보건의료 민영화 추진 등 우리를 둘러싼 조건들은 녹록지 않다.

우리를 둘러싼 위기들

1) 한반도 주변의 연결된 위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는 냉전 체제 속에서 군사적 대결을 관리하며 전면전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억제 질서는 점차 균열을 드러내고 있으며, 2022년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지역 분쟁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기존 세계질서 해체의 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전쟁은 강대국 간 무력 충돌이 다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었음을 보여주며, 전쟁 억제와 안정이라는 냉전 이후 질서의 기본 전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지난 12월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이러한 변화된 국제 환경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 NSS는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국제질서가 다극화되는 현실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비 개입주의와 ‘America First’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국 국경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동시에 동맹국들에게는 방위비 분담의 대폭 증액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안보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국방비 증액을 요구와 함께 중국의 군사적·전략적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선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의 일방적 지위 변경이나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경제 영역에서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상호성, 공정성을 강조하며 제한적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접근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대만 유사(有事)’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중·일 간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대만 역시 중국 전제를 목적으로 미국·영국·호주 중심의 안보 협력체 참여 의사를 밝히며, 동아시아 전반의 군사적 대결 구도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한국은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표방하면서도, 동시에 한미동맹 강화 요구에 충실히 응해 왔다. 북한의 전술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명분으로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며, 미국으로부터 핵연료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받아내는 과정에서 ‘자주국방’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약화시키고,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통해 핵무장 논의를 정당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국방비를 2025년 대비 8.2퍼센트 증액 하였다. 군비 증강 기조는 재정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군사비 확대는 공공요금 인상과 간접세 부담 증가, 사회·보건 분야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보건의료 공공성의 약화로 귀결된다. 이러한 비용 전가는 특정 국가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군사안보를 우선하는 세계질서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는 공통된 경향이다.

이러한 구조적 경향은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트럼프는 마약 밀매선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하고 유조선을 탈취했으며, 스스로를 카리브해와 라틴아메리카의 ‘보안관’으로 자임해 왔다. 그러나 새해 3일 발생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공격과 마두로 대통령 납치는 국제법상 명백한 전쟁 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노동계급을 억압하고 부패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해 온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정권 전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군사력에 의한 질서 재편을 정당화하며,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각지에서 더욱 격렬하고 과장이 큰 군사 행동을 촉발한 위험이 증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의 군비 경쟁과 동맹 재편은 전쟁 억제가 아니라 위기의 연쇄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군사안보 중심의 세계질서는 더 이상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2) 한쪽 바퀴만으로 준비하는 AI 시대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산업을 핵심축으로 삼아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는 혁신경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 독자적 AI 생태계 조성, 차세대 AI 반도체와 AI 원천기술 선점, 최고급 AI 인재 확보를 주요 과제로 설정했으며, 나아가 ‘세계 1위 AI 정부’를 표방하며 전방위적인 AI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산업 재편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보건의료 분야 역시 이 전략의 중요한 적용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자료 검증, 안전성·유효성 평가, 제조공정 및 완제품 관리, 그리고 비대면 진료 영역과 돌봄 영역까지 AI 기술을 폭넓게 활용할 그것 밝혔다. 이는 행정 효율성 제고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으며, 의료 영역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AI 산업 확대를 위해 초대형 데이터센터 구축은 필수적이다.

엘림포럼에서 확인했듯이,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며, 부의 중앙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막대한 전력과 용수 사용은 기후위기와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며, 지역사회에 장기적인 위험을 전가한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AI 정책 논의에서 AI와 사회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실종되어 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데이터의 공공성, 알고리즘의 투명성, 책임 소재, 환자 안전과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논의하고 조정할 민주적 거버넌스는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AI 산업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에너지 소비 증가와 생태계 파괴, 지역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가 ‘신성장 동력’이라는 장밋빛 구호에 가려져 간과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AI 활용 역시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비용 절감과 시장 확대 논리에 종속될 경우, 의료의 상품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결국 현재의 AI 전략은 기술과 산업이라는 한쪽 바퀴만으로 미래를 준비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AI 시대를 지속 가능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서 환경 부담, 노동, 공공성, 건강권을 포괄하는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통제 장치가 동시에 구축되어야 한다.

3) 보건의료민영화정책추진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라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영리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등 윤석열 정부 시기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사실상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공공성 강화보다는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격의료의 의료민영화라는 시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재명 정부·여당은 원격의료 의료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법안 (닥터나우 방지법)에 제동을 걸었다. 더 개탄스러운 일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 의원들과 손잡고 약물의 과다처방 유도, 약물 오남용을 조장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플랫폼의 도매상점업 방지하는 법안을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는 지난 11월 발표된 약가정책 개편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해당 개편안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 단체와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었으며, 신약 접근성 개선이라는 명분과 달리 제약산업의 이해를 우선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약 접근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중약가제의 확대, 2026년 시행을 예고했던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의 철회, 신약의 신속 등재를 이유로 급여적정성 평가를 생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도 등재 후 재평가 및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적정성 평가 축소, 선등재 후평가는 이는 제약사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정책 과제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식에 가깝다.

이러한 정책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약가 결정 과정에서의 공공적 통제와 사회적 합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과 결합될 경우, 공적 자산이 민간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흐름은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이 실질적으로는 공공성의 후퇴와 시장 논리의 확장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돌봄 위기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된 지 오래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선거 때가 되면 돌봄에 대한 구호와 정책이 쏟아졌고,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간 많은 시민들은 돌봄 노동의 자연화, 탈가치화에 저항하며 돌봄을 사회적 문제로, 정치의 장으로 불러냈다. 돌봄은 돌보는 자와 받는 자의 이분법적 구획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서로 얽히고 회복되는 관계의 장이며,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서로를 지탱하는 ‘시민적 돌봄’ 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돌봄의 사회화는 돌봄의 의미와 돌봄 중심 사회에 대한 논의는 뒤로한 채 시장화 형태로 진행되었고, 이미 돌봄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의 민간 의존도가 심하고 상업화하여 새로운 불평등을 낳고 있다.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통합돌봄 사업은 지역 간 자원 격차가 서비스 격차로 직결되었고, 거주하는 지역의 재정력과 사회적 자원 수준에 따라 케어의 질이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될수 있다. 돌봄의 공공성 확보, , 돌봄의 유기적 통합과 당사자 참여 보장,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은 여전히 산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건약은 2022년부터 매년 “돌봄” 관련 제도와 정책, 사회적 돌봄에 대하여 고민해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동과 실천으로 충분히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약물 문제는 개인의 복약 행태에 국한되지 않으며, 고립, 빈곤, 인지 저하, 주거 불안 등 사회적 조건과 긴밀하게 얽혀 있다.

그러므로 건약은 통합돌봄체계속에서 약물 관련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지역사회 돌봄의 관계망을 구성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 18기 사업 기조 >

긴밀히 연결된 위기를 연대와 실천으로

<실천과제>

1. 의약품 공공성 확대와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자.
 - 의약품의 공공성과 접근권을 방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행위 주체와 정책에 대한 좀 더 정밀한 감시와 비판을 전개하자.
2. 권리로서의 돌봄의 의미를 확장하고, 지역사회 돌봄 관계망속에서 약사의 역할과 실천대안을 마련하자
3. 비판담론과 운동의 전망 만들기를 위한 열린 공간을 마련하자
4. 우리의 고민과 과제들을 더 단단한 연대를 바탕으로 실천하자.

< 18기 사업계획 >

1) 회원사업

- ① 서경회원들의 활동력과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신입회원들이 가입 후 활동 할수 있는 모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회원들이 조직 내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과 모임을 기획해 보고자 합니다
- ② 건약의 월별 플랜을 공지 하고 회원 참가 독려를 하고자 합니다
- ③ 전건약 행사 진행시 기획, 실행 단계에 회원들의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합니다.
- ④ 엘림포럼과 건약 아카데미를 통해 회원들이 다양한 질문을 하고 토론을 통해 인식의 확대와 운동의 전망 만들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 연대 사업

- ①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한 상시적 연대와 정세에 따른 사안별 제안이 들어오는 연대는 회원 단체 방을 통해 공유하고, 더불어 각 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대도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 ② 중앙위 등 회의나 행사에 연대의 현장 방문과 결합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③ 회원들이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의 연대 현장에 방문하여, 탄원과 서명 이상의 함께하는 연대를 이어갈수 있도록 회원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3) 학생사업

- ① 새싹(신입)회원들의 가입과 활동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약대생과 함께 할수 있는 주제 및 행사를 기획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모색 하겠습니다.

2026년 정책부 사업계획(안)

1. 의약품 이용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 구조에 대한 비판적 개입

1.1 약가제도 개편과 약가 결정 구조를 분석하고, 신약 및 제네릭 약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공공성 훼손 문제를 드러낸다.

- 간담회, 토론회로 문제 이슈화와 연대체 구성

1.2 의약품 가격과 급여 정책이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한다.

- 내부 스터디를 통한 이슈발굴과 시민 대상으로 내용 공유

2. 의약품 접근성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 강화

2.1 성과 재생산권 보장 관점에서 유산유도제(미프진) 등 필수약품의 접근성 문제를 제기한다.

- 시민단체와 연대 및 공동대응, 의약품의 허가과 급여권 진입 추적

2.2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분석하고, 공적 생산·공적 유통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한다.

- 이슈 추적 및 문제제기

3. 의약품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시민적 감시 강화

3.1 효과 없는 의약품과 근거 부족 의약품을 발굴·이슈화하여 퇴출을 요구한다.

- 의약품별 문제 추적을 통한 이슈화 및 문제제기

3.2 급여등재 이후 사후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 사후관리체계 제도 강화 주장 및 의약품 별 문제 추적

3.3 규제완화 정책과 의약품 안전관리 후퇴에 대응하며, 바이오의약품의 임상 근거와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한다.

- 정책 변화 추적 및 문제제기

4. 의약품 정책 아젠다의 사회적 확산과 연대 강화

4.1 의약품 정책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공공성 이슈를 공유한다.

- 시민 대상 기고글 작성

4.2 회원과 시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연대와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정책 토론회 개최, 토론회를 통한 내용 공유

4.3 보건의료 공공성, 의료영리화, 기후위기 등 건강권 의제와 연대한다.

- 유관단체와 연대 및 공동 대응

2026년 새약사새약국부 사업계획(안)

I. 통합돌봄 사업

사업계획1 통합돌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스터디 팀

목적	통합돌봄의 철학적 개념 및 구체적인 모습을 해외사례(일본, 영국, 스웨덴 등)를 통해 이해하고, 건약이 지향하는 통합돌봄의 모습을 그려본다.
세부 활동 계획	◎ 통합돌봄정책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정책이므로 각 지부에서도 역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긴 호흡으로 지역의 통합돌봄정책을 살펴볼 지부별 스터디 멤버 참여 독려. ◎ 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선진국 일본, 영국, 스웨덴 정도가 언급됨. □ 일본 Aging in Place, 지역포괄케어시스템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 □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Community Care) : '통합돌봄 선구자 사업 (Pioneering Care)' □ 스웨덴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Community Care), 1992년 아텔 개혁 이후 도입 ◎ 온라인 스터디 2~3회 정도 - 일본사례 / 영국, 스웨덴사례 / 건약이 생각하는 통합돌봄 토론
기대 효과	통합돌봄의 개념을 해외사례(일본, 영국, 스웨덴 등)를 통해 이해하고, 건약이 지향하는 통합돌봄의 모습을 구체화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정책제안이나 모니터링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계획2 국내에서 통합돌봄과 방문약료를 실천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의 경험을 듣는 회원 세미나

목적	통합돌봄 및 방문약료에 대해 고민의 깊이를 더함.
세부 활동	◎ 전체회원 대상 온라인 세미나 (엘림포럼 같은 형태) □ 예) 스터디팀의 통합돌봄 해외사례 발표

계획	□ 예) 늘봄가치(비영리스타트업)의 관악구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사업 참여 경험 1) 찾아가는 마을약사 2) 스마트복용관리 시스템 지원 3) 찾아가는 복약상담소 □ 예) 돌봄의원 (보건복지부 승인 재택의료센터, 서울 성북구)
기대 효과	◎ 2022년부터 엘림포럼을 통해 통합돌봄에 대한 구상과 방문약료 실천회원들의 경험을 나누어왔음. ◎ 최근까지도 지역중심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축적된 경험을 검토해봄. ◎ 특히 재택의료 영역에서 자리잡은 방문진료/방문간호 등과 방문약료의 연결점을 찾고, 약사인력의 가정방문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 필수적 요소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음.

사업계획3 건강보험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회원 참여 독려

목적	약사의 포괄적 약물관리 경험을 축적함
세부 활동 계획	◎ 다제약물 관리사업 참여 경험 공유하는 간담회 (회원2-3명 경험 발표 + 의견공유) ◎ 참여회원 위주로 단체카톡방 운영? 질문과 답변, 사례공유
기대 효과	◎ 현재 제도권 내에서 약사에 의한 포괄적 약물관리의 형태에 가장 가까운 제도가 다제약물 관리사업임. ◎ 통합돌봄 내에서 본보기가 될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약물관리상담의 경험 쌓고, 약물관리에 있어 소외되는 그룹이 없는지 등 제도 개선점 찾을 수 있음. ◎ 새약사팀 핵심사업인 약물부작용상담의 교육과도 연계할 수 있음.

II. 의약품 부작용 사업 계획

1. 사업 목표

- 1) ‘약사’ 다운 부작용 상담이 가능한 약사로 성장
처방조제+일반약 판매를 넘어서 지역 환자들에게 신뢰할만한 상담을 제공하는 약사가 되기 위한 풀뿌리(?) 공부

설명서 읽어주는 사람, 처방 중재 행위가 두려운 약사에서 벗어나자! 사람들이 ‘돈 내고’, ‘전문가’에게 기대할만한 수준의 부작용 상담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목표

전문가/오래된 교과서의 말을 의심없이 믿는 것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유도

2) 신-구, 지부간 교류

신입 약사와 경력 약사가 서로 경험과 최신 지식을 공유하고, 스터디에 국한되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장

오프라인 세미나를 지부에 순회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 지부 활동과도 가능한 연계하여 일정 조율 (ex. 토요일 탈원전 집회 참여-일요일 세미나 진행과같이 1박 2일 일정)

2. 주요 사업 내용

1) 월 2회 의약품 부작용 세미나 (짝수달 1회 오프라인 세미나)

- 온라인 세미나: zoom, 한 회차에 이론 1개-사례 1개 묶어서, 신청자 제한 없이 전체 건약 회원 대상(학생은 포함할지?)

- 오프라인 세미나: 지부에 신입약사 대상 적극적 홍보 요청, 신청받아 진행하되 가능한 신입-경력 조화 이루는 구성으로, 실제 환자 상담 실습(2025 오프라인 1~2회차 내용)과 레터쓰기 실습(2025 오프라인 3회차 내용) 위주

- 월별 계획

1개월차: 약물이상반응 개론

2개월차: 알레르기+과민반응/오프라인 실습

3개월차: 위장관/간담체

4개월차: 내분비/오프라인 실습

5개월차: 비뇨기/신장

6개월차: 심혈관/오프라인 실습

- 이벤트성 세미나: 항암제(세대별-기전별 특성 따라 회차 나눠서 가능), 면역억제제, glp-1 agonist 등 주제별 신약(?) 부작용 모니터링

2) 부작용 상담 자랑대회(?)

4분기~연말에 정리하는 의미로 회원들의 부작용 상담 경험 설문조사/수집

수기/영상/포스터/구연발표?

3. 기대 효과

- 1) 돌봄이 가능한 약사 모델 연구: 방문약료 등 돌봄 측면에서 약사가 ‘면허’라는 지대를 유지할 만한 사회적 가치는 의약품 부작용 상담/모니터링에 있음
의약품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적 가치와 위해 간의 균형을 분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불필요한 처방연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 2) 약사사회에 ‘공부하는 약사’가 모범적인 것을 넘어 표준적인 것이 되도록 인식 개선
사용한 역사가 쌓이며 새로운 부작용이 발견되거나, 신약의 경우 현장의 약사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수 있음
약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꾸준히 스스로 최신 자료를 찾고 환자 경험을 경청하는 능동적인 공부가 필요함
- 3) 회원 조직력 강화
신-구, 수도권-지방 간 교류

Ⅲ. 환경 사업 계획

1. 사업 목표

보건의료정책 환경평가

기후위기 시대,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을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평가·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의약품 환경 캠페인

“약! 적게 먹고, 적게 만들고, 적게 버리자” “내 건강도, 지구 건강도 - 약, 딱 필요한 만큼만”을 핵심 메시지로, 의약품의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천을 확산한다.

기후정의행진 참여

회원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목소리를 강화하고 실천 행동을 조직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1) 보건의료정책의 환경적 관점 검토 및 분석

추진 방향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을 환경적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검토·분석하고, 정책 개선안을 모색한다.

사례 예시

-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시설 중심 돌봄 대비 환경 부담을 줄이는 효과 평가
- 약가제도가 과잉처방·과잉소비를 유발하여 환경 부담을 증가시키는지 검토
-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높여 이동 거리 및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 분석

(2) 의약품 환경 캠페인

핵심 메시지

- “내 건강도, 지구 건강도 - 약, 딱 필요한 만큼만“
- “과잉생산·과잉복용 과잉폐기를 줄이면 지구도 건강해집니다“
-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약만 적절하게“
- “약! 적게 먹고, 적게 만들고, 적게 버리자“

추진 내용

의약품의 생산·소비·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알리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홍보 콘텐츠(카드뉴스, 포스터 등)를 제작·배포한다.

(3) 기후정의행진 참여

추진 방향

- 캠페인 슬로건을 활용한 메시지 전달
- 회원 참여를 조직하고, 행진 현장에서 시민 대상 캠페인 홍보 및 소통 강화

- SNS 확산 등 다양한 참여 채널 마련

3. 기대 효과

정책력 확대

보건의료정책에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점을 적용하는 평가 틀을 제시한다.

사회적 인식 확산

의약품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시민, 제약사, 정부 등 사회 전반에 알리고,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서의 책임 있는 실천을 촉진한다.

회원 조직력 강화

건약 회원들의 참여 행동을 통해 조직의 실천력과 사회적 신뢰도를 높인다.

2026년 사무국 사업계획(안)

I. 사업목표

회원관리 및 사무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속한다.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하여 대•내외적으로 건약 사업 및 활동을 홍보한다. 또한, 신입회원을 비롯한 기존의 미활동 회원들의 관심과 상황에 맞는 활동 공간을 모색한다.

- 1) 안정적인 회원관리
- 2) SNS를 활용한 건약 사업 활동 소개 및 홍보
- 3) 미활동 회원의 활동 공간 모색
- 4) 각 사업부 활동 및 연대활동 지원
- 5) 기타 중집위 사업 추진

II. 사업계획 및 내용

- 1) 안정적인 회원관리
 - 회원명단 및 재정의 안정적 관리
 - 회비영수증 발급, 회원 탈퇴, 통장 변경 등 안내
 - 매월 재정관리 업무 보고
- 2) SNS를 활용한 건약 사업 활동 소개 및 홍보
 - 정기적인 건약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 건약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전 트위터) 운영
 - 건약 홈페이지 관리
- 3) 미 활동 회원의 활동 공간 모색
 - 신입회원을 비롯한 기존의 미 활동 회원 만나기
 - 다양한 관심과 각기 다른 상황에 맞는 활동 모색 및 제시
 - 회원들과 온오프라인 모임 모색
 - 소모임(건약 아카데미, 영화 토크아보기, 철학과 인문 등) 활동 지원

4) 각 사업부 활동 및 연대활동 지원

5) 기타 중집위 사업 추진

- 정기적인 엘림포럼 개최
- 전국건약행사 준비

안전 자료

2026년 19기 1차년도 예산(안)

I. 세입 안 (단위: 원)

내역	월평균	연합계
1. 전년이월금		25,174,842
2. 회비	8,084,000	97,008,000
서경지부 자동이체	40,000	480,000
서경지부 CMS	5,000,000	60,000,000
광전지부	1,240,000	14,880,000
대경지부	544,000	6,528,000
대충지부	350,000	4,200,000
울산지부	690,000	8,280,000
부경지부	220,000	2,640,000
3. 기타 이자 등	101,000	1,212,000
적립금 만기 및 이자	1,000	12,000
기타	100,000	1,200,000
4. 모금	100,000	1,200,000
소계 (2+3+4)	8,285,000	99,420,000
계 (1+2+3+4)		124,594,842

II. 세출 안 (단위: 원)

내역	월평균	연합계
1. 관리 운영비	5,088,000	61,056,000
인건비	4,000,000	48,000,000
상근자활동비	100,000	1,200,000
임대,관리비	395,000	4,740,000
사무용품비	15,000	180,000
비품비	50,000	600,000
홈페이지,MRM관리	82,000	984,000
우편통신비	45,000	540,000
4대보험	95,000	1,140,000
퇴직금적립	300,000	3,600,000
기타	6,000	72,000
2. 제반 수수료	100,000	1,200,000
3. 조직 활동비	650,000	7,800,000
회의비	350,000	4,200,000
경조사	50,000	600,000
기타(회원선물 등)	250,000	3,000,000
4. 사업행사비	1,300,000	15,600,000
5. 네트워크사업비	126,000	1,512,000
회지 발행	46,000	552,000
자료구입 및 구독료	80,000	960,000
6. 연대 사업비	921,000	11,052,000
정기분담금	671,000	8,052,000
기타연대	250,000	3,000,000
7. 모금지출	100,000	1,200,000
8. 예비비		-
계	8,285,000	99,420,000
차기이월금		25,174,842

Ⅲ. 예산 산출 근거

1. 수입 부분

- 회비 수입은 전년도 수입액에 준하여 책정했습니다.
- 기타 수입 중 이자는 적립금이 없어 최소금액으로 책정, 전년의 특별회비 및 히로시마 행사 참가비 등을 제외하고 책정했습니다.
- 모금 수입은 최소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2. 세출 부분

- 1) 관리운영비 중 활동가 인건비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전년지출액과 비슷하게 책정했습니다.
- 2) 제반수수료, 사업행사비, 교육홍보비, 연대사업비는 전년과 비슷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사업행사비 중 원수폭 대회 참가 관련 비용은 참가비 제외한 실사용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 3) 조직활동비 중 회의비는 전년 지출비용에 대표 교통비를 추가하여 책정하였고,
기타(회원선물 등) 비용은 전년의 굿즈 제작비용 약 32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 4) 모금지출액은 최소비용으로 책정한 모금수입액 전액과 동일합니다.
- 5) 2026년 수입예산액과 2026년 지출예산액 동일한 예산안입니다.
차기 이월금 예상액은 올해 이월금과 동일한 25,174,182원입니다.

안전 자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칙 개정의 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칙 (신/구문 대조안)

제정 : 1990. 1. 21.
 개정 : 1992. 1. 26.
 개정 : 1993. 2. 28.
 개정 : 1994. 6. 19.
 개정 : 1996. 2. 4.
 개정 : 1998. 2. 22.
 개정 : 2000. 2. 20.
 개정 : 2002. 1. 27.
 개정 : 2004. 1. 11.
 개정 : 2006. 1. 15.
 개정 : 2008. 1. 20.
 개정 : 2010. 1. 17.
 개정 : 2012. 1. 15.
 개정 : 2016. 1. 17.
 개정 : 2017. 1. 15.
 개정 : 2018. 1. 21
 개정 : 2020. 4. 25
 개정 : 2024. 1. 21
 개정 : 2026. 1. 18

회 칙 전 문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인류의 줄기찬 노력과 지혜는 조화로운 사회적 제도와 발달된 과학을 민중 모두의 것으로 하기 위한 기나긴 역사의 줄기를 이루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조상은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우리 주변의 자연을 이용하여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독특한 지혜를 발달시켰으며, 이를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실현시켜 왔다. 이제 이러한 정신과 지혜를 오늘 이어받아 과학의 자주성을 이루어 폭넓은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하여 진정한 민중적 제도를 건설해 나가야 할 때이다. 오늘날 보건 현실의 질곡이 되고 있는 상품 의료의 전횡 속에서 국민의 건강할 권리는 억압되고 올바른 약사의 역할 또한 부정되어 왔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약사로서 국민에게 온전한 건강을, 약사에게 올바른 사회적 역할을 약속하는 총체 보건의 실현에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

이다.

첫째, 질병을 개인적인 운명으로 돌리고 수동적이었던 대다수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위한 운동의 주체로 자각하고 나설 때 국민 건강의 새로운 지평은 열릴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그들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내고 건강에 대한 권리를 자각하도록 돕는 일이 보건 의료인의 중요한 책무이다. 둘째, 약사 스스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자각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과 실천 작업 없이는 우리의 과제는 성취될 수 없다. 셋째로 우리와 함께 목표와 실천을 같이 할 수 있는 보건 의료 단체 및 사회단체와 연대, 협력을 굳건히 할 때 그것은 보다 앞당겨 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이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광범한 약사들의 참여 속에서 그들의 양심과 요구를 바탕으로 보건 운동을 위한 제반 사업을 연구, 기획하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스스로 민주적 운영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총체 보건의 실현에 앞장서 나가고자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구현을 최고의 이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 총체 보건 확립에 적극 노력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동참하여 약사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1) 총체 보건 확립을 위한 보건 의료의 올바른 제도적 정착에 기여하는 연구 및 실천 활동
- 2) 의료 소외 계층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진료 투약 및 제반 지원 활동.
- 3) 환경 보건 및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인자의 배격을 위한 활동.
- 4) 전문 학술 연구 사업.
- 5) 회원의 친목과 조직 확대를 위한 사업.
- 6) 본 회의 목적과 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홍보 및 자료 발간 사업.
- 7) 본 회의 목적에 관계되는 국내외 단체와 연대 및 교류 사업.
- 8) 기타 본 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사업.

제 4조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 및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조 (자격)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약사와 약대생으로 한다.

제 6조 (가입 절차) 자격을 갖춘 자로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입회할 수 있다.

제 7조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걸쳐 발의, 건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 2) 본 회의 임원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3) 본 회의 활동 사항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 단, 중앙위원회에서 비공개 할 것을 결의한 자료에 한하여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 4) 본 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5)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1항과 2항의 권리를 제한한다.

제 8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국민 건강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 2)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활동 및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
- 3) 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학생회원) 약학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한 자로서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료를~~ 말하며, 회의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회비납부와 의무~~카~~는 없으며,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 9조 (탈퇴)

- 1) 탈퇴는 회원이 탈퇴 의향 구두 통보 및 문서(우편, 팩스, 이메일 포함)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탈퇴한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 3) ~~조직사무국~~ 사무국은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연말정산 등 탈퇴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 구 및 운 영

제 10조 (구성) 본 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본 회의는 총회, 대의원 총회, 중앙 위원회, 지부 및 지회, 중앙 집행 위원회를 둔다. 중앙 집행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 새약사새약국사업부, 정책부를 둔다.

2)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 산하에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 위원회 위원장은 중앙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제 1절 총회

제 11조 (소집) 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정기 총회는 총회 의장이 소집하며, 짝수 년 3월 이전으로 한다.
- 2) 대의원 총회의 의결 또는 회원 재적 1/10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한다.
- 2) 대표, 총회 의장, 총회 부의장(2인 이내), 감사(2인 이내) 선출한다.
- 3) 당해 연도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의 심의, 의결한다.
- 4) 중앙 위원회 및 대의원 1/5이상이 제안한 중요 사안에 대한 토의 및 의결한다.

제 2절 대의원 총회

제13조 (소집) 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정기 대의원 총회는 홀수 년 3월 이전에 대표가 소집한다.
- 2) 의장은 총회의장이 수행한다.
- 3) 중앙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기능) 대의원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당해 연도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의 심의, 의결
- 2) 중앙 위원회 및 대의원 1/5이상이 제안한 중요 사안에 대한 토의 및 의결
- 3) 2)항에 의해 집행된 사안에 대한 심의
- 4)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 의결

제15조 (구성) 각 지부 및 지회에서 직접 선출한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3절 중앙 위원회

제16조 (소집)

- 1) 정기 회의는 1년에 4회 이상 대표가 소집한다.
- 2) 임시 회의는 대표 또는 중앙 위원 재적 1/3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 3) 중앙 위원회는 재적 중앙 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7조 (기능)

- 1) 중앙 위원회는 대의원 총회가 열리지 않는 평상시의 의결 집행 기구로서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있어서 주요 원칙, 활동 사항 등을 심의, 의결, 집행한다.
- 2) 고문 및 자문 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회 운영에 반영한다.

제18조 (구성 및 의결)

- 1) 중앙 위원회는 대표를 의장으로 수석 부대표, 부대표, 지부장, 지회장, 사무국장, 새약사 새약국사업부장, 정책부장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참석한다.
- 2) 중앙 위원회는 출석 중앙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단, 대표가 필요에 따라 중앙 집행 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 3) 중앙위원회는 공개 회의 운영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회원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 4) 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 회기동안 비공개한 자료 및 정보를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 4절 중앙 집행 위원회

제9조 (소집) 회의는 월 1회 이상 중앙 집행 위원장(대표)이 소집한다.

제20조 (기능)

- 1) 중앙 위원회 보좌
- 2) 중앙 위원회 결정 사항 집행
- 3) 전국 회원의 공동 참여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의 범위 내에서 시급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집행

제21조 (구성)

- 1) 중앙 집행 위원회는 대표, 수석부대표, 부대표, 사무국장, 새약사새약국사업부장, 정책부장 및 중앙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이로 구성한다.
- 2) 회원은 누구나 중앙집행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다.

제 5절 새약사새약국사업부

제22조(주요 업무)

- 1) 새로운 약국 모델과 약사의 공공적 역할을 모색하고 이를 정립한다.
- 2) 새로운 약국 모델과 약사의 공공적 역할이 약사사회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회원 관리 및 조직 업무를 실행한다.~~

제 6절 사무국

제23조(주요 업무)

- 1)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처리하며 상근활동가의 업무를 관리한다.
- 2) 실무 사항을 입안 처리할 권한이 있으며 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 3) 회원 관리 및 정기 행사와 특별 행사를 기획, 실행한다.
- 4)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 5) 홈페이지 및 SNS 등 온라인 홍보매체를 관리한다.

제 7절 정책부

제24조 (주요 업무)

- 1) 공공보건의료 정책개발 및 대응
- 2) 의약품 및 보건의료 관련 사안 대응
- 3) 의약품 및 보건의료 공공성 연구
- 4) 의약품 안전 사업 진행

제 8절 임원

제26조 (임원) 본회는 대표, 감사(2인 이내), 부대표(2인 이상), 총회 의장, 총회 부의장(2인 이내), 중앙 위원 등의 임원을 둔다.

제27조 (선출)

- 1) 대표의 선출 방법은 선거 관리 규정에 의한다.
- 2) 부대표는 대표가 지명하며 부대표 중 수석 부대표는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감사 :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총회 의장, 총회 부의장 : 총회에서 3인 이상의 추천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 5) 사무국장, 새약사새약국사업부장, 정책부장은 대표가 선임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28조 (직무)

- 1) 대표 : 본 회를 대표하며, 대의원 총회 및 중앙 위원회 및 중앙 집행 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 2) 감사 : 본 회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 및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 3) 부대표 : 대표의 유고시 대표의 역할을 대행하고, 중집위와 중앙위 의결에 참여하고, 회의 업무를 보좌한다.
- 4) 사무국장, 새약사새약국사업부장, 정책부장 : 각 부서의 소관 업무를 주관하며 이를 대표 및 중앙 위원회에 보고한다.
- 5) 각 부서 내 부서장 이외에 추가적인 직책을 신설할 수 있다.

제29조 (임기) 대표, 감사, 총회 의장, 총회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9절 고문 및 자문 위원

제30조 (추대) 대표의 추천에 의해 중앙 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고문 및 자문 위원을 추대한다.

제31조 (업무) 대표 및 중앙 위원회에 대한 지도 및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회칙 제정 및 개정

제32조 (발의) 회칙 제정 및 개정의 발의는 중앙 위원 2/3 이상, 대의원 1/3 이상으로 한다.

제33조 (공고) 총회 10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34조 (의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 5 장 재 정

제35조 (재원)

- 1) 본 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 및 기타 수익 사업으로 조달한다.
- 2) 평생 회비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 3) 연회비 : 당해 년도 책정된 월 회비 기준의 10배의 금액으로 한다.

- 4) 특별회비 : 본 회의 회원이 아닐지라도 특별 회비를 내고자 하는 경우는 사무국장이 판단하여 처리하며, 본인의 요구 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5) 회원의 회비는 중앙 예산을 회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36조 (지출) 재원의 지출은 의결된 예산에 의거, 본 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에 지출한다.

제37조 (회계 년도와 예산 결과)

- 1) 회계 년도는 1년으로 한다.
- 2) 예산 및 결산은 매년 정기 총회 또는 대의원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6 장 약 정

제38조 (가입 불허) 중앙집행위원회는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이 본회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질 때에 이를 심사하여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39조 (상벌) 중앙 위원회는 필요시 회원의 상벌을 의결할 수 있다.

1) 표창

중앙 위원회는 회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한 회원 또는 지부, 지회 및 부서에 대하여 모범 회원, 모범 지부, 공로 회원 등의 표창을 할 수 있다.

2) 징계

중앙 위원회는 대표 이외의 중앙 집행 위원으로서 회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각 종 회의 참석 및 사업 집행에 불성실하거나 회에 위해를 가하는 활동을 한 경우 근신, 감봉, 직위 해제 등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제명

중앙 위원회는 본 회 회원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에 현저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 재적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 ① 제 2조 회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가짜 약사 고용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한 영리 추구를 한 경우

제40조 (불신임)

- 1) 대표, 총회 의장, 총회 부의장, 감사에 대한 불신임은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 2) 불신임의 가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41조 (탈퇴시 권리 포기) 자의 또는 제명에 의한 탈퇴 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부 칙

제 1조 (효력)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인준) 지부장은 지부에서 선출하여 대표가 인준한다.

제 3조 (관례 준수)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준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칙 (개정안)

제정 : 1990. 1. 21.
 개정 : 1992. 1. 26.
 개정 : 1993. 2. 28.
 개정 : 1994. 6. 19.
 개정 : 1996. 2. 4.
 개정 : 1998. 2. 22.
 개정 : 2000. 2. 20.
 개정 : 2002. 1. 27.
 개정 : 2004. 1. 11.
 개정 : 2006. 1. 15.
 개정 : 2008. 1. 20.
 개정 : 2010. 1. 17.
 개정 : 2012. 1. 15.
 개정 : 2016. 1. 17.
 개정 : 2017. 1. 15.
 개정 : 2018. 1. 21
 개정 : 2020. 4. 25
 개정 : 2024. 1. 21
개정 : 2026. 1. 18

회 칙 전 문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인류의 줄기찬 노력과 지혜는 조화로운 사회적 제도와 발달된 과학을 민중 모두의 것으로 하기 위한 기나긴 역사의 줄기를 이루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조상은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우리 주변의 자연을 이용하여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독특한 지혜를 발달시켰으며, 이를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실현시켜 왔다. 이제 이러한 정신과 지혜를 오늘 이어받아 과학의 자주성을 이루어 폭넓은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하여 진정한 민중적 제도를 건설해 나가야 할 때이다. 오늘날 보건 현실의 질곡이 되고 있는 상품 의료의 전횡 속에서 국민의 건강할 권리는 억압되고 올바른 약사의 역할 또한 부정되어 왔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약사로서 국민에게 온전한 건강을, 약사에게 올바른 사회적 역할을 약속하는 총체 보건의 실현에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첫째, 질병을 개인적인 운명으로 돌리고 수동적이었던 대다수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위한 운동의 주체로 자각하고 나설 때 국민 건강의 새로운 지평은 열릴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그들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내고 건강에 대한 권리를 자각하도록 돕는 일이 보건 의료인의

중요한 책무이다. 둘째, 약사 스스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자각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과 실천 작업 없이는 우리의 과제는 성취될 수 없다. 셋째로 우리와 함께 목표와 실천을 같이 할 수 있는 보건 의료 단체 및 사회단체와 연대, 협력을 굳건히 할 때 그것은 보다 앞당겨 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이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광범한 약사들의 참여 속에서 그들의 양심과 요구를 바탕으로 보건 운동을 위한 제반 사업을 연구, 기획하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스스로 민주적 운영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총체 보건의 실현에 앞장서 나가고자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구현을 최고의 이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 총체 보건 확립에 적극 노력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동참하여 약사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1) 총체 보건 확립을 위한 보건 의료의 올바른 제도적 정착에 기여하는 연구 및 실천 활동
- 2) 의료 소외 계층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진료 투약 및 제반 지원 활동.
- 3) 환경 보건 및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인자의 배격을 위한 활동.
- 4) 전문 학술 연구 사업.
- 5) 회원의 친목과 조직 확대를 위한 사업.
- 6)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홍보 및 자료 발간 사업.
- 7) 본회의 목적에 관계되는 국내외 단체와 연대 및 교류 사업.
- 8)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사업.

제 4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 및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조 (자격)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약사와 약대생으로 한다.

제 6조 (가입 절차) 자격을 갖춘 자로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입회할 수 있다.

제 7조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걸쳐 발의, 건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 2) 본 회의 임원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3) 본 회의 활동 사항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 단, 중앙위원회에서 비공개 할 것을 결의한 자료에 한하여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 4) 본 회의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5)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1항과 2항의 권리를 제한한다.

제 8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국민 건강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 2)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활동 및 본 회의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
- 3) 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학생회원) 약학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를 말하며, 회의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회비 납부 의무는 없으며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 9조 (탈퇴)

- 1) 탈퇴는 회원이 탈퇴 의향 구두 통보 및 문서(우편, 팩스, 이메일 포함)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탈퇴한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 3) 사무국은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연말정산 등 탈퇴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 구 및 운 영

제 10조 (구성) 본 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본 회의는 총회, 대의원 총회, 중앙 위원회, 지부 및 지회, 중앙 집행 위원회를 둔다. 중앙 집행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 새약사새약국사업부, 정책부를 둔다.
- 2)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 산하에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 위원회 위원장은 중앙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제 1절 총회

제 11조 (소집) 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정기 총회는 총회 의장이 소집하며, 짝수 년 3월 이전으로 한다.
- 2) 대의원 총회의 의결 또는 회원 재적 1/10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한다.
- 2) 대표, 총회 의장, 총회 부의장(2인 이내), 감사(2인 이내) 선출한다.
- 3) 당해 연도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의 심의, 의결한다.
- 4) 중앙 위원회 및 대의원 1/5이상이 제안한 중요 사안에 대한 토의 및 의결한다.

제 2절 대의원 총회

제13조 (소집) 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정기 대의원 총회는 홀수 년 3월 이전에 대표가 소집한다.
- 2) 의장은 총회의장이 수행한다.
- 3) 중앙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기능) 대의원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당해 연도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의 심의, 의결
- 2) 중앙 위원회 및 대의원 1/5이상이 제안한 중요 사안에 대한 토의 및 의결
- 3) 2)항에 의해 집행된 사안에 대한 심의
- 4)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 의결

제15조 (구성) 각 지부 및 지회에서 직접 선출한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3절 중앙 위원회

제16조 (소집)

- 1) 정기 회의는 1년에 4회 이상 대표가 소집한다.
- 2) 임시 회의는 대표 또는 중앙 위원 재적 1/3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 3) 중앙 위원회는 재적 중앙 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7조 (기능)

- 1) 중앙 위원회는 대의원 총회가 열리지 않는 평상시의 의결 집행 기구로서 본회의 목적과 사

업에 있어서 주요 원칙, 활동 사항 등을 심의, 의결, 집행한다.

2) 고문 및 자문 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회 운영에 반영한다.

제18조 (구성 및 의결)

1) 중앙 위원회는 대표를 의장으로 수석 부대표, 부대표, 지부장, 지회장, 사무국장, 새약사 새약국사업부장, 정책부장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참석한다.

2) 중앙 위원회는 출석 중앙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단, 대표가 필요에 따라 중앙 집행 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중앙위원회는 공개 회의 운영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회원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 회기동안 비공개한 자료 및 정보를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 4절 중앙 집행 위원회

제9조 (소집) 회의는 월 1회 이상 중앙 집행 위원장(대표)이 소집한다.

제20조 (기능)

1) 중앙 위원회 보좌

2) 중앙 위원회 결정 사항 집행

3) 전국 회원의 공동 참여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의 범위 내에서 시급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집행

제21조 (구성)

1) 중앙 집행 위원회는 대표, 수석부대표, 부대표, 사무국장, 새약사새약국사업부장, 정책부장 및 중앙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이로 구성한다.

2) 회원은 누구나 중앙집행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다.

제 5절 새약사새약국사업부

제22조(주요 업무)

1) 새로운 약국 모델과 약사의 공공적 역할을 모색하고 이를 정립한다.

2) 새로운 약국 모델과 약사의 공공적 역할이 약사사회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6절 사무국

제23조(주요 업무)

- 1)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처리하며 상근활동가의 업무를 관리한다.
- 2) 실무 사항을 입안 처리할 권한이 있으며 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 3) 회원 관리 및 정기 행사와 특별 행사를 기획, 실행한다.
- 4)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 5) 홈페이지 및 SNS 등 온라인 홍보매체를 관리한다.

제 7절 정책부

제24조 (주요 업무)

- 1) 공공보건의료 정책개발 및 대응
- 2) 의약품 및 보건의료 관련 사안 대응
- 3) 의약품 및 보건의료 공공성 연구
- 4) 의약품 안전 사업 진행

제 8절 임원

제26조 (임원) 본회는 대표, 감사(2인 이내), 부대표(2인 이상), 총회 의장, 총회 부의장(2인 이내), 중앙 위원 등의 임원을 둔다.

제27조 (선출)

- 1) 대표의 선출 방법은 선거 관리 규정에 의한다.
- 2) 부대표는 대표가 지명하며 부대표 중 수석 부대표는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감사 :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총회 의장, 총회 부의장 : 총회에서 3인 이상의 추천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 5) 사무국장, 새약사새약국사업부장, 정책부장은 대표가 선임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28조 (직무)

- 1) 대표 : 본 회를 대표하며, 대의원 총회 및 중앙 위원회 및 중앙 집행 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 2) 감사 : 본 회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 및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 3) 부대표 : 대표의 유고시 대표의 역할을 대행하고, 중집위와 중앙위 의결에 참여하고, 회의 업무를 보좌한다.

- 4) 사무국장, 새약사새약국사업부장, 정책부장 : 각 부서의 소관 업무를 주관하며 이를 대표 및 중앙 위원회에 보고한다.
- 5) 각 부서 내 부서장 이외에 추가적인 직책을 신설할 수 있다.

제29조 (임기) 대표, 감사, 총회 의장, 총회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9절 고문 및 자문 위원

제30조 (추대) 대표의 추천에 의해 중앙 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고문 및 자문 위원을 추대한다.

제31조 (업무) 대표 및 중앙 위원회에 대한 지도 및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회칙 제정 및 개정

제32조 (발의) 회칙 제정 및 개정의 발의는 중앙 위원 2/3 이상, 대의원 1/3 이상으로 한다.

제33조 (공고) 총회 10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34조 (의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 5 장 재 정

제35조 (재원)

- 1) 본 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 및 기타 수익 사업으로 조달한다.
- 2) 평생 회비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 3) 연회비 : 당해 년도 책정된 월 회비 기준의 10배의 금액으로 한다.
- 4) 특별회비 : 본 회의 회원이 아닐지라도 특별 회비를 내고자 하는 경우는 사무국장이 판단하여 처리하며, 본인의 요구 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5) 회원의 회비는 중앙 예산을 회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36조 (지출) 재원의 지출은 의결된 예산에 의거, 본 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에 지출한다.

제37조 (회계 년도와 예산 결과)

- 1) 회계 년도는 1년으로 한다.
- 2) 예산 및 결산은 매년 정기 총회 또는 대의원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6 장 약 정

제38조 (가입 불허) 중앙집행위원회는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이 본회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질 때에 이를 심사하여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39조 (상벌) 중앙 위원회는 필요시 회원의 상벌을 의결할 수 있다.

1) 표창

중앙 위원회는 회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한 회원 또는 지부, 지회 및 부서에 대하여 모범 회원, 모범 지부, 공로 회원 등의 표창을 할 수 있다.

2) 징계

중앙 위원회는 대표 이외의 중앙 집행 위원으로서 회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각 종 회의 참석 및 사업 집행에 불성실하거나 회에 위해를 가하는 활동을 한 경우 근신, 감봉, 직위 해제 등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제명

중앙 위원회는 본 회 회원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에 현저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 재적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 ① 제 2조 회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가짜 약사 고용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한 영리 추구를 한 경우

제40조 (불신임)

- 1) 대표, 총회 의장, 총회 부의장, 감사에 대한 불신임은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 2) 불신임의 가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41조 (탈퇴시 권리 포기) 자의 또는 제명에 의한 탈퇴 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부 칙

제 1조 (효력)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인준) 지부장은 지부에서 선출하여 대표가 인준한다.

제 3조 (관례 준수)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준한다.